R488 / 2004. 12

한·ASEAN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비한 농업부문 기초연구

권 오 복 부연구위원
최 세 균 선임연구위원
허 주 녕 전문연구원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권 오 복	부연구위원	연구총괄, 제1~3장, 제5장, 제9장 집필
최 세 균	선임연구위원	제6~8장 집필
허 주 녕	전문연구원	제4장 집필

머 리 말

FTA체결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도 국가발전 전략상 동시 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할 예정이다. ASEAN과는 2005년부터 FTA 협상을 개시하여 2년 내로 협상을 종결짓는 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낮은 농업부문은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적지 않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칠레 FTA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FTA에 대한 치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2년차 연구 중 1년차 연구인 본 보고서에서는 한·ASEAN FTA 추진에 대비하여 ASEAN의 확대발전 과정과 경제 및 농업 개황, 농산물 무역 및 관세 제도 등을 분석하였다. ASEAN의 자유무역지대(AFTA) 성립과정과 중국, 인도, 일본 등 역외국과의 FTA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민감 품목과 같은 각 회원국의 관심사항은 우리나라가 ASEAN과 FTA 협상을 벌일 때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기초연구로 추진된 이 연구에서 한·ASEAN FTA 체결 시 우리나라 농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은 쌀, 열대과일, 닭고기 등으로 파악되었다. 2년차 연구에서는 이들 민감 품목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협상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모쪼록 본 보고서가 FTA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물론 한·ASEAN FTA 협상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2004.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요 약

「한 · ASEAN FTA 연구」2개년 연구 중 1차 연도 연구인 이 연구에서는 한 · ASEAN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대비하여 ASEAN 자유무역지대(AFTA)의 내용, ASEAN과 주요국과의 FTA 논의 동향, 회원국들의 농업동향, 관세구조, 농산물 무역현황 등을 정리 · 분석하였다.

1. ASEAN의 발전

ASEAN 발전의 제1기(1968-1976년)는 1968년 ASEAN의 창립으로부터 1976년 제1차 ASEAN정상회담의 개최에 이르는 ASEAN의 창립기이다. 제2기(1977-1991년)에는 제2차 ASEAN 정상회담으로부터 제4차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직전까지로서, 정치 ·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시킨 시기이다. 제3기(1992-현재)는 제4차 ASEAN정상회담이 개최된 1992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으로서, ASEAN의 자유무역지대(AFTA)가 실질적으로 형성, 추진되어 역내무역확대와 경제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시기이다. AFTA에서 관세인하대상 품목은 기존회원국은 2010년까지, 후발개도국은 2015년까지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관세철폐에 더 긴 시간을 부여하는 민감 및 고민감 품목은 채소, 과일, 곡물류, 육류 등 비가공농산물에 대해 적용된다.

2. 역외국가와 FTA 추진 동향

ASEAN은 AFTA를 통한 역내 경제통합 심화시키는 한편 중국, 인도, 일본 등 역외국가들과 FTA를 추진함으로써 역내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004년 11월 FTA 체결에 합의한 ASEAN과 중국은

2010년까지 관세인하에 합의하였다. 양측은 ASEAN · 중국간 FTA를 가속화시키기 위하여 FTA 이행이전에 조기자유화에 합의하였다. 조기자유화 대상품목은 HS 1～8류로서 산동물, 육과 식용설육, 어류, 낙제제품, 기타동물제품, 살아있는 수목, 식용채소류, 식용과일 및 견과류 등이다.

ASEAN과 인도는 2003년 10월 ASEAN · 인도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협력협정에 서명하였다. 관세인하 완료시점은 인도와 신규회원국은 2011말, 신규회원국은 2016년 말이다. 인도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협상촉진을 위해 공산물을 중심으로 조기자유화조치를 실시하였다. ASEAN과 일본의FTA 협상진행이 원만하지 않은 가운데 일본과 FTA에 적극성을 보이는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 3개국과의 양자협상을 조만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 일본의 구상이다.

3. ASEAN 경제개황과 전망

2003년도 ASEAN지역은 총인구 약 5억 4,000만명의 인구와 GDP 6,858억 달러 규모의 단일시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ASEAN 국가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4.8%, 1인당 GDP는 4,445달러 수준이고, 농업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9%, 광공업부문은 22.8%, 그리고 서비스업은 42.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준에서 ASEAN 회원국간 경제력의 차이가 크고, 역외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경제통합에 따른 무역창출효과의 증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4. ASEAN 주요 회원국의 농업현황과 전망

인도네시아에서는 쌀, 팜유, 코코넛, 옥수수, 카사바, 닭고기, 천연고무, 계란, 쇠고기, 돼지고기 등이 많이 생산된다. 인도네시아는 과일류와 어류는 100% 이상의 자급을 이루고 있으나 곡물, 유지작물, 채소, 육류, 우유는 국내생산만으로 국내소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2003년 현재 말레이시아의 10대 농산물은 팜유, 닭고기, 계란, 쌀, 천연고무, 팜커널, 돼지고기, 오리고기, 코코넛, 바나나 등이다. 2003년 현재 필리핀의 10대 농산물은 쌀, 돼지고기, 코코넛, 바나나, 닭고기, 기타채소, 기타열대과일, 옥수수, 달걀, 사탕수수 등이다. 2003년 현재 태국의 10대 농산물은 쌀, 닭고기, 천연고무, 카사바, 사탕수수, 돼지고기, 옥수수, 달걀, 쇠고기, 망고 등이다. 특히 닭고기는 태국에서 쌀 다음으로 생산액이 많은 품목으로 연간 50만 톤 가량이 수출된다. 태국은 우유와 유지작물을 제외하고는 100% 이상의 자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쌀, 옥수수 등 곡물류의 자급률은 150% 이상이다. 베트남의 10대 농산물은 쌀, 돼지고기, 기타 신선채소, 커피, 기타 신선과일, 닭고기, Cashew nuts, 옥수수, 카사바, 사탕수수 등이다. 베트남은 현재 세계 제2위의 쌀 수출국이다.

5. ASEAN의 농산물 교역

ASEAN 국가들의 농산물 교역 특징은 첫째, 10개 회원국이 순수출국과 순수입국으로 양분되며, 둘째, 가공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원료 농산물 위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점, 셋째, 수출 농산물이 천연고무, 팜유, 열대과일 등 열대산품과 쌀, 카사바 등 곡물류에 집중되어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천연고무, 팜유, 목재 등은 우리나라의 국내 생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원료 농산물로 수입할 수밖에 없는 품목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의 시장개방 협상에서 민감품목은 곡물류와 열대과실에 집중될 것이다. 곡물류와 열대과실은 우리나라 농산물과 직접적인 경쟁은 물론 대체수요를 통한 간접적인 경쟁을 통해서도 농업부문에 피해를 가져다 줄 것으로 우려된다.

6. 한・ASEAN 농산물 무역

우리나라와 ASEAN 국가들의 농산물 무역은 ASEAN 국가들의 수

출이 수입을 크게 앞서는 일방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매년 1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열대과일, 코코아, 커피, 후추, 당류, 박류, 팜유를 비롯한 식물성 기름 등 우리 농산물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품목이다. 또한 많은 품목들이 가공식품이나 축산업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품목은 과실과 가공식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7. ASEAN의 농산물 관세

ASEAN 회원국들 간에는 역내 공동유효특혜관세(CEPT)가 적용된다. 농산물과 비농산물을 포함한 전체 상품의 평균 CEPT 수준(2003년 기준)은 싱가포르 0%, 태국 4.64%, 말레이시아 2.06%, 인도네시아 3.71%, 필리핀 3.75% 등이며, 가장 높은 관세율은 라오스의 5%이다. ASEAN 국가들의 평균 CEPT 수준은 2.68%(2003년)로 매우 낮고 관세율의 분포 또한 국가별로 편차가 크지 않다.

8. 시사점

ASEAN과 FTA 체결시 민감품목은 쌀, 카사바 등의 곡물, 바나나, 닭고기, 파인애플, 망고 등 열대과일, 고추, 양파와 같은 양념채소 등이다. 후속연구에서 경쟁력 분석 등 이들 품목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ABSTRACT

A Basic Study on ASEAN Agricultural Sector In Connection With the Upcoming FTA Negotiations between Korea and ASE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ake a look at the agricultural sector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or ASEAN before the negotiations regarding the Free Trade Agreement (FTA) will commence between Korea and ASEAN in early 2005. This study consists of nine Chapters: Introduction, Development of ASEAN, ASEAN's FTA negotiations with Non-ASEAN Countries, Economic Trends of ASEAN Countries, Agricultural Situations, Agricultural Trade, Tariff System applied to Agricultural Products, and Conclusion.

ASEAN is on track to create a free trade zone within ASEAN through the ASEAN Free Trade Area (AFTA) scheme. Under AFTA, the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CEPT) has been applied to all member states. Most tariffs will be eliminated or reduced by 2010 in six ASEAN members (Brunei,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Singapore and Thailand). The tariff rates applied to recently joined ASEAN Member States will be eliminated by 2015. ASEAN members can opt to exclude some products from the CEPT in one of the three following cases: i) Temporary exclusions; ii) Sensitive agricultural products, and iii) General exceptions.

ASEAN has signed an FTA with China in November 2004. According to the FTA, most tariffs will be reduced or eliminated by 2010 in six ASEAN countries and by 2015 in the newer Member States. To accelerate the FTA negotiation, China offered the Early Harvest Programme under which tariffs for

some agricultural products will be reduced to 0% before January 1, 2006 in six ASEAN countries and before January 1, 2010 in the newer ASEAN Member States. Currently, ASEAN is also in talks with India, Japan, and Korea respectively regarding the signing of an FTA.

Some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will be affected by the FTA with ASEAN if it is entered into. Among grains, rice and cassava will be negatively affected by the FTA due to cheap imports from ASEAN countries, including Thailand and Vietnam. Korean domestic fruits consumption would be decreased to some degree as the tropical fruits including banana, pineapple, and mango will be imported from ASEAN. In addition to this, peppers and onions, which are sensitive products, will be negatively affected by the FTA with ASEAN as well.

Further study will be needed to make more accurate assessment on the effects of the FTA between Korea and ASEAN, and draw up domestic strategies to deal with such negative consequences. Next time, it is necessary to put a more focus on sensitive agricultural products.

Researchers: Oh-Bok Kwon, Sei-Kyun Choi and Joo-Nyung Heo
E-mail address: obkwon@krei.re.kr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3
3. 연구 내용 ····· 6
4. 연구방법과 범위 ····· 6

제2장 ASEAN의 발전

1. ASEAN의 발족과 발전 ····· 8
2. AFTA의 주요 내용 ····· 19

제3장 ASEAN의 FTA 추진 동향

1. FTA 추진 배경 ····· 30
2. ASEAN의 FTA 추진 동향과 주요 내용 ····· 33

제4장 ASEAN 경제개황과 전망

1. 인구 ····· 49
2.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변화 ····· 52
3. 교역 현황 ····· 58
4. ASEAN 국가들의 경제성장 전망 ····· 61

제5장 ASEAN 주요 회원국의 농업현황

1. 인도네시아 ····· 64

2. 말레이시아 ····· 70
3. 필리핀 ····· 76
4. 태국 ····· 81
5. 베트남 ····· 86

제6장 ASEAN의 농산물 교역

1. ASEAN의 농산물 무역 ····· 93
2. ASEAN 국별 농산물 무역 ····· 96

제7장 한·ASEAN 농산물 무역

1. 한국과 ASEAN의 교역 ····· 117
2. ASEAN 회원국별 한국과 교역 현황 ····· 119

제8장 ASEAN의 농산물 관세

1. 관세율 분포 및 관세부과 방식 ····· 137
2. 회원국별 관세체계 ····· 140

제9장 요약 및 결론 ····· 145

참고 문헌 ····· 187

표 차 례

제2장

표 2- 1. 주요 품목군별 및 ASEAN 회원국의 평균 CEPT 관세율 ···· 24
표 2- 2. ASEAN 회원국의 고민감 품목 ····· 26
표 2- 3. ASEAN 회원국의 주요 민감품목 ····· 27

제3장

표 3- 1. ASEAN 및 역내회원국의 자유무역추진 동향 ····· 34
표 3- 2. 조기자유화 적용대상 품목 ····· 37
표 3- 3. 중국과 ASEAN 기존회원국의 조기자유화조치 품목 ·· 38
표 3- 4. ASEAN 후발참여국의 조기자유화조치 품목 관세철폐 일정 ···· 39
표 3- 5. 캄보디아의 제외품목 ····· 40
표 3- 6. 베트남의 제외품목 ····· 41
표 3- 7 ASEAN 개별국가 단위의 FTA 추진 동향 ····· 48

제4장

표 4- 1. ASEAN 각국의 주요 인구지표, 2003년 기준 ····· 50
표 4- 2. 산업별 취업 비중 ····· 51
표 4- 3. ASEAN 각국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2003년 기준 ····· 53
표 4- 4. ASEAN 각국의 교역지표, 2003년 기준 ····· 59

제5장

표 5- 1. 농지이용 현황 ····· 65
표 5- 2. 농가 및 농업인구 현황 ····· 65

표 5- 3. 인도네시아의 농업투입 추이 ····· 66
표 5- 4. 농업 생산지수 변화추이, 1999-01=100 ····· 67
표 5- 5. 연도별 인도네시아의 20대 농산물 ····· 68
표 5- 6. 식품소비량과 식량자급률 변화추이 ····· 70
표 5- 7. 농지이용 현황 ····· 71
표 5- 8. 농가 및 농업인구 현황 ····· 72
표 5- 9. 말레이시아의 농업투입 추이 ····· 72
표 5-10. 농업 생산지수 변화추이, 1999-01=100 ····· 73
표 5-11. 연도별 말레이시아의 주요 농산물 ····· 74
표 5-12. 식품소비량과 식량 자급률 변화추이 ····· 76
표 5-13. 농지이용 현황 ····· 77
표 5-14. 농가 및 농업인구 현황 ····· 77
표 5-15. 필리핀의 농업투입 추이 ····· 77
표 5-16. 농업 생산지수 변화추이, 1999-01=100 ····· 79
표 5-17. 연도별 필리핀의 주요 농산물 생산현황 ····· 79
표 5-18. 식품소비량과 식량자급률 변화추이 ····· 81
표 5-19. 농지이용 현황 ····· 82
표 5-20. 농가 및 농업인구 현황 ····· 82
표 5-21. 태국의 농업투입 추이 ····· 83
표 5-22. 농업 생산지수 변화추이, 1999-01=100 ····· 84
표 5-23. 연도별 태국의 주요 농산물 생산 동향 ····· 85
표 5-24. 식품소비량과 식량자급률 변화추이 ····· 87
표 5-25. 농지이용 현황 ····· 87
표 5-26. 농가 및 농업인구 현황 ····· 88
표 5-27. 베트남의 농업투입 추이 ····· 88
표 5-28. 농업 생산지수 변화추이, 1999-01=100 ····· 89
표 5-29. 주요 농산물 생산 동향 ····· 90

표 5-30. 식품소비량과 식량자급률 변화 추이 ····· 92

제6장

표 6- 1. ASEAN 국가의 농산물 수출입 현황 ····· 95
표 6- 2. 인도네시아의 상품 및 농산물 교역 ····· 97
표 6- 3. 인도네시아의 농산물 수입현황 ····· 98
표 6- 4. 인도네시아의 농산물 수출현황 ····· 99
표 6- 5. 말레이시아의 상품 및 농산물 교역 ····· 100
표 6- 6. 말레이시아의 농산물 수입현황 ····· 101
표 6- 7. 말레이시아의 농산물 수출현황 ····· 102
표 6- 8. 태국의 상품 및 농산물 교역 ····· 104
표 6- 9. 태국의 농산물 수입현황 ····· 105
표 6-10. 태국의 농산물 수출현황 ····· 106
표 6-11. 필리핀의 상품 및 농산물 교역 ····· 108
표 6-12. 필리핀의 농산물 수입현황 ····· 109
표 6-13. 필리핀의 농산물 수출현황 ····· 110
표 6-14. 베트남의 상품 및 농산물 교역 ····· 111
표 6-15. 베트남의 농산물 수입현황 ····· 112
표 6-16. 베트남의 농산물 수출현황 ····· 113
표 6-17. ASEAN 국가들의 주요 수출 농산물 ····· 115

제7장

표 7- 1. 한국의 대 ASEAN 농산물 무역 ····· 118
표 7- 2. 한국의 대 말레이시아 농산물 무역 ····· 119
표 7- 3. 한국의 대 말레이시아 농산물 수출 ····· 120
표 7- 4. 한국의 대 말레이시아 농산물 수입 ····· 121
표 7- 5.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농산물 무역 ····· 122

표 7- 6.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농산물 수출 ····· 123
표 7- 7.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농산물 수입 ····· 124
표 7- 8. 한국의 대 태국 농산물 무역 ····· 126
표 7- 9. 한국의 대 태국 농산물 수출 ····· 127
표 7-10. 한국의 대 태국 농산물 수입 ····· 128
표 7-11. 한국의 대 필리핀 농산물 무역 ····· 129
표 7-12. 한국의 대 필리핀 농산물 수출 ····· 130
표 7-13. 한국의 대 필리핀 농산물 수입 ····· 131
표 7-14. 한국의 대 베트남 농산물 무역 ····· 132
표 7-15. 한국의 대 베트남 농산물 수출 ····· 133
표 7-16. 한국의 대 베트남 농산물 수입 ····· 134

제8장

표 8- 1. ASEAN 국가별 양허관세 비교 ····· 138
표 8- 2. ASEAN 국가들의 관세부과 방식 ····· 139
표 8- 3. ASEAN 국가들의 양허관세 분포 ····· 140
표 8- 4. ASEAN 국가들의 품목군별 양허관세율 분포 ····· 143

제9장

표 9- 1.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예상 영향정도에 따른 ASEAN 국가의 분류 … 154

부 표 차 례

부표 1. ASEAN의 주요 민감품목 ····· 160
부표 2. 싱가포르의 상품 및 농산물 교역 ····· 162
부표 3. 캄보디아 상품 및 농산물 교역 ····· 162
부표 4. 라오스의 상품 및 농산물 교역 ····· 163
부표 5. 미얀마의 상품 및 농산물 교역 ····· 163
부표 6. 브루나이의 상품 및 농산물 교역 ····· 163
부표 7. 싱가포르의 농산물 수입 ····· 164
부표 8. 싱가포르의 농산물 수출 ····· 165
부표 9. 캄보디아의 농산물 수입 ····· 166
부표 10. 캄보디아의 농산물 수출 ····· 167
부표 11. 라오스의 농산물 수입 ····· 168
부표 12. 라오스의 농산물 수출 ····· 169
부표 13. 미얀마의 농산물 수입 ····· 170
부표 14. 미얀마의 농산물 수출 ····· 171
부표 15. 브루나이의 농산물 수입 ····· 172
부표 16. 브루나이의 농산물 수출 ····· 173
부표 17. 한국의 대 싱가포르 농산물 무역 ····· 173
부표 18. 한국의 대 싱가포르 농산물 수출 ····· 174
부표 19. 한국의 대 싱가포르 농산물 수입 ····· 175
부표 20. 한국의 대 브루나이 농산물 무역 ····· 176
부표 21. 한국의 대 브루나이 농산물 수출 ····· 176
부표 22. 한국의 대 라오스 농산물 무역 ····· 177
부표 23. 한국의 대 라오스 농산물 수입 ····· 177

부표 24. 한국의 대 미얀마 농산물 무역 ····· 178
부표 25. 한국의 대 미얀마 농산물 수출 ····· 179
부표 26. 한국의 대 미얀마 농산물 수입 ····· 180
부표 27. ASEAN 국별 인구변화 및 실업률 개황 ····· 181
부표 28. 경제성장률 및 GDP 현황 ····· 182
부표 29. 산업별 GDP 성장률 ····· 183
부표 30. 산업별 GDP 구성(명목) ····· 184
부표 31. ASEAN 국가별 교역현황 ····· 185
부표 32. ASEAN 국가별 경제전망 ····· 186

그 림 차 례

제2장

그림 2- 1. ASEAN 6개국의 평균관세율 ····· 23
그림 2- 2. ASEAN 회원국의 CEPT 품목의 평균관세율, 2003 ····· 23

제4장

그림 4- 1. ASEAN 선발가입 국가 경제성장률 ····· 53
그림 4- 2. ASEAN 후발가입 국가 경제성장률 ····· 55
그림 4- 3. ASEAN 선발가입국가 산업별 GDP 구성비, 2003 ····· 57
그림 4- 4. ASEAN 후발가입국가 산업별 GDP 구성비, 2003 ····· 57
그림 4- 5. ASEAN 선발가입국의 경제성장률(단기전망) ····· 62
그림 4- 6. ASEAN 후발가입국의 경제성장률(단기전망) ····· 63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오늘날 세계경제질서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중심의 다자체제(Multilater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의 양대 축으로 형성되고 있다. 즉,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다자간무역 협상의 불확실성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지역주의 양상도 급속하게 심화되는 추세이다.[1]

교역확대를 통한 통상이익의 확보,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미체결에 따르는 상대적 불이익의 최소화, 대외신인도 제고 등 FTA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 우리나라도 역사 이래 최초로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 중에 있다. 이밖에도 우리나라는 2004년 11월말에 싱가포르와 FTA 체결에 완전 합의하고 2005년 초에 양국간 서명만을 남겨놓은 상태이

[1] 현재 전 세계적으로 220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WTO에 보고되고 있으며, 이중 172개가 실제로 체결되어,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68개 협정이 새로이 추진되고 있다.

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과 FTA 협상을 벌이는 한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캐나다, 멕시코,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2] 남미공동시장(MERCOSUR),[3] 인도 등과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모색하는 등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할 전망이다. 이중에서도 ASEAN과는 2004년 11월말 개최된 ASEAN+3 정상회담에서 2005년 상반기 중에 FTA 협상을 개시하여 2년 이내에 협상을 마무리 짓고, 2009년까지 최소한 관세부과 대상품목의 80%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FTA가 체결되면 관세 및 비관세 등 무역장벽이 낮아져 체결당사국간 무역이 촉진되고, 경제효율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특히 농업의 경우는 산업내 및 산업간 자원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FTA가 체결되면 농업 내에서 주요 농산물의 생산기반이 붕괴되고 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보다 농업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데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농업이 개방에 대한 채비가 아직 완전하게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칠레와의 FTA 체결 시에 이해 그룹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국론분열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른 경험을 가지고 있다. ASEAN 대부분의 국가가 농산물 수출에 관심이 많고

---

[2] EFTA는 유럽 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에 가입하지 않은 비가맹국을 중심으로 1960년에 영국·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스위스·오스트리아·포르투갈 7개국으로 결성된 자유무역협정인데 영국 등이 EEC에 가입함에 따라 2004년 5월 현재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 4개국이 활동 중이다.

[3] MERCOSUR는 남미공동시장(Common Market of the South)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의 약자이다. 현재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개국이 회원국이고, 남미공동시장은 일종의 관세동맹으로서 역내에서는 자유무역체제이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보호주의가 심한 편이다.

실제로 열대과일 등을 많이 수출하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ASEAN과의 FTA 협상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농업부분의 개방 폭과 속도 조정 문제가 ASEAN과 FTA 협상시 중심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ASEAN과의 FTA 협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FTA체결에 따라 필요한 국내 농업 대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FTA 체결대상국의 농업을 심층 분석하여 우리나라 농업과의 경쟁 및 보완관계, 교역확대가능성, 민감 품목 선정, 주요 이슈 등이 사전에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한·ASEAN FTA 연구」2년차 연구 중 1년차 연구인 이 연구에서는 한·ASEAN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대비하여 ASEAN 자유무역지대(AFTA)의 내용, ASEAN과 주요국과의 FTA 논의 동향, 회원국들의 농업동향, 관세구조, 농산물 무역현황 등을 정리·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과 ASEAN간의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에 대한 상대국들의 주요 관심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한·ASEAN 자유무역협정 협상 참고자료를 작성하고자 하였다. 부수적으로는 ASEAN 회원국들의 무역 및 관세자료 등이 정리되어 향후 파급영향 계측에 이용될 기초통계자료 수집도 가능할 것이다. 2차 연도에는 민감 품목을 위주로 경쟁력 및 파급영향 등이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될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지금까지 한·ASEAN FTA와 관련된 연구는 초보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ASEAN에 관한 몇몇 연구가 있다(권율 2003; 권율 2002; 원용걸 1996). 예를 들면 권율 등(2003)의 「ASEAN 경제통합의 확대와 한국

의 대응방향』이라는 연구에서는 ASEAN이 추진 중인 ASEAN 자유무역지대의 추진 현황, 주요국의 대응전략 등을 다루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ASEAN이 FTA를 체결할 경우 한국의 GDP, 후생수준, 수출은 각각 0.13%, 0.69%, 0.9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국가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산업부문별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아쉬움을 안고 있다.

한·ASEAN FTA와 관련된 연구는 KIEP가 주최한 한·ASEAN FTA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라는 세미나(2004. 6. 18.)발표 논문집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정인교(2004)는 한·ASEAN FTA의 단기적인 경제효과로서 실질 GDP와 후생, 수출이 각각 0.09%, 076%, 2.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농산물에 대해서는 한·ASEAN FTA가 타결될 경우 단기적으로 0.68%의 생산 감소를 예상하였다. 그리고 한·ASEAN FTA가 타결될 경우 한국의 농산물 수출이 증가하는 품목도 있지만, 쌀, 차, 고추, 후추, 닭고기와 바나나, 파인애플 등의 열대과일 등은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강인수(2004)는 한·ASEAN FTA에서 예상되는 무역이슈와 쟁점을 다루었는데 농업 부문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고율관세로 보호하는 닭, 조제식품 등은 FTA가 체결되어 관세가 낮아지면 한국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ASEAN의 경쟁력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이들 품목이 조기자유화요구(Early Harvest Program) 품목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바나나, 파인애플 등 열대과일은 양측에서 모두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여 ASEAN의 조기자유화 요구 수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고율관세 품목의 경우 관세가 낮아지면 생산기반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고 열대과일의 경우 소비의 대체효과로 인한 국내 과일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설득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창수(2004)는 한·ASEAN FTA에서 농수산업 부문의 이슈와 쟁

점과 관련하여 한·ASEAN간 농산물 교역구조를 분석하였다. 한·ASEAN간 FTA가 체결될 경우 HS 2단위 기준으로 식용채소 및 뿌리, 식용과실, 견과류, 감귤류, 곡물 등의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과실류 개방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산과 수입 과일간의 대체탄력성을 추정할 필요가 있고, 인디카 형 쌀에 대한 국내 수요가 어느 정도인가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김한호(2004)는 한·ASEAN간 FTA가 국내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공용 쌀, 양파, 고추 등 양념채소류, 열대과실류, 닭고기 등의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여 국내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쌀의 경우 WTO 협상과 연계하고, 과실류는 개방의 속도를 늦추는 방식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ASEAN 회원국의 농업 및 무역현황 등을 자세하게 분석한 동 연구는 앞으로 ASEAN과 협상시 유익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지만, FTA내에서 회원국간 관세인하, ASEAN과 다른 국가간의 FTA 협상에서 농업부문 논의 동향 등은 다루지 않은 아쉬움을 갖는다.

한·ASEAN FTA에 관한 연구는 아니지만, 한·일 FTA를 연구한 최세균 등(2001, 2004)과 신동천 등(2001)의 연구, 그리고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다룬 최세균 등(2002)의 연구들은 이 연구를 설계하고 진행하는 데 유익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지금까지 수행된 한·ASEAN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일반 거시부문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농업부문에 관한 연구는 회원국의 현황 분석에 치중하여 ASEAN 내부에서 관세인하 등 시장통합이 어떻게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회원국간 민감 분야가 무엇인지, 그리고 ASEAN과 다른 국가들과 FTA 협상과정에서 농업부문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는 분석하지 않은 데 비하여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누락된 부분을 포함하고, ASEAN 국가의 관세구조 등을 더욱 강조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3. 연구 내용

이 연구는 모두 9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ASEAN의 발전을 다루되, ASEAN의 구성, 발전과정을 소개하면서 최근의 FTA 추진 동향을 부각시키는 데 중점을 두면서 ASEAN 가입 시 각국의 농업 부문 양허내용을 자세하게 분석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일본, 중국 등 ASEAN 역외국들과 FTA 추진동향과 주요 쟁점을 파악한다. 제4장에서는 ASEAN의 경제동향으로서 회원국간 경제구조와 발전단계가 상이함을 보여준다.

제5장은 ASEAN의 농업동향을 다루는 장으로, 주요 회원국의 농업개황과 농업생산, 농산물 소비 및 수급을 분석한다. 제6장에서는 ASEAN 회원국들의 무역현황을 분석한다. 회원국별 주요 농산물의 수출입 구조, 그리고 주력 수출농산물 등이 소개된다. 제7장에는 ASEAN과 우리나라와의 농산물무역현황을 다룬다. 제8장에서는 ASEAN회원국의 관세구조를 분석한다. 제9장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전체내용을 요약하고 예상쟁점 등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4. 연구방법과 범위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문헌 및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ASEAN 회원국의 농업 및 경제동향 분석에는 아시아개발은행 및 FAO 자료가 활용되었다. ASEAN자유무역지대와 다른 국가와의 FTA 논의 동향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몇몇 연구결과와 ASEAN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협상자료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농산물에 국한시켰다. 즉 품목기준으로 HS 단위 1～2류, 4～24류까지의 농산물, 25～53류 중 농산가공품을 대

상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 국가는 10개 ASEAN 회원국 전체(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이다.

제 2 장

ASEAN의 발전

이 장에서는 ASEAN의 설립, 발전과정을 소개하면서 경제통합과정에서 각국의 입장과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ASEAN 자유무역지대(AFTA)를 통한 무역자유화 과정에서 농업부문의 특별조치를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ASEAN과의 FTA 협상시 참고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 ASEAN의 발족과 발전

1.1. ASEAN의 발족

『동남아시아』라는 지역개념이 처음으로 생겨난 것은 16세기 이후 유럽제국이 이 지역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유럽인들이 부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4] 그렇지만 동남아시아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기 시

[4] 동남아시아는 한국에서 보면 지리적으로 남서방향에 있다. 그러나 유럽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다.

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43년 연합군이 미얀마, 말라야, 수마트라, 태국 등을 에워싸는 동남아시아사령부(Southeast Asia Command)를 설치했을 때부터이다. 그러나 사실상 동남아시아의 지리적 범주가 현재와 같이 10개국 -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 으로 구성되어져 하나의 지역으로 확정된 시기는 ASEAN이 태동한 1960년대 접어들면서부터이다. 이와 같이 동남아시아라는 지역개념이 최근에 와서야 일반화된 것은 동남아시아국가들이 역사적 형성과정에서 지역적 일체감이 없었기 때문이다.[5]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4년 설립되었던 SEATO(Southest Asian Treaty Organization)와 1966년 설립된 ASPAC(Asian Pacific Council) 등은 냉전적 국제사회의 영향에 의해 강대국 입장에 맞춰진 조직들로서 동남아시아의 지역발전과 관계가 적은 반공의 국제 조직체적인 성격이 짙다. 이러한 조직체들은 친서방주의적 성향으로 동남아시아국가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1972년 해체되었다. 동남아지역의 국가에 의해 동남아지역의 평화적 협력의 틀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즉 1960년대부터 ASEAN 발족의 기초가 된 두 가지 형태의 지역협력체가 결성되었다. 그 하나는 ASA(Association of Southeast Asia)로서 1961년 6월 말라야 연맹, 필리핀, 태국 등 3개국이 인도차이나 지역에서의 공산세력의 확대를 저지하고 각 분야에서 상호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1년 6월 방콕에서 결성된 지역협력체였다. 다른 하나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반식민주의, 반제국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1963년 8월 결성한 MAPHILINDO이다.

이와 같은 ASEAN 이전의 설립된 지역협력체는 경제협력을 목적

---

5 동남아시아는 역사적으로 볼 때 각기 다양한 민족구성, 사회, 문화, 종교 등으로 발전해 왔다. 이는 지리적 특수성에 의한다.

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치, 외교, 국방상의 협력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손병해, 1988). 근본적으로 친서방주의적 성향을 띤 이 같은 지역협력체는 당시 중립주의를 지켰던 인도네시아와 미얀마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후에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와의 분쟁으로 유명무실해 졌다. 이런 지역적 분쟁은 역설적으로 동남아국가간의 지역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게 되었다.

1965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화해로[6] 새로운 시도가 가능해졌으며 1967년 4월 인도네시아의 아담 말리크 외무장관은 새로운 지역협력기구의 창설을 제안하였다. 이후 각국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1967년 8월 8일 방콕에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의 외무장관들과 말레이시아 부총리 등 동남아 5개국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방콕선언'을 채택함으로서 ASEAN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ASA와 MAPHILINDO가 표방한 정치, 외교상의 협력정신은 ASEAN을 통해 계속 전달, 계승되었다. 즉 1968년에 발표된 ASEAN 선언문에는 ASEAN의 설립목적이 역내 국가간 경제·무역상의 상호협력뿐만 아니라 지역 내 평화와 안정, 문화, 교육, 행정 분야에서의 협력 등 다 부문에 걸쳐 상호협력을 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ASEAN은 공산세력의 확장과 외부세력의 지배로부터 역내 국가의 민족주의적 독립을 온전히 보장하자는 집단안보체제적인 성격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유재원 1996).

따라서 ASEAN은 지역무역협력체의 일반적인 동기인 경제협력과 시장통합을 고유의 목적으로 한 경제통합체로 발족한 것은 아니다. 게다가 역내 국가 상호 간에 서로 다르게 작용하는 여러 가지 이질

---

[6] 1965년 9월 쿠테타로 인해 수카르노 정권은 실각하고 수하르토 정권이 등장하게 됨으로써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간의 적대관계는 해소되었다.

적인 요소들로 인하여 밀도 있는 통합체가 구성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지 못하였다. 현재 ASEAN을 이루고 있는 10개국의 인종은 화교, 인도인, 말레이인, 태국인 등으로 다양하며, 지리적으로는 대부분 섬으로 분산되어 있어 역내 주민 상호 간에 문화 및 경제교류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 같은 다양성은 종교 및 언어에서도 마찬가지 양상을 띤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 문화, 종교, 인종상의 다양성으로 인해 ASEAN은 자주, 독립, 반공이라는 정치적 유대의식에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강력한 통합체를 구성하기에는 설립 당초부터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ASEAN이 창립된 지 10년이 지난 1976년까지 ASEAN은 국가 간 협력기구로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2. ASEAN의 발전

ASEAN 회원국간 경제협력관계의 발정과정을 현재 ASEAN 자유무역지대의 모태가 되는 ASEAN 회원국간 우대관세협정(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PTA)이 체결된 1977년과 AFTA가 출범한 1993년을 기점으로 3단계로 나눌 수 있다(오상면 1994; 변창구 2001).

1.2.1. 제1기(1968-76)

먼저 1기는 1968년 ASEAN의 창립으로부터 1976년 제1차 ASEAN 정상회담의 개최에 이르는 ASEAN의 창립기이다. 이 기간에는 ASEAN 회원국간 실질적인 경제협력관계는 미미했으나, 자유무역지대 설립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1971년 제4차 ASEAN각료회의에서 ASEAN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제한적인 자유무역지대의 설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1972년에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의견교환 창구 역할을 하는 ASEAN 상공회의소(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가 창설되었다. 또한 1970년대와 1980년대 중반까지 ASEAN

국가들의 산업개발 및 무역전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동남아시아 경제협력에 관한 UN 보고서(the Robinson Report)'가 1972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 5차 ASEAN 각료회의에 상정되었다. 동 보고서는 ASEAN 국가들이 경제발전을 위해서 수입대체산업 육성전략을 취해야 하며, 따라서 국내산업보호를 위해서 제한적인 무역개방정책을 실시하고 역내 산업개발 시 ASEAN 회원국간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회원국간 영토 및 종교분쟁 등[7]으로 회원국간 갈등과 불신이 팽배해 있던 ASEAN에 대해 1975년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공산화는 ASEAN을 결속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하였다. ASEAN은 베트남의 공산화에 따른 도미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1976년 2월 제1차 ASEAN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이 회담에서 회원국간 부분적인 무역자유화를 통한 한 단계 진전된 역내경제협력의 증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의 일환으로 ASEAN 회원국들의 관계정립을 위한 ASEAN 우호 및 협력조약(The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과 ASEAN의 역내경제협력의 지침이 될 ASEAN 협약(The ASEAN Accord)이 채택되었다. 같은 해에 열린 ASEAN 외무각료회의에서는 ASEAN 회원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관장하는 ASEAN 사무국(ASEAN Secretariat) 창립협정을 맺는 등 ASEAN 지역경제협력의 초석이 마련되었다.

1.2.2. 제2기(1977-91)

ASEAN 지역경제협력의 제2단계는 제2차 ASEAN 정상회담 시기

---

7 이 시기 인도네시아와 마레시아가 사바(Sabah)주를 둘러싼 말레이시아와 필리핀간의 영토분쟁, 이슬람분리주의 운동과 관련된 태국과 말레이시아간의 불신 등이 주요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부터 제4차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직전까지로서, 정치·경제적으로 실질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시킨 시기이다. 이 시기 ASEAN 역내국간 지역경제협력을 위한 중요한 진전 중의 하나는 1977년 회원국간 무역에 대한 선별적인 우대관세협정(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PTA)이 체결된 점이다. PTA는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최초의 의미 있는 정책협조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ASEAN이 자유무역지대나 관세동맹의 형성과 같은 포괄적인 경제블록창설을 목표로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PTA는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

우대관세협정이란 ASEAN 회원국간의 무역거래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비회원국과의 무역거래에 적용되는 관세율보다 일정 비율(우대관세할인: Margin of Preference) 낮은 수준으로 정함으로써 역내무역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PTA는 초기에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양허에 기반을 둔 품목별 관세 인하를 추진하였다. 협상결과 특혜무역에 포함된 품목들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산업화에 별 위험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 것들로서 역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였고 그에 따라 별 효과가 없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80년에는 수입액이 5만 달러 이하인 역내 수입품목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20%의 관세를 인하하는 총괄적인 관세 인하방식을 채택하였다. 수입한도액은 점차 인상되어 1984년에는 수입한도가 철폐되었고, 우대관세할인율도 20～25%에 이르게 되었다. 1977년 71개 품목에 대해 우대관세제도가 적용된 이래 우대관세 적용 품목 수는 1979년 1,326개, 1979년 2,327개, 그리고 1983년에는 6,581개로 증가하였다(Rieger 1991). 그러나 우대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상품들의 역내 무역거래량이 매우 크고 우대관세율 적용품목의 선택이 자의적이거나 명목적인 경우가 많아 우대관세제도를 통한 회원국간의 실질적인 경제협력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렀다.

1986년 6월 현재 PTA에 포함된 품목은 모두 12,647개에 달했는데 이 중 대략 절반 정도만이 관세 인하의 혜택을 받았다. 국별로는 자유화에서 제외된 품목비중이 필리핀 25%, 말레이시아 39%, 인도네시아 54%, 태국 63%에 달했다. Imada(1993)에 의하면 우대관세율 적용대상으로 선정된 품목들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회원국간 경쟁으로 타 회원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역내무역의 잠재력이 큰 분야가 제외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같이 회원국들의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우대관세제도를 통한 ASEAN 역내경제협력의 진척이 부진해짐에 따라 1987년 제3차 ASEAN 정상회담에서 우대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의 한도를 관세품목수를 기준으로 상품수의 10% 또는 총 무역거래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우대관세할인율을 25%에서 50%로 점차 올리기로 합의함으로써[8] ASEAN의 역내경제협력의 발전을 위한 전기를 맞이하기에 이르렀다.

제2기에 있어서 ASEAN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ASEAN 5개국의 역내 수출입 비중을 보면, 1970년대부터 점차 증가하다가 1983년 정점에 달하여 각각 25.5%, 21.3%에 달했다(유재원 1996). 두 지표 모두 1980년대 중반에는 하락하다가 1980년대 말부터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어 1993년에는 각각 20.4%, 18.1%로 회복되었다. ASEAN 국가 중 역내무역이 가장 활발한 국가는 싱가포르이며,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

[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합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Pangestu 1992). 우대관세적용대상 품목 12,782개중 오직 337개(2.6%)만이 특혜관세의 혜택이 부여되었고 그나마 이중 19%만이 실제무역이 이루어졌다.

저조한 편이었다.

ASEAN 국가들 사이에 역내무역 비중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지 않는 사실은 ASEAN 무역 및 산업협력이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욱이 이 시기 ASEAN 역내무역 비중 증가가 PTA의 결과라기보다는 원유무역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유수출은 역내무역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가격의 상승은 역내 무역비중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PTA의 대상이 된 역내무역은 1983-84년 기간 중 5%를 넘지 않았다. 태국의 경우 역내무역비중이 1%에 불과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SEAN 설립이후 ASEAN 회원국간 경제협력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어 왔다. 1977년 이후 우대관세제도와 각종 역내합작사업예획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SEAN 회원국들간 산업특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회원국간의 경쟁관계 및 이기주의로 우대관세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의 세계적인 불황과 ASEAN 주요 국가들의 주요 수출품목인 원자재 가격의 급락, 그리고 동아시아 신흥공업국가들의 대외 지향적 무역정책을 통한 성공적인 경제성장 사례 등의 요인으로 ASEAN 회원국들의 산업 및 무역정책이 폐쇄적 수입대체 산업육성 정책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대외 지향적인 산업정책으로 선회하게 된다.

또한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반에 이르는 기간 중에 세계경제의 지역화 심화와 우루과이 라운드의 공전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동 지역의 기술진보 및 경제발전을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ASEAN 회원국간 경제협력 증진의 필요성 또한 증가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1992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4차 ASEAN 정상회담에서 1993년 이후 15년 이

내에 ASEAN 역내무역자유화를 완료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제3단계 ASEAN 경제협력이 시작된다.

1.2.3. 제3기(1992-현재)

ASEAN 발전의 제3기는 제4차 ASEAN정상회담이 개최된 1992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으로서, ASEAN이 세계적인 냉전종식으로 인한 국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역내협력을 본격화하는 한편, 협력전략의 다각화를 모색하였다. 이 시기부터 ASEAN의 자유무역지대가 실질적으로 형성, 추진되어 역내무역확대와 경제발전의 계기를 마련된 셈이다.

1992년 1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선언 (Singapore Declaration)과 'ASEAN의 경제협력강화에 관한 기본협정'(The Framework Agreement on Enhancing ASEAN Economic Cooperation)이 체결되었다. 또한 ASEAN 경제각료회의에서 'ASEAN 자유무역지대결성을 위한 공동유효관세제도에 관한 협약'(Agreement on the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CEPT) Scheme for the ASEAN Free Trade Area(AFTA)이 체결됨으로써 ASEAN 6개국은 1993년 1월 1일부터 ASEAN 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AFTA)를 창설하는데 합의하였다.

AFTA는 ASEAN 회원국간의 무역거래에 대한 관세 및 모든 비관세장벽을 점진적으로 인하 또는 철폐함으로써 ASEAN 역내 무역을 자유화하고, 외국인의 ASEAN 역내투자를 촉진하여 궁극적으로는 역내 경제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ASEAN Secretariat 1992). AFTA의 주요 내용은 공동유효관세(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CEPT)제도와 이를 통한 역내거래에 대한 관세 인하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계획, 원산지 규정, 역내회원국간 협력 분야 검토 등으로 구성된다. AFTA 내용에 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하

게 검토될 것이다.

1993년 1월 AFTA 창설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나, 각국이 준비가 채 이루어지지 않아 모두 참가하지 못하자 이해 10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5차 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 CEPT 계획에 따른 관세 인하를 1994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도록 개시시기를 재조정하였다. 이후 1994년 9월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열린 제25차 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는 관세 인하 완료시기를 종전의 CEPT협정 발효 후 15년(2008년)에서 10년(2003년)으로 5년 앞당기기로 합의하고, CEPT 대상에 비가공농산물을 포함시키는 등 CEPT 대상 품목을 크게 확대하였다.

1995년 12월 방콕에서 열린 제5차 ASEAN 정상회담에서는 1997년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그리고 2000년까지 미얀마를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시킬 것에 합의[9]하여 '하나의 동남아시아'를 행한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다. 아울러 WTO 발족과 발맞추어 역내 서비스 산업 개방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정에 합의함과 동시에 통관절차 조화, 비관세장벽 제거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AFTA 가속화는 물론 AFTA를 보완하는 AFTA-플러스[10]를 향한 노력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

1997년 태국에서 촉발된 외환위기가 역내 국가들로 파급되면서 관세 인하계획이 상당히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ASEAN은 관세 인하 시기를 앞당기고, 무역자유화는 물론 투자,

---

[9] 1967년 8월 ASEAN 설립당시 회원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5개국이다. 이에 더하여 브루나이가 1984년 1월에, 베트남이 1995년 1월에, 라오스와 미얀마가 1997년 7월에, 그리고 캄보디아가 1999년 4월에 추가로 가입하여 현재 ASEAN은 현재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10] AFTA-플러스는 AFTA 이외에도 투자자유화, 산업협력, 서비스 및 IT협력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지역협력구상이다. AFTA-플러스에 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권율 등(2003)을 참조할 것.

서비스, 금융, 재정협력, 정보격차 완화 등 경제통합수준보다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1998년 12월 ASEAN 정상회의에서 역내관세를 5%로 낮추는 CEPT 실행일정을 2003년에서 2002년으로 앞당긴 바 있고,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노이실행계획(Hanoi Action Plan)을 채택한 바 있다.[11] 하노이 실행계획은 1997년 콸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2차 비공식 ASEAN정상회담에서 채택한 ASEAN 비전 2020의 실천프로그램이다.

ASEAN 비전 2020는 2020년까지 ASEAN의 기본 발전 방향을 담은 것으로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조화, 개발공조, 지역연대감 강화, 대외 지향적 ASEAN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ASEAN Secretariat, 1997). 이중 경제통합과 관련해서는 완전한 형태의 AFTA를 실현하고,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를 촉진하며, 2010년까지 ASEAN 투자지역을 실현하고, 2020년까지 투자의 완전 자유화 등을 꾀한다는 것이다.

1998년에는 상품수송에 촉진에 관한 협약(ASEAN Framework Agreement on the Facilitation of Goods in Transit)를 체결하여 회원국간 상품이 원활하게 수송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1999년 9월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3차 AFTA각료이사회에서는 모든 수입관세를 기존 6개회원국은 2015년까지, 4개 신규회원국은 2018년까지 철폐하여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필리핀에서 개최되었던 제3차 비공식정상회의에서는 관세철폐 완료시일을 더욱 앞당겨 기존 회원국은 2010년까지, 신규회원국은 2015년까지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수입관세를 철

---

11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4차 ASEAN 비공식정상회담에서는 회원국들이 일부 공산물을 무리하게 CEPT 품목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별 회원국의 서면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를 거쳐 CEPT 품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보류 또는 중단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합의하였다.

폐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로서 ASEAN은 늦어도 2015년까지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목표로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 중에 있다.

역시 1999년에 개최된 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신선농산물과 같은 민감 품목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the Special Arrangement for Sensitive and Highly Sensitive Products)가 채택되었다. 당초의 CEPT에서는 가공농산물만이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되고 미가공 또는 신선농산물은 관세 인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민감 품목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해 합의를 이루어냄에 따라 ASEAN 회원국들은 농산물도 CEPT 품목으로 전환하고 해당 관세를 일정한 수준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

1999년 9월에 합의된 관세철폐계획은 2003년에 다시 수정되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회원국인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6개국은 관세철폐대상 품목 중 60%는 2003년 12월말까지 모두 철폐하고 나머지 40%는 2010년 1월까지 철폐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종전처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2015년까지 관세를 철폐하되,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AFTA 이사회에 통고한 후, 관세 철폐를 중단할 수 있는 융통성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2. AFTA의 주요 내용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ASEAN자유무역지대는 회원국간 무역거래에 대한 관세 및 모든 비관세장벽을 점진적으로 인하 또는 철폐하여 역내 무역자유화를 이룬다는 목표로 설립되었다. 이 절에서는 AFTA의 주요내용으로서 관세인하, 비관세장벽의 철폐, 원산지규정 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1. 관세인하

1992년 1월 ASEAN 6개국에 의해 채택된 공동유효특혜관세(The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CEPT)협정에 의하면 CEPT란 회원국 상품에 대해만 특혜적으로 적용되는 유효관세로서 회원국이 CEPT 협정에 따라 관세인하 적용품목(Inclusion List: IL)으로 통보한 상품에 대해 적용되는 낮은 관세이다. ASEAN 회원국들은 CEPT 계획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CEPT 대상품목의 역내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계획표를 작성, 제출해야 하지만, 역외국가에 대한 관세수준은 각국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12]

CEPT가 ASEAN 창립 이전에 적용되던 우대관세협정(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PTA)과 다른 점은 PTA는 지정된 국가에 대해서만 주어지는 비호혜적(non-reciprocal)인 것임에 비해, CEPT는 일단 특정재화가 CEPT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양허수혜요건[13]을 충족하는 한 모든 국가가 특혜관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품목이 CEPT 계획하에 관세인하품목의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교역상대국의 CEPT 대상품목에 포함되어 있고, 양국에서 관세율이 20% 이내여야 하고, 둘째, AFTA 평의회의 승인을 받은 관세인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 셋째, 40%의 역내부품 사용의무를 충족시키는 역내제품이어야 한다.

AFTA 설립이전부터 시행해 오던 우대관세 PTA에 의해 회원국간 무역거래시 우대관세율을 적용받던 제조업 상품들은 모두 CEPT 관세율의 적용을 받게 되며, 비제조업상품으로서 CEPT로 이전되지 않

---

12 이러한 의미에서 AFTA는 공동역외관세(common external tariff)를 부과하는 유럽연합과 같은 관세동맹(custom union)과는 다르다.

13 회원국이 CEPT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역내사용의무를 준수해야 함은 물론 동일 품목에 대해 관세감축을 제시해야 한다.

으면서 종전에 우대관세율을 적용받던 품목들에 대해서는 현행 우대관세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SEAN은 CEPT 적용과 관련하여 품목 범주를 i) 관세인하 적용품목(Inclusion List), ii) 잠정제외품목(Temporary Exclusion List), iii) 민감 및 고민감 품목(Sensitive and Highly Sensitive List), iv) 일반적 제외품목(General Exception List) 등 네 가지로 구분한다.

2.1.1. 관세인하 적용품목

CEPT에 따른 관세인하 적용품목, 즉 IL에는 모든 공산품과 가공농산물, 그리고 일부 농산물이 포함된다.[14]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기존 6개국은 2000년까지 대상품목 모두를 관세인하대상에 포함시키고, 2003년 이들 품목에 대한 최고 관세수준이 5%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IL품목 중 60%는 2003년 말까지 해당관세를 철폐하고, 나머지 40%는 2010년까지 철폐토록 규정하고 있다.

미얀마 등 신규 가입국들에 대해서는 IL 대상품목에 포함시키는 일정과 관세인하 시한이 기존 회원국보다 길게 잡혔다. 베트남은 2003년까지 대상품목을 IL에 포함시키되, 2006년까지 최고 관세수준이 5%가 넘지 않게 인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오스와 미얀마는 2005년까지 대상품목을 IL에 포함시키는 것을 완료하고, 2008년까지 인하한다. 캄보디아는 2007년까지 대상품목을 IL에 포함시키고 2010

---

[14] CEPT 협정 제 2조 3항에서는 예외품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단위보다 소분류 단위에 대해 CEPT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즉 CEPT가 적용되는 제조상품의 기본단위가 HS 6단위 수준의 부문별 기준(sectoral basis)을 채택하고 있으나, CEPT 적용이 미처 준비되지 않은 회원국은 HS 8 또는 9단위 수준의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CEPT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년까지 관세를 인하하도록 되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규 회원국들은 관세인하 유예와 같은 일정한 융통성이 부여되기는 하지만 2015년까지 IL 대상 품목의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2003년 6개 기존 회원국의 전체 관세 품목 중 98.85%, 품목수로는 44,642개 품목이 IL에 포함되었다.[15] 이 품목 중 99.55%는 관세수준이 0～5% 수준이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는 100% 품목을 IL에 포함시켰다. 브루나이, 말레시아, 필리핀, 태국 등은 각각 전체 관세대상 품목의 99.18%, 99.26%, 99.92%, 98.81%를 IL에 포함시켜 기존 회원국은 거의 전 품목을 IL에 포함시키는 것을 완료한 셈이다. 이들 6개국의 평균 관세율은 점차 낮아져 2000년 3.52%에서 2003년에는 2.4%로 인하되었다<그림 2-1>. 캄보디아 등 신규 회원국 4개국은 전체 양허대상 관세품목 중 72.2%, 품목수로는 16,126개 품목을 IL에 포함시켰다.[16] IL에 포함된 품목 중 56%는 관세수준이 0~5%가 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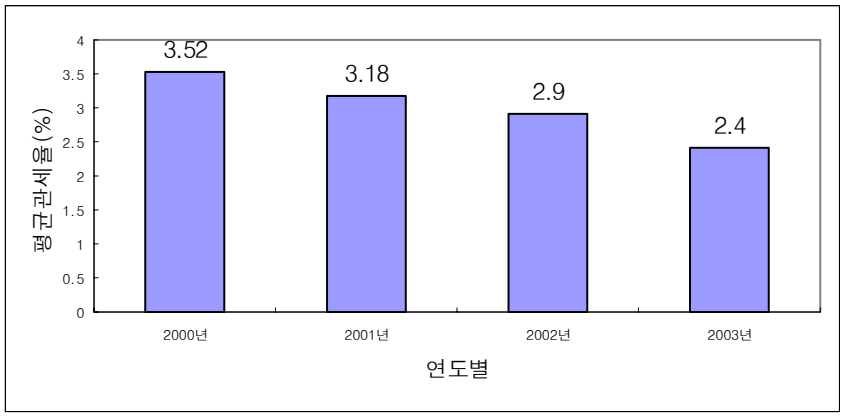
2003년 국가별 CEPT 평균 관세율은 라오스가 5%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태국(4.64%), 필리핀(3.75%), 인도네시아(3.71%), 미얀마(3.19%), 말레이시아(2.06%), 베트남(2.02%), 브루나이(0.87%), 싱가포르(0%)순이다<그림 2-2>.

---

[15] AFTA가 개시된 1993년 IL 품목은 41,147개 품목이었다. 또한 잠정적 제외품목과 영구적 제외품목은 각각 3,321개, 523개였다. 그러던 것이 AFTA 일정을 15년에서 10년으로 앞당긴다는 ASEAN 경제장관회의 결과에 따라 1996년 1월부터 잠정적 제외품목이 IL에 포함되었고, 비가공농산물이 IL에 추가됨에 따라 IL 대상품목이 당초보다 8.5% 늘어난 것이다. 2003년 현재 IL 품목은 44,642개이고, 잠정적 예외품목은 3,685개, 영구제외품목은 143개 품목이다. 같은 해 민감 품목 수는 287개 이다(www.asean.or.id/10588.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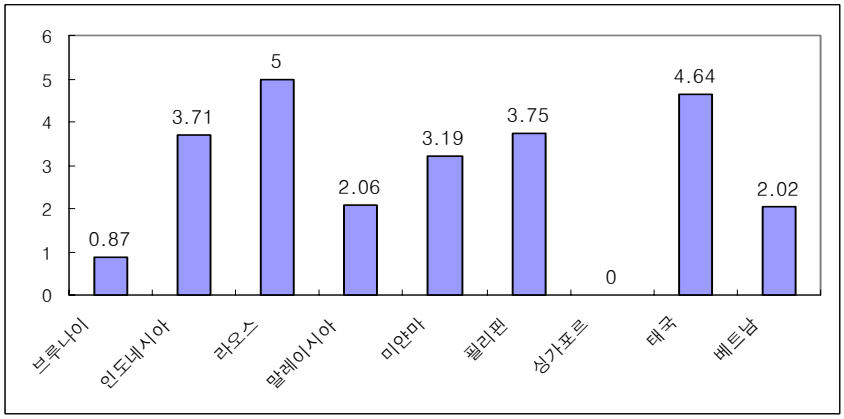
[16] 나머지 5,810품목은 잠정제외품목 또는 민간, 고민감 품목으로 분류하여 관세인하를 유보한 상태이지만 이행계획에 의해 추후에 IL에 포함될 예정이다.

그림 2-1. ASEAN 6개국의 평균관세율



자료: ASEAN 사무국(http://www.aseansec.org).

그림 2-2. ASEAN 회원국의 CEPT 품목의 평균관세율, 2003



자료: ASEAN 사무국.

2003년 주요 ASEAN 회원국별 비가공농산물에 대한 CEPT 평균관세율을 보면 필리핀이 5.83%로 가장 높고, 태국(4.42%), 인도네시아(3.31%), 말레시아(0.57%)순이다. 같은 해 산동물(HS 1-5류)에 대한 CEPT 평균관세율은 태국이 8.41%로 가장 높고, 인도네시아

(6.35%), 필리핀(5.36%), 베트남(4.29%), 말레이시아(1.38%), 브루나이(0%) 순이다<표 2-1>.

2003년 채소류(HS 6-14류)에 대한 CEPT 평균관세율은 태국이 7.69%로 가장 높고, 인도네시아(5.27%), 필리핀(4.27%), 베트남(2.87%), 말레이시아(0.68%)의 순이고 브루나이와 싱가포르는 0세율을 적용한다. 조제식품(16-24류)의 평균 CEPT 관세율은 태국(9.05%), 인도네시아(7.93%), 필리핀(5.5%), 말레이시아(2.49%), 브루나이(0.04%), 싱가포르90%) 순이다. 농산물 전체적으로 볼 때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역내관세수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표 2-1. 주요 품목군별 및 ASEAN 회원국의 평균 CEPT 관세율, 2003

	산동물 (HS 1-5류)	채소류 (HS 6-14)	지방 및 오일 (HS 15류)	조제식품 (HS 16-24류)
브루나이	0.00	0.00	0.00	0.04
인도네시아	6.35	5.27	4.63	7.93
말레이시아	1.38	0.68	1.38	2.49
필리핀	5.36	4.27	3.66	5.50
싱가포르	0.00	0.00	0.00	0.00
태국	8.41	7.69	4.42	9.05
베트남	4.29	2.87	4.00	5.00
ASEAN	3.54	2.91	2.43	4.17

자료: ASEAN 사무국.

2.1.2. 잠정적 예외품목

CEPT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국별 사정에 의해 관세인하가 준비되지 않은 제조품에 대해서는 잠정적 제외품목으로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적용하였다. 말레시아의 경우 총 218개 품목에 대해 잠정적 제외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2005년까지 IL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잠정적 유예품목을 적용하는 신규회원국 중 베트남은 2003년까지, 라오스와 미얀마는 2005년까지, 그리고 캄보디아는 2007년까

지 CEPT 대상품목을 IL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2.1.3. 민감 및 고민감 품목

민감 및 고민감 품목은 채소, 과일, 곡물류, 육류 등 비가공농산물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서, IL로의 편입과 관세인하에 더 긴 시간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1999년 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신규가입국 4개국을 제외한[17] 모든 회원국이 민감 품목을 2001년 1월부터 2003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CEPT 대상으로 넣되, 2010년까지 관세수준을 0~5%로 인하하는 데 합의하였다. 고민감품목(Highly sensitive products)에 대해서는 2001년 1월부터 시작하여 2005년 1월까지 CEPT 품목으로 전환하고, 최종 관세수준은 각 회원국이 2010년까지 결정하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민감 품목의 관세 인하폭은 최소 10% 포인트 이상 되어야 하고, 모든 민감 품목의 최종관세가 0~5%이어야 한다. 고도 민감 품목의 최종관세수준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모두 20%로 하되, 필리핀은 CEPT 규정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였다. 민감 품목 및 고도 민감 품목에 적용되는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을 제외한 전 회원국이 2010년 1월 1일까지 철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SEAN회원국 중 고민감 품목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는 인도네시아, 말레시아, 필리핀 등 3개국으로서 대부분이 쌀 관련 품목들이다.

---

[17] 동 협정서에 의하면 베트남은 민감 품목을 2004년 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CEPT에 넣되, 2013년까지 종료하는 것으로 하였다. 라오스는 2006년 1월부터 2008년 1월까지 민감품목을 CEPT 대상에 넣되, 2015년 1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캄보디아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민감 품목을 CEPT 품목으로 전환하되, 2017년 1월까지 완료해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벼, 메현미(Husked rice), 멥쌀 등 4개 품목을, 말레시아는 벼 등 8개 품목, 필리핀은 벼 등 4개 품목을 고도민감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다<표 2-2>. 이들 3개국이 쌀을 고민감품목으로 분류하여 역내에서 관세인하를 지연시킨 점은 우리나라와 ASEAN 간 FTA 협상시에도 이들 국가가 쌀을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입장을 보일 것이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감 품목은 고민감 품목에 비해 광범위하고 품목수도 많은 것이 특징이다. ASEAN 10개국 중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8개국이 민감 품목을 선정하고 있다. 미얀마는 HS 8단위 기준으로 후추, 커피, 녹차 등 14개 품목을 민감 품목으로 정해놓고 있다. 캄보디아는 말, 산돼지, 가금류 등의 축산물과 당근, 오이와 같은 채소류, 감귤류 등 50개 품목을 민감 품목으로 선정하였다. 라오스는 말, 돼지, 가금류와 같은 축산물과, 토마토, 양배추와 같은 채소류, 그리고 감귤류 등 과실류 등 88개 품목을 민감 품목으로 설정해 놓았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돼지, 닭, 돼지고기, 양 등의 축산물과 일부 채소류와 과실에 등 65개 품목을 민감 품목으로 정했다. 미얀마는 완두, 녹차, 쌀 등 21개 품목, 필리핀은 돼지, 가금류, 돼지고기, 옥수수 등 58개 품목, 태국은 카네이션, 감자, 커피 등 7개 품목, 베트남은

표 2-2. ASEAN 회원국의 고민감 품목

국가별	품목수	고민감품목
인도네시아	4	벼(1006.10.000), 메현미(1006.20.000), 멥쌀(1006.30.000), 쇄미(1006.40.000)
말레시아	8	벼(1006.10.000), 찰벼(1006.10.900), 메현미(1006.20.100), 찰현미(1006.20.900), 멥쌀(1006.30.100), 찹쌀(1006.30.900), 사료용 쇄미(1006.40.100), 기타(100640.900)
필리핀	4	벼(1006.10.000), 메현미(1006.20.000), 멥쌀(1006.30.000), 쇄미(1006.40.000)

자료: ASEAN 사무국.

닭, 닭고기, 오렌지, 토끼고기, 쌀 등 51개 품목을 민감 품목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HS 4단위 기준 ASEAN 회원국별 민감 품목 내역은 <표 2-3>에 제시되어 있다. HS 8단위 기준 세 번별 민감 품목의 내역은 부표 1에 나타냈다. 이들 민감 품목 역시 우리나라가 ASEAN과 FTA협상을 벌일 경우 이들 국가가 개방에 소극적일 것이란 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3. ASEAN 회원국의 주요 민감품목

회원국별	민감 품목수	주요 품목 (HS 4단위 기준)
브루나이	14	커피, 녹차
캄보디아	50	기타말, 돼지, 가금류, 닭고기, 활어, 기타 산식물, 절화와 꽃봉오리, 토마토, 배추류, 상추 및 치커리, 당근, 오이류, 채두류, 기타의 채소, 코코넛, 대추야자, 감귤류, 멜론, 기타 과실
라오스	88	말, 돼지, 가금류, 기타 산동물, 쇠고기, 돼지고기, 식용설육, 기금육의 육과 설육, 육과 식용설육, 송어, 조란, 동물의 장과 방광, 토마토, 양배추, 당근, 오이류, 기타의 채소, 냉동채소, 일시저장처리한 채소, 건조한 채소, 건조한 채두류, 매니옥, 기타견과류, 대추야자, 감귤류의 과실, 멜론, 건조과실, 고춧가루, 벼, 쌀,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치커리뿌리, 잎담배
말레이시아	65	돼지, 가금류, 돼지고기, 가금류의 육과 설육, 밀크와 크림, 조란, 기타의 산식물, 양배추, 바나나, 대추야자, 멜론, 기타 과실(감, 단감, 대추 등), 커피, 파종용의 종자·과실, 편조물에 사용되는 식물성재료(대나무등), 잎담배 및 담배
미얀마	21	채두류(완두 등), 커피, 차류, 쌀, 사탕수수, 누에고치, 생사, 견웨이스트, 면, 면웨이스트
필리핀	58	돼지, 가금류, 돼지고기, 가금률의 육과 설육, 메니옥, 옥수수
태국	7	절화와 꽃봉오리(국화, 튜립,백합등), 감자, 커피, 코프라
베트남	51	가금류,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 기타(토끼등)의 육과 식용설육, 조란, 기타의 산식물(사과나무등), 감귤류의 과실(오렌지등), 쌀, 소시지, 기타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육과 설육, 사탕수수

자료: ASEAN 사무국(1999).

2.1.4. 일반제외품목

일반제외품목은 국가안보, 인간생명 및 동식물 건강 보호, 예술적, 역사적, 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물건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관세인하 대상에서 영원히 제외시키는 품목들이다. 일반제외품목에는 주류와 무기류, 골동품 등이 포함된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총 53개의 일반제외품목을 두고 있는데 주로 포도주, 양주 등 주류와 총포 및 탄약류 등이다.

2.2. 비관세장벽의 철폐 등 무역촉진 조치

ASEAN에서는 CEPT 계획하에서 관세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비관세장벽의 완화 또는 철폐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CEPT 협정 제5조 A(수량제한과 비관세장벽)에는 수입허가 또는 쿼타와 같은 IL에 포함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수량제한을 즉시 철폐해야 함과 동시에 다른 비관세장벽도 CEPT에 포함시킨 지 5년 이내에 철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5년 9월 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 합의된 비관세장벽 철폐에 관한 작업계획에 따라 잠정기술작업단(Interim Technical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비관세장벽의 정의, 영향, 그리고 비관세장벽의 D/B 구축 등의 작업을 거쳐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추진중이다. 기술작업단이 파악한 주요 비관세장벽의 유형으로는 세관부과금(custom surcharge), 기술조치 및 상품특징요구(technical measures and product characteristic requirements), 독점적 조치(monopolistic measures) 등이 있다.

ASEAN은 AFTA하에서 관세인하의 보완수단으로 불필요한 기술적 장벽, 표준조화,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를 추진해 왔다. 이러한 조치들은 AFTA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역내 경제통합을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것들이다. 이중 통관협조는 역내 상품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하고 서류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시키는 역할을 한다.

2.2.1. 통관 절차의 간소화와 조화

통관 절차의 간소화와 조화에 관한 ASEAN협정은 1997년에 서명되었다. 회원국들은 2004년부터 HS 8단위 수준으로 통일된 상품분류체계를 갖는 데 합의하였다. 이러한 HS체계의 도입은 상품비교와 데이터 수집을 촉진시켜 역내 수출입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WTO 하에서 예측 가능하고 통일된 관세평가제도(custom valuation)를 실시하기 위하여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WTO의 평가협정을 이행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도 적어도 2005년까지는 동 협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녹색도로체계(Green Lane System)를 통해 세관에서 상품의 통관을 신속히 처리한다. 역내 상품에 대해서는 무작위 조사(random checking)만 실시하고 통관하기 때문이다.

2.2.2. 표준 및 상호인정

1998년에 합의된 상호인정협정에 관한 협정(The Framework Agreement on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에 따라서 역내 회원국간 표준 및 상호인정장치(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 on Standard and Conformity Assesment)가 마련되었다. 상호인정 장치 하에서는 한 회원국에서 시험절차를 마친 상품은 다른 회원국에서 동일한 시험과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매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한 회원국에서 등록된 상품은 다른 회원국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유통될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역내국가간 무역이 촉진될 것이다. 에어컨디셔너와 냉장고 등 공산품위주이긴 하지만 무역거래가 많은 20여개의 품목들에 대해 ASEAN회원국간 표준규격통일을 이루었다.[18]

---

18 이 밖에 ASEAN의 무역원활화 조치와 AFTA 플러스 추진 현황에 관해서는 권율 등(2003)을 참조할 것.

제 3 장

ASEAN의 FTA 추진 동향

ASEAN은 AFTA를 통한 역내 경제통합 심화시키는 한편 역외국가들과 FTA를 추진함으로써 역내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역외국가와 ASEAN의 FTA 추진배경 및 동향, 그리고 FTA에서 농업분야 논의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은 향후 한·ASEAN FTA 협상 시 주요 의제와 전략을 발굴, 개발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FTA 추진 배경[19]

ASEAN이 역외국가와 FTA를 추진하는 배경을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역주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20] 동아시아에서는 ASEAN을 매개로 한 지역협력 또는 지역경제협력체 결성 논의가 활발하게

19 이 부분은 권율 등(2003), 권율(2004), 정인교 등(2003)을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20 현재 ASEAN은 인도 등과도 FTA 협상을 추진 중에 있지만, 주로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FTA를 추진하기 때문이다.

진행 중이다. 권율 등(2003)은 ASEAN이 AFTA가 NAFTA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작고, 개도국간 남-남 협력이라는 구조적 한계점을 인식하여 한국, 일본, 중국은 물론 오세아니아, 서남아 등과의 협력기반 강화를 위해 ASEAN의 외연적 확대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본적으로 AFTA가 개발도상국간의 수평적 통합(horizontal integration)의 성격을 띠고 있고, 역내에 중심국가(leading country)의 역할을 수행할 만한 나라가 없어 향후 경제통합 진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권율 2004). 특히 역내 자본 및 기술이 부족하고 역외 시장의존도가 높은 ASEAN으로서는 최근 경제연관관계가 높은 동북아 3국은 물론 인도, 오세아니아 등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ASEAN은 AFTA를 결성하여 역내 교역활성화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지역경제통합을 가속화하면서, 역내 결집력을 활용하여 역외국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서 ASEAN 주도로 ASEM(Asia-Europe Meeting)가 결성된 것이 좋은 예이다. ASEM[21]은 1994년 10월 고촉동 싱가포르 총리가 제안, 아시아 10개국과 한・중・일, 그리고 유럽 15개국이 참가하는 제1차 회의를 1996년 방콕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마하티르 말레시아 전 총리가 1997년 ASEAN 30년 주년을 맞이하여 쿠알라룸프르에서 개최된 ASEAN 비공식정상회담에 한국을 포함, 중국과 일본정상들을 초청함으로써 ASEAN+3 정상회담이 태동하였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매년 ASEAN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한국, 중국, 일본 정상을 공식 초청하여 ASEAN의 결집력을 토대로 ASEAN+3 역내협력기반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지역주의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

---

21 ASEM 배경, 목적, 조직 등에 관해서는 http://www.asem3.go.kr/english/index.htm 를 참조.

나고 있는데 특히 다양한 형태의 FTA가 ASEAN을 매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FTA에 대해 강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과 무관하지 않다.[22] 여기에 더하여 금융위기 이후 역내국가간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확대와 함께 통상정책에 있어서 WTO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자유화가 가능하고 협상이 용이하다는 FTA의 전략적 측면 때문에 수출확대정책을 추진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도 FTA가 관심사항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아시아 유일의 지역협의체로 성장해 온 ASEAN이 역내 금융위기를 계기로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확산에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고,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비로서 역내 국가들이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깨닫게 됨으로써, FTA 논의가 확산되는 주요 계기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한편 정인교(2003)는 중・ASEAN의 FTA 추진배경으로 ①ASEAN의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 ②ASEAN의 대 중국 수출확대, ③ASEAN으로의 투자유입 증대, ④AFTA의 허브화 전략, ⑤기타 경제적 이유, ⑥비경제적 이유 등 여섯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첫 번째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규모 축소와 무역감소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ASEAN이 동아시아 경제에서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 속에서 고도경제성장을 구가하는 중국을 파트너로 삼아 역내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FTA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ASEAN의 대중국 수출확대 측면에서는 ASEAN이 중국과의 FTA를 통해 중국과의 경쟁적 관계에서 포괄적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고, 중국의 WTO 가입 및 경제성장에 따른 확대된 중국시장에서 특혜적 조치를 부여받아

---

[22] 현재 전 세계적으로 220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WTO에 보고되고 있으며, 이중 172개가 실제로 체결,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68개의 협정이 새로이 추진되고 있음.

ASEAN 대 중국 상품 수출을 늘리고자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ASEAN으로의 투자유입 증대 면에서는 ASEAN이 FTA를 체결함으로써 통상제도 및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다른 여러 지역과 FTA 체결을 통해 외국인투자지로서의 장점을 키워 중국 및 여타 세계 다른 나라로부터의 대 ASEAN 직접투자를 확대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AFTA의 허브화 전략은 ASEAN이 여러 지역과 FTA를 체결함으로서 AFTA 허브화를 실현하여 외국인 직접투자가 허브지역에 집중되는 이점을 얻고자 한다는 내용이다. 그밖에 기타 경제적 이유로는 DDA의 조기타결 불투명 등에 따라 다자체제를 지지하되, 중국과 경제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는 것이다. 마지막 비경제적 요인으로는 ASEAN이 ASEAN경제에서 큰 영향을 행사해 온 일본을 견제하고 국제무역에서 개발도상국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공동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중국과 FTA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2. ASEAN의 FTA 추진 동향과 주요 내용

ASEAN 및 회원국의 중국, 일본, 한국 등과의 FTA 추진동향은 <표 3-1>에 정리하였다. 현재 ASEAN은 중국, 일본, 인도 등과 FTA를 추진 중이고 한국과도 2005년부터 FTA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23] 이중에서 중・ASEAN, 일・ASEAN, 인도・ASEAN FTA의

---

[23] ASEAN이 중국, 일본, 인도, 한국 등과 FTA를 추진하는 것 이외에도 2005년 1월부터 호주 및 뉴질랜드와 FTA를 추진하여 호주 및 뉴질랜드, 아세안 기존 회원국은 2007년, 신규회원국은 2012년까지 관세를 철폐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www.in.news.yaho.com/040905/137

추진동향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개별 회원국의 FTA 추진동향도 개관하기로 한다.

표 3-1. ASEAN 및 역내회원국의 자유무역추진 동향

구 분	진행 상황
ASEAN-중국	· 2001년 11월 FTA 추진 합의 · 2002년 11월 포괄적 연대협정 체결 - 조기자유화 2004년 추진 개시 · 2004년 11월 29일 관세인하 협약에 서명
ASEAN-인도	· 2002년 11월 FTA 추진 합의 · 2003년 10월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체결
ASEAN-일본	· 2003년 10월 포괄적 연대협정 체결 -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EPA 공동연구 완료 · 3개국과 2004년부터 정부간 협상추진에 합의(2003. 12)
ASEAN-한국	· 2001. 11 한-ASEAN 정상회의에서 싱가포르 총리가 한-ASEAN FTA 창설방안 검토 희망 · 2002.11 한-ASEAN 정상회의에서 고촉동 싱가포르 총리가 한국이 ASEAN과의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 · 2003년 10월 한-ASEAN 정상회의에서 FTA를 포함한 포괄적 경제협력강화 방안에 관해 전문가 그룹을 구성,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데 합의 · 2004년 3월 제 1차 전문가 공동연구에 이어 총 같은 7월까지 4차례의 공동연구모임을 가짐. · 2004년 11월 2005년부터 FTA 추진 합의
싱가포르-뉴질랜드	· 2000년 11월 CEP 체결
싱가포르-일본	· 2002년 FTA 체결
싱가포르-EFTA	· 2002년 6월 FTA 체결
싱가포르-호주	· 2003년 2월 FTA 체결
싱가포르-미국	· 2003년 5월 FTA 체결
싱가포르-인도	· 2003년 5월 FTA 협상 개시
싱가포르-한국	· 2003년 10월 산관학 공동연구 합의, 2004년 협상진행중 · 2004년 11월 29일 FTA 체결 합의
싱가포르-쿠웨이트	· 200년 12월 FTA 협상 개시 예정
태국-미국	· 2004년 6월 FTA 협상 개시
태국-호주	· 2004년 7월 FTA 추진 서명, 2005년 발효

자료: 권율(2004) 자료 보완.

/2fw62.html). 양측은 2004년 11월 라오스에서 열린 ASEAN 정상회담에서 호주 및 뉴질랜드정상들도 참석하여 양측간 FTA 추진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이다(Chinesenewsasia 9/6 2004).

2.1. ASEAN · 중국 FTA

중국은 ASEAN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위기감 불식, ASEAN과의 교역증대, 지역 주도권 확보 등을 위해 ASEAN을 첫 번째 FTA 대상국가로 선정하고 2000년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ASEAN간 경제협력을 위한 공동연구를 제안하였고, 2001년 중 · ASEAN FTA 체결을 제의해 합의를 얻어냈다. 즉 중국 · ASEAN 양측은 10년 안에 ASEAN · 중국간 FTA를 결성하되, 캄보디아 등 신규회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취급, 융통성을 부여하고 상호 협의에 의해 조기자유화(early harvest) 품목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2002년 11월에는 포괄적 경제협력에 대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을 체결하였다. 총 16조로 이루어진 ASEAN · 중국간 포괄경제협정 기본골격에는 먼저 ASEAN과 중국간 포괄적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함으로써 21세기에 상호 긴밀한 경제협력을 도모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양측은 FTA를 통해 무역장벽의 최소화, 경제관계의 심화, 비용절감, 투자 및 무역증대, 경제효율 증진, 시장규모의 확대, 투자지로서 매력증진 등의 효과를 거둘 것을 희망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양측은 ASEAN회원국간 경제발전단계의 상이함을 인식, 신규 회원국들에게 융통성을 부여하되, 그들의 FTA 참여를 높이기 위해 그들의 국내능력, 효율, 경쟁력을 강화해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ASEAN · 중국간 FTA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ASEAN 신규회원국이 동참을 주저하고 있고 양측은 이들을 끌어 안기 위해 별도의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

협정문에 따르면 양측은 포괄적 FTA를 10년 안에 구축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협상에 임하며, 전 교역품목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철폐하며, 주요 서비스 교역에 대한 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 양지역간 FTA 협상에서 참여국의 민

감한 품목에 대한 특별한 고려와 더불어, ASEAN 후발참여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특별대우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기본협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로 발효되었으며, 회원국은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2003년 7월 1일 이전에 종결하기로 했다.

무역자유화를 위해 조기자유화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전 품목을 관세 인하 또는 철폐대상으로 삼았다. 관세인하 기준 시점은 2003년 7월 1이며, WTO 회원국의 경우 기준관세는 2003년 7월 1일 현재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이며, 베트남, 라오스 등 WTO 비회원국은 기준시점 현재 중국에 대한 실행관세율을 기준으로 삼기로 하였다.

기본협정 4조에서는 관세인하를 품목에 따라 표준트랙(normal track)과 민감트랙(sensitive track)으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준트랙으로 분류된 품목의 관세는 중국과 ASEAN 기존회원국은 2005년 1월부터 2010년까지, 신규회원국은 2005년 1월부터 2015년까지 합의된 인하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하 또는 철폐된다. 민감트랙 품목에 대한 관세 역시 협의에 의해 결정된 일정에 의해 인하되는데, 대상품목은 양측의 협의에 의해 상한을 두기로 하였다.

양측은 ASEAN · 중국간 FTA를 가속화시키기 FTA 이행이전에 조기 자유화를 실시하는 조기자유화에 합의하였다. 조기자유화 대상품목은 <표 3-2>와 같다. 대상품목은 HS 1～8류로서 산동물, 육과 식용설육, 어류, 낙제제품, 기타동물제품, 살아있는 수목, 식용채소류, 식용과일 및 견과류 등이다. 실제 조기자유화가 적용되는 품목은 HS 8단위 또는 9단위 품목들이다. 조기자유화 대상품목과 참여 국가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조기자유화는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동일한 품목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인도네시아, 태국 등 일부 ASEAN 회원국가간에 실시된다. 기본협정문 체결당시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7개국은 중국과 조기자유화 협상을 종료하였지만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협상을 종결짓지 못하였다. 기본협정에는 2002년 11월 프놈펜에서 조기자유화 대상품목을 확정짓지 못한 국가는 2003년 3월 1일까지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24] HS 1~8류에 속하더라도 회원국이 제외한 품목에 대해서는 조기자유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회원국은 언제라도 예외목록에 있는 품목을 조기자유화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기본협정 부속서 3에서는 관세인하 및 철폐범위와 일정에 따라 조기자유화 대상품목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다. 제 1품목군은 중국과 ASEAN 기존 회원국이 15% 이상의 최혜국(Most Favoverd Nation: MFN) 관세율을 적용하는 품목들이다. ASEAN 후발참여국은

표 3-2. 조기자유화 적용대상 품목

HS 번호	품 목 군
01	산동물
02	육과 식용설육
0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04	낙농품,조란,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05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06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경,뿌리 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절화와 장식용의 잎
07	식용의 채소, 뿌리 및 괴경
08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자료: ASEAN 사무국.

---

[24] 2003년 3월 1일까지 마무리한다던 조기자유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필리핀은 2004년 9월 아로요대통령의 방중시 일부 품목에 대해 조기자유화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Manila Bulleten 8/30). 조기자유화조치는 208개 비민감품목에 대해 2005년부터 5% 이하의 관세를 적용하고, 2010년까지 무관세를 추진하는 것이다. 다만 민감품목인 쌀, 옥수수, 야채, 육류 및 설탕은 조기자유화조치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30% 이상의 MFN 관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이 1품목군에 포함된다. 제2품목군은 중국과 ASEAN 기존회원국이 5～15%의 MFN 관세를 적용하는 품목들이다. ASEAN후발참여국들의 경우는 15～29%가 적용되는 모든 품목들이 2품목군에 포함된다. 3품목군에는 중국과 ASEAN 기존회원국은 5% 미만, ASEAN 신규회원국은 15% 미만의 MFN관세가 적용되는 품목들이 들어있다.

중국과 ASEAN 기존회원국의 관세철폐일정은 <표 3-3>과 같다. 제3품목군에 해당하는 품목은 2004년 1월 1일 이전에 관세가 완전 철폐되지만, 2품목과 1품목군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는 각각 2005년 1월 1일과 2006년 1월 1일 이전까지 철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MFN 관세가 높을수록 관세철폐가 늦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표 3-4>에 제시된 ASEAN 후발참여국의 관세인하일정은 국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베트남은 2004년 1월 1일부터,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영세율로 한다는 계획이다.

기본협정에 제시된 조기자유화조치로부터 제외되는 품목은 <부속서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ASEAN 회원국 중에는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은 중국에 대해 예외품목을 설정하지 않았다. 중국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에 대해 어떤 품목도 예외로 분류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피해가 예상되는 캄보디아와 베트남은 각각 30개(HS 8단위

표 3-3. 중국과 ASEAN 기존회원국의 조기자유화조치 품목

	2004년 1월 1일 이전	2005년 1월 1일이전	2006년 1월 1일 이전
제1품목군	10%	5%	0%
제2품목군	5%	0%	0%
제3품목군	0%	0%	0%

자료: ASEAN 사무국.

표 3-4. ASEAN 후발참여국의 조기자유화조치 품목 관세철폐 일정

구 분	국 가 명	2004. 1.1	2005. 1.1	2006. 1.1	2007. 1.1	2008. 1.1	2009. 1.1	2010. 1.1
1품목군	베트남	20%	15%	10%	5%	0%	0%	0%
	라오스, 미얀마	-	-	20%	14%	8%	0%	0%
	캄보디아	-	-	20%	15%	10%	5%	0%
2품목군	베트남	10%	10%	5%	5%	0%	0%	0%
	라오스,미얀마	-	-	10%	10%	5%	0%	0%
	캄보디아	-	-	10%	10%	5%	5%	0%
3품목군	베트남	5%	5%	0-5%	0-5%	0%	0%	0%
	라오스, 미얀마	-	-	5%	5%	0-5%	0%	0%
	캄보디아	-	-	5%	5%	0-5%	0-5%	0%

자료: ASEAN 사무국.

기준)와 15개(HS 9단위)의 농산물을 조기자유화 대상품목에서 제외시켰다<표 3-5> 및 <표 3-6>. 캄보디아가 제외한 주요 품목은 산돼지, 가금육, 신선 또는 냉장 채소류(토마토, 양파, 상추, 당근 등), 과일(오렌지,파인애플, 멜론, 파파야, 수박) 등이다. 베트남의 예외품목은 가금육, 레몬, 그레이프푸르트, 감귤류 등이다.

한편 중국은 협상을 완료한 모든 ASEAN 국가에 대해 HS 01-08류 모든 품목을 자유화하기로 하는 대신 ASEAN 국가가 일부 품목을 제외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따라서 ASEAN-중국의 FTA는 중국이 ASEAN 전체와 협상을 벌이되, 개별회원국과 양자협상을 벌이는 형식으로 추진된다. 2002년 11월 기본협정 서명이후 조기자유화협상을 벌인 결과 인도네시아와 태국만이 각각 14개(HS 9단위) 및 2개(HS 10단위)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25] 캄보디아, 미얀마,

[25] 인도네시아가 추가한 품목중 농산물은 카페인을 제거한 볶은 커피(HS 090122000), 야자유(HS151311000), 기타야자유(HS151319000), 팜핵유 HS(151321000), 기타 팜핵유(HS151329000), 식물성유지와 그 분획물

표 3-5. 캄보디아의 제외품목

번호	HS 번호	품목명
1	0103.92.00	중량 50kg 이상의 산돼지
2	0207.11.00	신선 또는 냉장한 절단하지 않은 가금육
3	0207.12.00	냉동한 절단하지 않은 가금육
4	0207.13.00	신선 또는 냉장한 가금류의 절단 및 설육
5	0207.14.10	냉동한 가금류의 다리
6	0207.14.20	냉동한 가금류의 가슴
7	0207.14.30	냉동한 가금류의 날개
8	0207.14.90	기타 냉동한 가금류의 절단육
9	0301.93.00	살아있는 연어
10	0702.00.00	신선 또는 냉장한 토마토
11	0703.10.10	신선 또는 냉장한 양파
12	0703.20.00	신선 또는 냉장한 마늘
13	0704.10.10	신선 또는 냉장한 꽃양배추 및 브로콜리
14	0704.10.20	신선 또는 냉장한 방울다다기 양배추
15	0704.90.10	신선 또는 냉장한 양배추
16	0704.90.90	신선 또는 냉장한 배추
17	0705.11.00	신선 또는 냉장한 결구상추
18	0705.19.00	신선 또는 냉장한 기타 상추
19	0706.10.10	신선 또는 냉장한 당근
20	0706.10.20	신선 또는 냉장한 순무
21	0706.90.00	신선 또는 냉장한 기타 무
22	0708.20.00	신선 또는 냉장한 콩
23	0709.90.00	신선 또는 냉장한 기타채소
24	0801.19.00	신선 또는 냉장한 코코넛
25	0804.30.00	신선 또는 냉장한 파인애플
26	0804.50.00	신선 또는 냉장한 구아바, 망고. 망고스틴
27	0805.10.00	신선 또는 냉장한 오렌지
28	0807.11.00	신선수박
29	0807.19.00	신선 기타 멜론
30	0807.19.20	신선 파파야

자료: ASEAN 사무국.

(HS15162000), 동・식물성 유지로 만든 식용조제품(HS151790000), 볶은 원상 또는 파쇄한 코코아두(HS18061000) 등 7개 품목이다. 태국이 추가한 품목은 무연탄(HS2701110008)과 코크스(HS2704000904) 이다.

표 3-6. 베트남의 제외품목

번호	HS 번호	품목명
1	010511900	중량 185g 이하 가류
2	010592900	중량 2,000g 이하의 가금류
3	010593000	중량 2,000g 이상의 가금류
4	010599900	기타 가금류
5	020711000	신선 또는 냉장한 절단하지 않은 가금육
6	020712000	냉동한 절단하지 않은 가금육
7	020713000	신선 또는 냉장한 가금류의 절단 및 설육
8	020714000	냉동한 가금류의 절단 및 설육
9	020726000	신선 또는 냉장한 칠면조의 절단 및 설육
10	020727000	냉동한 칠면조의 절단 및 설육
11	040700100	신선 종란
12	040700900	기타조란
13	080530000	신선 또는 건조한 레몬과 라임
14	080540000	신선 또는 건조한 그레이프푸르트
15	080590000	신선 또는 건조한 기타 감귤류의 과실

자료: ASEAN 사무국.

라오스, 베트남은 품목을 추가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말레이시아와 필리핀과는 2003년 3월 1일까지 종료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대한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다.[26]

그러나 2004년 11월 29일 ASEAN이 관세인하협약에 서명함으로써 자유무역지대 형성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즉 ASEAN 10개국은 만장일치로 중국의 완전한 시장개방지위를 인정하면서, 양측은 2005

[26] 다만 Manila Bulletin(8/20, 2004)에 따르면 2004년 9월 필리핀 아로요 대통령의 방중시 일부 품목에 대해 조기자유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발표한 점을 볼 때 2004년 11월 초순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필리핀이 고려중인 조기자유화 조치는 비민감품목 208개에 대해 2005년부터 5% 이하 관세로 하고 점차 인하시켜 2010년까지 무관세를 추진하되, 필리핀측의 민간품목인 쌀, 옥수수, 야채, 육류, 설탕 등은 제외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년부터 시작하여 2010년까지 협정안에 따라 관세를 인하 및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ASEAN에 대한 경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ASEAN 공동협력기금(China-ASEAN Cooperation Fund)으로 5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고, ASEAN 지역협력에 참여하는 중국기관들을 위해 1,500만 달러 상당의 아시아 특별 협력기금(Special Asia Cooperation Fund)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2. ASEAN · 인도 FTA

ASEAN은 인도와도 FTA를 추진중이다. ASEAN이 인도와 FTA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은 금융위기 이후인데 2002년 11월 양측은 FTA 체결에 합의하고 2003년 10월 발리에서 개최된 ASEAN · 인도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협력협정(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nd the Republic of India)에 서명하였다. 동 협정의 목적은, ①양측간 경제, 무역, 투자협력을 강화하고, ②상품 및 서비스 무역을 점진적으로 자유화하고 촉진시키는 동시에 투자환경을 개선하며, ③양측간 긴밀한 경제협력 수단을 강구한다는 데 두고 있다. 양측간 경제협력을 위해, ①상품거래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②서비스무역의 점진적 자유화를 추진하며, ③양측간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투자환경을 조성하며, ④ASEAN 신규회원국들에게 특별대우를 제공하는 데 합의하였다.

상품무역에 관한 내용을 보면 관세인하 및 철폐기준일은 2004년 7월 1일 현재 적용되는 MFN 관세율로 하고, 동 협정에 서명한 후 인도와 ASEAN의 개별 회원국과 관세인하 협상을 개시한다는 것이다. ASEAN과 인도의 FTA에서도 중국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기자유화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조기자유화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은 표준트랙과 민감트랙으로 구분하여 자유화 일정을 달리하고 있다.

기본협정은 표준트랙으로 분류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시아, 싱가포르, 태국, 그리고 인도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합의된 관세인하계획에 따라 인하 또는 철폐하고, 필리핀과 ASEAN 신규회원국들은 2006년 1월 1일부터 자유화를 추진하되, 2016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SEAN · 중국간 FTA와 마찬가지로 ASEAN · 인도간 FTA도 인도와 ASEAN 전체간 협상을 벌이되, 개별회원국과도 협상을 병행하는 특징을 지닌다. 민감트랙 품목에 대한 관세 역시 협의에 의해 결정된 일정에 의해 인하되는데, 대상품목은 양측의 협의에 의해 상한을 두기로 하였다.

ASEAN · 중국간 FTA에서 조기자유화조치를 추진한 것처럼 ASEAN · 인도의 FTA에서도 조기자유화조치를 도입하여 양측은 FTA를 가속화시키고자 한다. 조기자유화 품목으로 분류된 품목들에 대한 관세는 2004년 11월 1일부터 관세인하를 시작하여 인도와 ASEAN 기존회원국은 2007년 10월 31일까지 완료하고, ASEAN 신규회원국은 2010년 10월 31일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조기자유화 대상 품목 중에는 ASEAN과 인도 전체에게 해당하는 품목과 인도가 ASEAN 신규 회원국에게만 조기에 자유화하는 품목으로 구분된다. 전자에는 HS 6단위 기준으로 105개 품목이 포함되는데 농수산물로는 정어리(HS 160413), 다랑어(HS 160414), 코코어버터(HS 180400), 코코아분말(HS 180500), 조제파인애플(HS 200820), 기타 파인애플쥬스(HS 200949) 등 6개 품목이다. ASEAN 신규회원국에만 조기자유화되는 품목에는 HS 6단위 기준으로 111개 품목이 포함되는데 농산물은 신선 또는 건조 알몬드(HS 08021), 캔디류(HS 130110), 기타가공식품(HS 130120), 기타(가공식품)(HS 130190), 대나무(HS 140110), 등나무(HS 140120), 기타 식물성의약품(HS 140190), 기타설탕과자(HS 170490)로서 가공식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27] 중국이 ASEAN에 대

해서 조기자유화 한 모든 품목이 농산물인데 비해 인도는 주로 비농산물을 조기자유화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또 다른 특징이다.

동 협정문은 원칙적으로 2004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며, 인도와 ASEAN 회원국은 2004년 7월 1일 이전에 동 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조치를 완료해야 하고, 그때까지 완료하지 못한 국가는 국내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통고하는 날부터 발효된다.

2.3. ASEAN ·일본 FTA

현재 일본과 ASEAN간에는 일본의 제안 및 주도로 일·ASEAN 경제파트너십(JAEPA) 연구그룹이 구성되어 양 지역간 FTA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이 ASEAN을 상대로 FTA에 적극성을 보이는 이유는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이익[28]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중국과의 주도권 쟁탈에 대비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권율 등 2003). ASEAN과 FTA를 체결하는데 일본과 중국이 상호 경쟁적이지만 일본이 중국과 같은 리더십과 주도권으로 AFTA와의 FTA를 추진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은 농산물에 대한 조기자유화조치를 통하여 ASEAN 국가들이 중국과의 FTA에 참여하도록 하는 주효한 유인

---

27 농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ASEAN·인도간 포괄협정(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nd the Republic of India) 부속서 1(www.aseansec.org/15278.htm)를 참조할 것.

28 일본 외무성이 밝힌 FTA 경제적 이점으로 무역을 확대하고, 산업구조를 좀더 효율화시키며 경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 외무성은 ASEAN과 한국이 일본의 FTA 파트너로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일본의 무역에서 ASEAN과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지만 일본수출품에 대한 과세 역시 가장 높은 지역이기 때문이란 것이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2).

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본은 기본적으로 관세율이 낮은 가운데 ASEAN국가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업분야 자유화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인데, 이점은 농업에 관한 한 개방이 용이하지 않은 우리나라가 ASEAN과 FTA를 추진하는데 겪을 수 있는 유사한 제약점일 수 있다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ASEAN · 일본간 FTA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2002년 초 고이즈미 총리의 동남아 순방에서부터 시작된다. 일본 · 싱가포르 FTA에서 농업부문을 사실상 제외하고 있어 한계를 갖는 것이 사실이고 동남아 각국이 농산물을 제외한 일본과의 FTA 추진에 적극성을 나타내지 않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FTA 추진에 적극적인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3개국과 개별적으로 FTA 추진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설치하고, 2003년 1월 발리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기간중 ASEAN과 포괄적 경제연대협정(Framework for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서명함으로써 ASEAN · 일본간 자유무역협정 논의가 좀더 구체화 되고 있다. 이로써 일본은 ASEAN 전체와 FTA 협상을 벌이는 한편 개별회원국과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을 위한 별도 협상을 추진하는 전략을 구사하여 ASEAN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개별 회원국에게 조기자유화 등을 통해 유인책을 제공하는 중국과 인도와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ASEAN과 일본간의 FTA는 중국 또는 인도와는 달리 아직까지 구체적인 관세인하 일정이나 계획이 확립되지 않은 채 협상이 진행중이다.

2003년 10월 발리에서 개최된 ASEAN+일본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ASEAN 전체와 2012년까지 FTA 추진을 목표로 2005년 교섭을 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우선은 일본과의 FTA에 적극성을 보이는 3개국과의 양자협상을 조만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 일본의 구상이다.

일본과 ASEAN 3국과 양자협상 동향을 보면 먼저 태국은 ASEAN 국가 중에서 일본의 최대 수출대상국이고, 수출대상품목의 대부분이 관세가 높은 편이어서 FTA 추진시 교역확대효과가 가장 큰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태국은 관세인하에 있어서 농산품과 공산품의 일괄 교섭을 주장하고 있고, 쌀, 닭고기, 설탕, 타피오카(전분) 등 일본으로서는 민감품목이 많아 FTA협상에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요리사, 태국식 마사지사, 간호사 등의 노동허가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태국에서 일본의 의료보험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태국과 일본의 교섭은 2004년 2월 중순 시작되어 그동안 총 세차례 추진되었으나, 농림수산품과 공산품을 나누어 교섭하자는 일본측과 포괄적 철폐를 주장하는 태국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어서 협상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4년 6월초 Asian Leaders in Tokyo에 참석한 태국의 탁신 총리가 일본과의 FTA는 태국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FTA라고 강조하고, 양국간 FTA의 최초 단계에서 농산물이 제외될 수 있음을 시시하여, 양국간 FTA 협상에서 쌀, 설탕, 타피오카 및 닭고기 등을 제외해 달라는 일본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서 양국간 FTA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 졌다. 이러한 점은 향후 우리나라가 태국과 FTA를 추진할 경우 참고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필리핀은 WTO 기준에 따라 실질적이고 전반적인 관세철폐를 요구하고, 양국의 경제력 격차를 고려하여 일본의 농수산품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교섭상황을 살펴보면, 2004년 2월 4-5일 제1차 협상을 개시하여 4월 14-16일 2차 협상, 7월 5-7일 제3차 협상을 추진한 바 있다. 일본은 투자 및 서비스와 함께 내국민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자유화와 네가티브 방식을 요구한 바 있다. 필리핀은 투자자유화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네가티브 방식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부조달에 있어서도 투명성은 중요하지만, 내외무차별 대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필리핀측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간호사, 건강사 등 의료복지 분야의 인력이동 자유화에 대해서 일본은 자국의 전문인력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령화 사회인 일본으로서는 간호사 및 건강사의 인력인동이 필요하나, 필리핀의 요구에 보다 엄격한 자격조건을 제시하여 다른 동남아 국가들의 인력이동 문제에 대응하려는 입장이다.

말레이시아는 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기업이 현지에 많이 진출하여 경제제휴의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교섭상황을 살펴보면, 2004년 1월 13일 1차 협상을 개시하고, 3월 9-11일 제2차 협상, 5월 19-21일 제3차 협상, 7월 19-21일 제4차 협상에서 분야별로 본격적인 협상을 추진한 바 있다. 일본으로서는 자동차, 철강 등 고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고, 투자 및 서비스 자유화, 정부조달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4. 기타 개별회원국의 FTA 논의 동향

한편 ASEAN 차원의 시장통합 노력 외에도 태국, 싱가포르 등은 개별국가 차원에서 역외국과의 쌍무적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권율 2004). 개방경제 체제를 통해 경제적 실익을 얻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이미 뉴질랜드, 일본, EFTA, 호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FTA 협상을 추진중인 국가는 멕시코, 캐나다, 한국, 인도 등이다<표 3-7>. 태국도 2001년 탁신정부 출범 이후 미국, 일본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데, 태국정부는 현재 호주와 FTA 협정에 서명하였고, 중국[29], 일본, 미국, 인도 등과 교섭을 추진중이다.

표 3-7. ASEAN 개별국가 단위의 FTA 추진 동향

국 가	기체결국	추진중
ASEAN		중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CER, 일본, 미국, EFTA	한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요르단, 스리랑카
태국	호주	일본, 미국, 인도, 바레인
말레이시아		일본
필리핀		일본

자료: 권율(2004).

29 현재 중국과 태국은 FTA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방콕 포스터에 의하면 양국간 FTA 준비의 일환으로 2003년 6월에 고온계절에 중국산 과일과 채소, 저온계절에 태국산 열대과일의 자유화에 서명하여 같은 해 10월 발효되었는데 발효 이후 6개월간 태국의 대 중국 농산물 수출은 30% 증가한 반면,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1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Bangkok Post 10/1, 2004).

제 4 장

ASEAN 경제개황과 전망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ASEAN은 외국인투자 확대와 역내 분업촉진을 위해서 1990년대부터 ASEAN 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AFTA)를 강화하고 있다. ASEAN 10개국은 개별 국가의 경제발전 정도와 경제여건에 따라 상이한 경제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장에서는 ASEAN 회원국들의 경제개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인구

1.1. 인구[30]

2003년 현재 ASEAN의 총인구는 5억 4,200백만 명이다. 10개 회원국 중에서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1,500만 명으로 가장 많고, 브루나이 인구가 40만 명으로 가장 적다. ASEAN 회원국의 평균 인구증가율은 1.6%이지만 라오스와 같이 2.8%로 인구증가율이 매우 높은

30 제4장 ASEAN 회원국의 경제개황과 전망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는 <부표 27-32>를 참조하기 바람.

표 4-1. ASEAN 각국의 주요 인구지표, 2003년 기준

구 분	면 적	총인구	인구 증가율
	천㎢	백만명	%
싱 가 포 르	0.67	4.2	0.3
태 국	513	63.9	0.8
말 레 이 시 아	330	25.1	2.1
인 도 네 시 아	1,920	215	1.4
필 리 핀	300	81	2.0
브 루 나 이	5.8	0.4	1.4
베 트 남	330	81	1.5
라 오 스	236	5.7	2.8
미 얀 마	676	53.2	2.0
캄 보 디 아	180	13.3	1.9
A S E A N	**4,491**	**542.8**	**1.6**
중 국	9,600	1,292	0.6
한 국	**99**	**47.9**	**0.6**

주 1) 1995년 기준, 2) 2001년 기준, 3) 2002년 기준.
자료: ADB(Asian Development Bank), Key indicator, 2004.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2004.

국가가 있는가 하면, 싱가포르와 같이 인구증가율이 0.3%로 매우 낮은 국가도 있다. 후발가입국 일수록 인구증가율이 높다.

1.2. 산업별 취업 구조

ASEAN 회원국의 총취업 인구는 2억 3,412만 명이다. 취업자중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약 9,739만 명(41.6%)이고, 비농업부문 취업인구는 1억 3,673만 명(58.4%)이다. 급속한 산업화로 농업부문의 취업인구 비중은 감소하고 비농업부문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인도네시아의 2003년도 총취업자는 9,079만 명이다<표 4-2>. 농업부문 취업자수는 4,203만 명으로 총취업자에서 46.3%를 차지하고, 비농업부문 취업인구는 4,876만 명으로 53.7%에 이른다. 인도네시아는

ASEAN 선발 가입국가 중에서 농업부문 취업인구 비중이 가장 높다.

싱가포르는 ASEAN 회원국중 농업부문 취업자 비중이 가장 낮다. 2003년도 총취업자는 203만 명이고 농업부문의 취업 비중은 0.2% (4,060명)를 나타낸다. 싱가포르의 국가경제 전반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표 4-2. 산업별 취업 비중

단위: 만명, %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인도네시아	총취업인구	7,585	8,011	8,984	9,081	9,165	9,079
	농업 비중	55.9	44.0	45.3	43.8	44.3	46.3
	비농업 비중	44.1	56.0	54.7	56.2	55.7	53.7
말레시아	총취업인구	669	765	927	936	954	987
	농업 비중	26.0	20.0	16.7	15.1	14.9	14.3
	비농업 비중	74.0	80.0	83.3	84.9	85.1	85.7
필리핀	총취업인구	2,253	2,570	2,778	3,009	3,025	3,155
	농업 비중	45.2	44.1	37.5	37.4	37.4	37.2
	비농업 비중	54.8	55.9	62.5	62.6	62.6	62.8
싱가포르	총취업인구	154	170	210	205	202	203
	농업 비중	0.3	0.2	0.2	0.2	0.2	0.2
	비농업 비중	99.7	99.8	99.8	99.8	99.8	99.8
태국	총취업인구	3,084	3,258	3,300	3,348	3,426	3,468
	농업 비중	64.0	52.0	48.8	46.0	46.1	44.9
	비농업 비중	36.0	48.0	51.2	54.0	53.9	55.1
캄보디아	총취업인구	-	493	528	624	640	-
	농업 비중	-	81.4	73.7	67.0	70.0	-
	비농업 비중	-	18.6	26.3	33.0	30.0	-
미얀마	총취업인구	1,670	1,760	-	-	-	-
	농업 비중	65.6	64.1	-	-	-	-
	비농업 비중	34.4	35.9	-	-	-	-
베트남	총취업인구	2,940	3,300	3,670	3,770	4,050	4,120
	농업 비중	72.1	70.0	66.2	65.0	57.5	56.1
	비농업 비중	27.9	30.0	33.8	35.0	42.5	43.9

자료: ADB, Key Indicators 2004.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2004.

ASEAN 회원국 중에서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등의 후발 가입국은 총취업자 대비 농업부문 종사자 비중이 선발 가입국보다 높다. 베트남은 2003년 총취업자 4,120만 명 중에서 농업부문의 비중은 56.1%(2,311만명)이고, 비농업부문 취업자 비중은 43.9% (1,809만명)이다. 그리고 ASEAN 후발 가입국 중 경제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베트남의 비농업부문 취업 비중은 1990년 27.9%에서 2002년에는 42.5%로 늘어나면서 매년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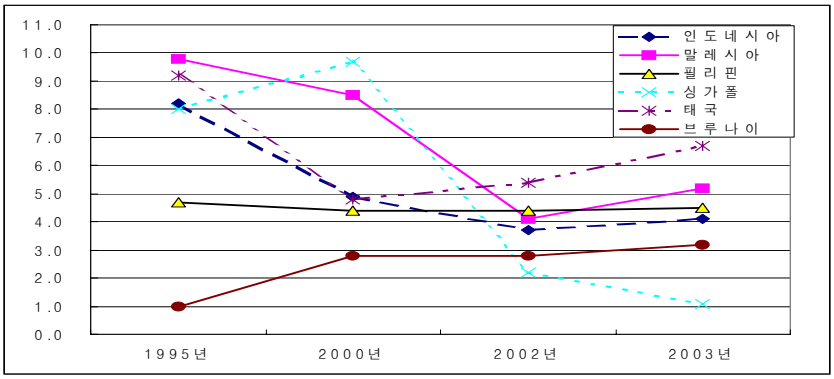
2.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변화

2.1. 경제성장률 및 GDP 현황

ASEAN 국가들의 1990년대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통한 수출진흥 정책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ASEAN 회원국들은 경제성장률과 국내총생산 규모면에서 매우 이질적이다. 국내 총생산은 선발 가입국 중 인도네시아가 2,083억 달러로 가장 규모가 크고, 후발 가입국인 베트남이 390억 달러로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보다 규모가 크다. ASEAN의 2003년 역내 경제성장률은 평균 4.8%다. 회원국 중에는 베트남이 7.3%로 가장 높다. 1인당 GDP가 1만달러 이상인 회원국은 싱가포르, 브루나이이다. 후발 가입국의 1인당 GDP는 평균 500달러 미만이다. 국내총생산액에서 산업별 비중은 싱가포르의 서비스업이 67.2%로 가장 높고, 말레이시아는 광공업의 비중이 48.6%로 가장 높다. 그리고 농업의 비중은 선발 회원국 중에서는 인도네시아가 16.6%로 가장 높고, 후발 가입국 중에서는 베트남이 21.8%로 가장 낮다.

그림 4-1. ASEAN 선발가입 국가 경제성장률



자료: ADB, Key Indicators 2004.
ASEAN Secretariat, ASEAN Statistics(http://www.aseansec.org).

표 4-3. ASEAN 각국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2003년 기준

	GDP (명목)	경제 성장률	1인당 GDP	GDP상 비중		
				농업	광공업	서비스
	10억달러	%	달러	%	%	%
싱가포르	91.3	1.1	21,826	0.1	32.7	67.2
태 국	143.2	6.7	2,238	9.8	44.0	46.3
말레이시아	103.2	5.2	4,118	9.5	48.6	41.9
인도네시아	208.3	4.1	969	16.6	43.6	39.9
필 리 핀	80.4	4.5	977	14.4	32.3	53.2
브루나이	4.7	3.2	12,971	-	-	-
베 트 남	39.0	7.3	483	21.8	40.0	38.2
라 오 스	2.1	5.8	375	48.6	25.9	25.5
미 얀 마	9.6	5.1	179	57.2[1)]	10.5[1)]	32.4[1)]
캄보디아	4.0	5.1	315	37.2	26.8	36.0
ASEAN	**685.8**	**4.81**	**4,445**	**23.9**	**33.8**	**42.3**
중 국	1,412	9.1	1,096	14.6	52.3	33.1
한 국	**605.4**	**3.1**	**12,631**	**3.2**	**34.6**	**62.2**

주 1) 2001년 기준.
자료: ADB, Key Indicators 2004.
ASEAN Secretariat, ASEAN Statistics(http://www.aseansec.org).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2004.

선발 가입국 중에서 인도네시아는 199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7.2%의 고도성장을 기록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크게 둔화되었다. 말레이시아는 대외경제 여건의 회복에 힘입어 1999년부터 고도성장 기조를 회복하였으며 경제성장률은 1995년 9.8%, 2000년 8.5% 그리고 2002년 4.1%를 기록하였다.

싱가포르는 지난 40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국제교역, 물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도시국가로서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개방 경제체제와 대외지향적 경제성장 전략으로 1990년대까지 고도 경제성장을 하지만,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2003년 경제성장률은 1.1%로 선발 가입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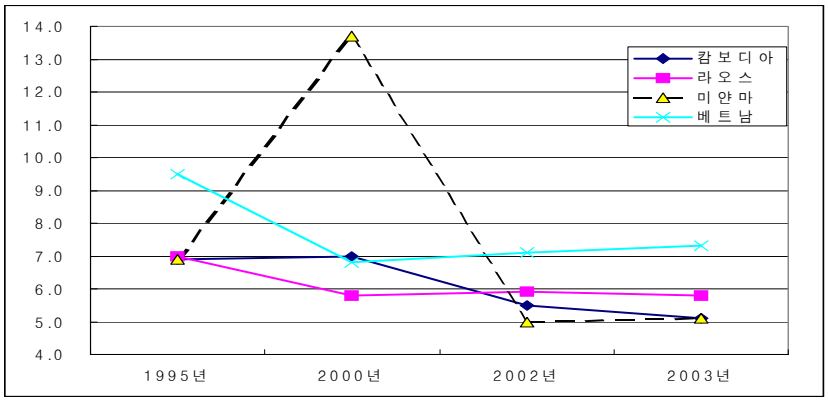
태국의 경제발전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은 농업의 역할이다. 공업화 초기에 농산품의 수출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외자유치 등의 노력으로 태국의 경제성장률은 1995년 9.2%, 2000년 4.8% 그리고 2003년 6.7%를 나타낸다.

브루나이는 풍부한 천연자원(석유, LNG)등의 수출로 획득한 외환의 해외운용으로 안정된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제조업 등 국내산업 기반은 취약한 형편이다. 국내산업의 취약으로 대부분의 공산품을 완제품 형태로 수입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1995년 1.0%, 2000년 2.8% 그리고 2003년 3.2%이다.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는 ASEAN의 후발 가입국이다. 캄보디아는 미국과 EU 수출을 겨냥한 우회수출(봉제공장) 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내수시장의 협소와 대외원조 의존형 소비시장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시장경제 도입과 외국인 투자법 제정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1990년 1.2%, 1995년 6.9%, 2000년 7.0% 그리고 2002년 5.5%를 나타낸다.

미얀마는 1997년 ASEAN 가입과 함께 지속적인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치 불안과 사회인프라 미비 등으로 경제개혁의

그림 4-2. ASEAN 후발가입 국가 경제성장률



자료: ADB, Key Indicators 2004.
ASEAN Secretariat, ASEAN Statistics(http://www.aseansec.org).

성과가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미얀마의 경제성장률은 1995년 6.9%, 2000년 13.7% 그리고 2003년 5.1%를 나타낸다.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개혁·개방정책)' 정책 채택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개혁지향 체제의 전환으로 1995년 9.5%, 2000년 6.8% 그리고 2003년 7.3%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다.

2.2. 산업별 성장률과 구성비

ASEAN국가들은 외환위기 이후 개별 국가의 경제상황과 여건, 추진 전략 등에 따라 산업별 역할과 성장률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인도네시아는 내수시장과 풍부한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추구하였다. 1997년을 기점으로 산업전반에 걸쳐 성장률이 하락하다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산업별 성장률에서 농업부문은 2.5%, 광공업은 3.4%, 서비스업은 5.5%를 나타낸다.

말레이시아는 다국적 기업이 주도하는 공산품 시장을 기반으로 외자유치 및 수출증대에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 농업부문 성장률은

2003년 5.5%, 광공업은 7.0%, 서비스업은 3.9%를 달성하였다.

필리핀은 장기간의 식민지 통치를 받으면서 설탕, 코코넛 등 1차 산품에 의존한 전형적인 경제체제를 유지해 왔다. 산업별 성장률에서 농업부문은 2003년 3.5%, 광공업은 3.0%, 서비스업은 5.9%를 나타낸다. 필리핀은 ASEAN국가 중에서 공업화가 조기에 시작되었지만, 보호주의적 산업정책이 지속되면서 경제적 비효율이 증대되어 경제개발과 공업화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형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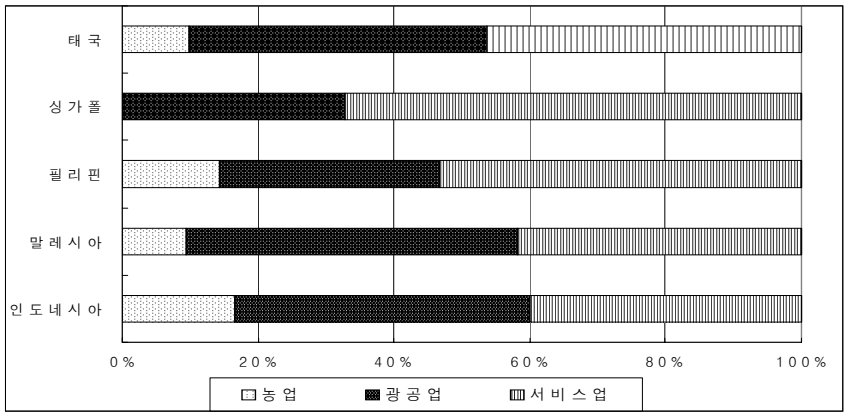
태국은 산업전반에 걸쳐 외환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농업부문의 경제성장률은 2003년 6.8%, 광공업은 9.3%, 서비스는 4.2%를 나타낸다. 태국의 산업구조는 1980년대 중반 농업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 중심의 본격적인 수출진흥정책이 실행되었다.

캄보디아는 정국안정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2년 메콩강 홍수로 농업부문의 일시적인 성장둔화가 있지만, 농업부문의 회복세와 봉제분야의 수출호조 등으로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캄보디아의 산업별 성장률에서 농업부문은 등락을 반복하고 광공업은 2003년 19.0%, 서비스업은 4.2%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낸다.

베트남은 제조업, 건설업 등 광공업분야의 성장률이 두드러진다. 2003년 농업부문은 3.3%, 광공업은 10.3%, 서비스업은 6.6%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낸다. 베트남 경제는 제조업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성장을 발판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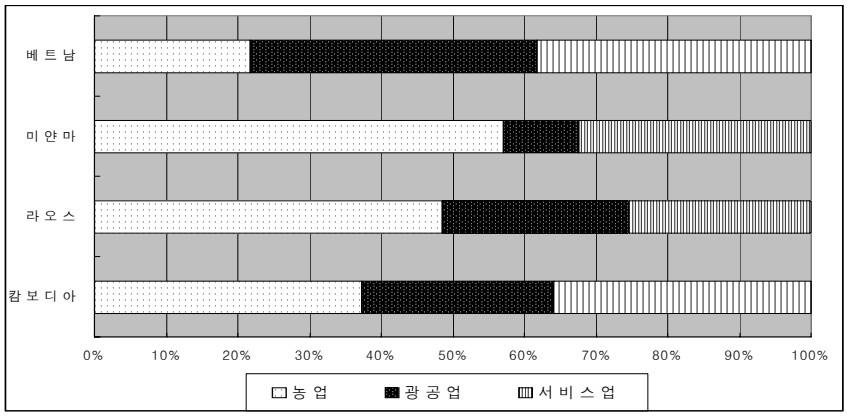
ASEAN 회원국별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산업별 비중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선발 가입국들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베트남, 캄보디아 등 후발 가입국들은 경제발전의 저위 등으로 농업의 비중이 높다. 2003년 인도네시아의 산업별 GDP 구성비에서 농업은 16.6%로 선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 광공업은 43.6%, 서비스업은 39.9%를 나타낸다. 말레이시아는 제조업을 통한

그림 4-3. ASEAN 선발가입국가 산업별 GDP 구성비, 2003



자료: ADB, Key Indicators 2004.
ASEAN Secretariat, ASEAN Statistics(http://www.aseansec.org).

그림 4-4. ASEAN 후발가입국가 산업별 GDP 구성비, 2003년



자료: ADB, Key Indicators 2004.
ASEAN Secretariat, ASEAN Statistics(http://www.aseansec.org).

외자유치와 수출증대에 힘입어 광공업의 비중이 48.6%로 선발 회원국중 가장 높다. 농업은 9.5%, 서비스업은 41.9%를 나타낸다. 싱가포르는 국제금융시장의 성장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로 1990년대 국

제비즈니스센터로 성장하였다. 산업별 비중에서 서비스업은 67.2%로 기존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광공업은 32.7%, 농업은 0.1%로 미약하다. 태국은 1980년대 중반까지 농업에 바탕을 둔 제조업 중심의 수출진흥정책을 실시하였지만, 1990년대 초반부터 전기·전자업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였다. 총생산액에서 산업별 비중은 농업이 9.8%, 광공업은 44.0%, 서비스업은 46.3% 등이다.

2001년 미얀마의 농업부문 비중은 57.2%로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의 후발 가입국 중에서 가장 높다. 그러나 농림수산업에 기반을 둔 제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공업의 비중은 10.5%로 후발 가입국중 가장 낮다.

베트남은 산업 전반의 고른 성장에 따라 2003년 총생산액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1.8%이고 광공업은 40.0%, 서비스업은 38.2%로 후발 가입국들 중에서 비농업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다.

3. 교역 현황

2003년 ASEAN의 총교역액 8,446억 달러 중에서 수출은 4,562억 달러, 수입은 3,884억 달러 수준이다. ASEAN 회원국들 중에서 후발 가입국들은 원부자재 및 부품, 소재산업의 취약성으로 수출이 확대될수록 수입도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03년 612억 달러를 수출하였고, 수입은 324억 달러로 286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하였다.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 및 석유제품, 광물성 원료, 동식물 지방 및 기름, 고무 및 고무제품, 목재 및 펄프, 의류, 농산물(축산물, 채소류, 커피) 등이고, 수입품목은 기계류 및 전자기기, 화학제품, 철강, 면, 밀, 플라스틱 제품 등이다. 주요 수출국은 일본, 미국, 싱가포르, 중국, 한국, 말레이시아 등이고,

수입국은 일본, 미국, 중국, 싱가포르, 한국, 호주 등 이다.

2003년 말레이시아의 교역수지 흑자액은 213억 달러에 이른다. 주요 수출품목은 전기전자제품, 팜오일 제품, 원유, 천연가스, 의류, 고무류, 동물성 유지, 목재와 코르크 등이고 수입품목은 기계·수송장비, 화학제품, 식품 등이다. 말레이시아의 수출대상국으로는 미국, 싱가포르, 일본, 중국, 네덜란드, 태국, 한국 등이고, 수입국은 일본, 싱가포르, 미국, 중국, 한국, 태국, 독일, 인도네시아 등이다.

2003년 필리핀의 교역수지 적자는 12억 달러 수준이다. 필리핀의 수출에서 반도체 제품이 전체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식품, 담배, 음료, 광물질, 동식물성 유지, 화학제품, 기계, 미세가공제품 등이고, 수입품목은 식음료, 광물질, 화학제품, 기계 및 운송장비 등이다. 주요 수출국으로는 미국, 일본, 네덜란드,

표 4-4. ASEAN 각국의 교역지표, 2003년 기준

단위: 백만불

	수출액	수입액	교역수지
싱 가 포 르	144,127	127,892	16,235
태 국	80,365	75,645	4,721
말 레 이 시 아	104,969	83,617	21,351
인 도 네 시 아	61,223	32,390	28,633
필 리 핀	36,298	37,497	-1,199
브 루 나 이	4,410	1,254	3,156
베 트 남	20,176	25,227	-5,051
라 오 스	366	501	-136
미 얀 마	2,367	1,879	488
캄 보 디 아	1,917	2,469	-552
A S E A N	**456,218**	**388,371**	-
중 국	438,228	412,757	25,471
한 국	**193,817**	**178,827**	**14,990**

자료: ADB, Key Indicators 2004.
ASEAN Secretariat, ASEAN Statistics(http://www.aseansec.org).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한국 등이고, 수입국은 미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중국, 태국 등이다.

태국은 대외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적절한 재정, 금융, 환율 등의 거시경제정책으로 민간소비와 수출이 급증하여 2003년 47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하였다. 주요 수출품목은 컴퓨터 관련제품, 전기설비, 식료품, 플라스틱제품, 쌀, 보석, 석재료 등이다. 주요 수입품목은 기초 제조품, 기계 및 운송장비, 광물질 원료 등이다. 수출대상국으로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중국, 말레이시아, 영국 등이고, 수입국은 일본,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등이다.

브루나이는 1차 산업인 석유 및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식료품 및 공산품을 수입하는 무역구조를 갖고 있다. 2003년 교역수지는 3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교역대상국은 일본, 한국, 싱가포르, 호주, 말레시아, 중국 등이다.

캄보디아의 2003년 수출액은 19억 달러, 수입액은 25억 달러로 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은 외국인 투자진출기업에서 생산하는 의류와 천연고무, 목재류, 농산물(옥수수, 깨, 대두), 수산물 등이고, 수입품목은 원유 및 석유제품, 직물, 섬유사, 기계류, 전기기기, 철강제, 의약품 등이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 독일, 영국, 싱가포르, 베트남, 일본, 프랑스 등이고, 수입국은 태국, 홍콩,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이다.

라오스의 2003년 교역수지는 4억 8,8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은 농산물(커피, 가축), 목재 및 가공품, 전기, 의류제품 등이고, 수입품목은 건설, 전력장비, 보석류, 의류원료 제품 등이다. 수출국은 베트남, 태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이고, 수입국은 태국,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일본, 한국, 중국 등이다. 라오스의 수출장애 요인으로는 부가가치가 낮은 농업 생산품 위주의 수출과 밀무역 성행, 품질 경쟁력의 부족 등으로 지적되고 있다.

베트남은 ASEAN 후발가입국 중에서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베트남의 교역수지는 2003년 5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은 원유, 의류, 신발, 수산물, 쌀, 커피, 목재, 고무, 석탄 등이고, 수입품목은 기계, 정유, 섬유직물, 철강, 화학제품, 전기제품 등이다. 그리고 주요 수출국은 일본, 미국, 중국, 호주, 싱가포르, 독일, 한국 등이고, 수입국은 싱가포르, 일본, 한국, 중국, 태국, 미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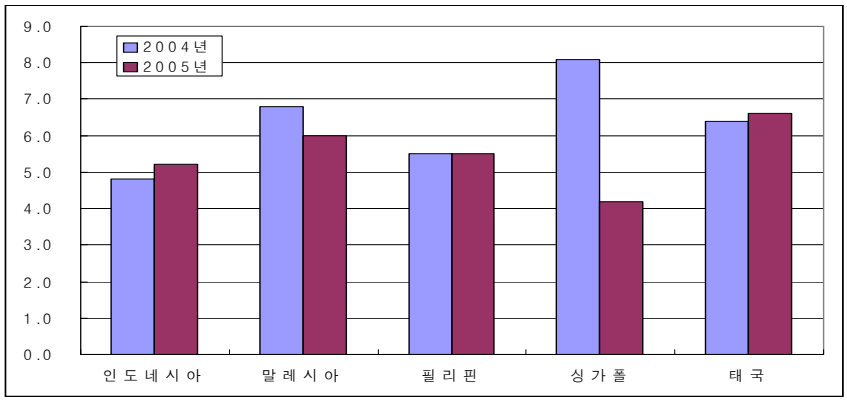
4. ASEAN 국가들의 경제성장 전망

세계경기호조 등에 힙입어 ASEAN 국가들은 당분간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서는 아시아개발은행의 단기 전망치를 이용하여 ASEAN 국가들의 경제 전망을 검토하기로 한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이자율의 인하와 세계경제의 회복 등으로 국내소비와 수출이 증대되어 경제성장률은 2004년 4.8%, 2005년 5.2%로 전망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국내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저유가정책을 유지하여 발생한 과도한 정부보조금 문제해결과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가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저금리 기조유지와 고정환율제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의 지속 등으로 말레이시아 경제성장률은 2004년 6.8%, 2005년 6.0%로 전망된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국내 실업인구 증가, 소비심리 위축, 주식시장 침체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 문제와 수출회복 지연이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전망되고 있다.

필리핀은 열악한 인프라와 극심한 빈부격차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 민간소비의 성장으로 2004년 5.5%, 2005년 5.5%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된다. 하지만 만성적인 재정적자(GDP 4.6%, 2003년) 문제는 필리핀 경제 최대 현안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림 4-5. ASEAN 선발가입국의 경제성장률(단기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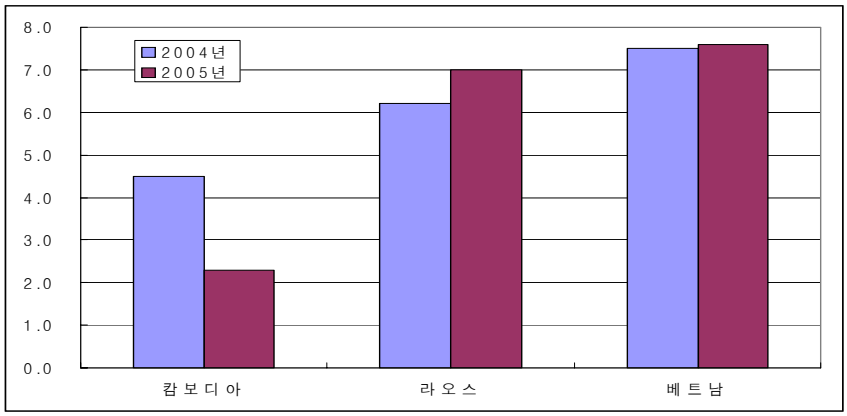
자료: ADB, Key Indicators 2004.
ASEAN Secretariat, ASEAN Statistics(http://www.aseansec.org).

싱가포르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에 따라 2004년 경제성장률은 8.1%, 2005년 4.2%로 전망된다. 특히 2005년 성장률은 중국경제 성장세 둔화 및 세계적인 통화긴축 정책의 영향 등을 감안하여 전망되었다. 태국경제는 조류독감, 치안불안(남부지역)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와 내수시장의 회복세로 계속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04년과 2005년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6.4% 및 , 6.6%가 될 전망이다.

캄보디아 경제의 최대 현안문제는 세원확보 문제이다. 하지만 섬유류 중심의 수출 호조, 관광수입 증가, 건설부문의 성장으로 2004년과 2005년의 경제성장률은 4.5% 및 2.3%가 될 전망이다. 특히, 농업생산성 향상과 관개시설의 확충, 농지소유제도 개선 등의 내부적 발전 요인과 함께 국제 쌀 가격의 상승은 농업분야의 견실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오스 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과 태국경제의 회복으로 2004년과 2005년 각각 6.2% 및 7.0% 성장할 전망이다. 라오스 정부는 재정

그림 4-6. ASEAN 후발가입국의 경제성장률(단기전망)



자료: ADB, Key Indicators 2004.
ASEAN Secretariat, ASEAN Statistics(http://www.aseansec.org).

적자 문제와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적자본 육성, 농촌개발, 대외경제관계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베트남 경제는 도이모이정책 채택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0년까지 현대화・공업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정보통신, 사회기간 시설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 경제에서 제조업 분야의 민간, 외국인 투자기업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이 진행되고 있다. 2004년과 2005년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7.5% 및 7.6%가 될 전망이다.

제 5 장

ASEAN 주요 회원국의 농업현황

이 장에서는 ASEAN 주요 회원국의 농업현황을 살펴봄으로써 ASEAN 회원국들이 우리나라와 FTA 협상을 벌일 때 개방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접적으로 가늠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와의 교역중요성 및 관련 자료의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분석대상국가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ASEAN 5개 회원국을 선정하였다.

1. 인도네시아

1.1. 농업개황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는 동서로 5,100km, 남북으로 1,900km에 달하는 세계최대의 군도국가이다. 인도네시아의 국토면적은 약 1억 8,100만 ha로 우리나라의 18배 이상이다. 인도네시아 국토의 73%는 산림지역으로 세계적인 열대 산림자원보유국으로 총 수출액의 15%가 목재류인 최대 목재산업국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ASEAN간의 FTA협상시에도 인도네시아는 임산물에 대한 추가적인 수입개방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2003년 현재 인도네시아의 국토면적 중 농지면적은 4,488만 ha로 전 국토의 약 24.8%를 차지하고 있다<표 5-1>. 총농지면적 중 오직 10.8%만이 관계수리면적으로 아직도 농업하부구조가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농가의 영농규모가 평균적으로 영세하여 1ha 미만의 영농규모를 유지하는 농가가 전체 농가의 7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총인구는 2003년 기준으로 2억 1,700만 명 수준(세계4위)이고, 그 중 농가인구는 약 1억 2,340만으로 전체 인구의 57% 가량을 차지한다<표 5-2>. 전체인구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감소추세를 보인다.

표 5-1. 농지이용 현황

단위: 천ha, %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총면적	181,157	181,157	181,157	181,157	181,157	181,157
농지면적	26,000 (14.4)	31,973 (17.6)	30,180 (16.7)	44,777 (24.7)	44,477 (24.7)	44,877 (24.8)
관개수리면적	4,301 (16.5)	4,410 (13.8)	4,687 (15.5)	4,815 (10.8)	4,815 (10.8)	4,815 (10.8)

주: ( ) 안은 총면적 대비 비율임.

자료: http://faosta.fao.org/faostat

표 5-2. 농가 및 농업인구 현황

단위: 백만명, %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총 인 구	147.5	179.4	194.8	210.5	214.3	217.1
농가인구	114.5 (77.6)	123.9 (69.1)	124.5 (63.9)	125.9 (59.8)	124.8 (58.2)	123.4 (56.8)
농업인구	80.5 (54.6)	92.7 (51.7)	93.7 (48.1)	93.3 (44.3)	93.1 (43.4)	92.9 (42.8)

주: ( ) 안은 총인구 대비 비율.

자료: http://faosta.fao.org/faostat

또한 총인구에서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편이다. 2003년 현재 총인구에서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3%이다. 전체 노동력 중 농업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도 1980년 58%에서 2001년 48%로 감소하였지만 아직도 노동력의 절반 정도가 농업부분에 취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경면적당 총인구는 1978-81년 8명에서 2000년 10명으로 늘어나, 토지에 대한 인구압력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3>. 가경면적 ha당 질소비료 사용량은 1979-81년 64kg에서 2000년 121kg으로 거의 두 배나 증가하였다. 농기계화 정도를 나타내는 가경면적 1,000ha당 트랙터 대수는 1979-81년 0.5대에서 2000년에는 3.4대로 늘어났다. 그러나 농약사용량이나 농기계화 정도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5-3. 인도네시아의 농업투입 추이

구 분	단 위	1979-81	1989-91	1998	1999	2000
인구수	명/ha	8 (19)	9 (22)	11 (27)	11 (27)	10 (27)
질소질비료 투여량	kg/ha	64 (392)	122 (489)	146 (508)	131 (476)	121 (455)
트랙터대수	대/1000ha	0.5 (1.4)	1.5 (21.4)	3.7 (92.4)	3.6 (103.7)	3.4 (111.5)

주: ( )는 한국 수치임.
자료: FAOSTAT.

1.2. 농업생산

농업생산지수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의 농업생산은 198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동아시아에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이후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1998년과 1999년에는 1997년에 비해 오히려 농업생산이 감소하였으며, 2000년에 들어서야 농업생산이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1980년 이후 인도네시아의 농업생산 증가는 식량작물, 비식량작물, 축산물 등 모든 분야의 생산증가에 기인하고 있으나, 특히 식량작물보다는 비식량작물이나 축산물의 생산증가가 두드러진다. 1999-2001년을 100으로 할 때, 2003년 식량작물생산지수는 101인데 비해, 비식량작물과 축산물 생산지수는 각각 106.9와 108.8이다<표 5-4>.

인도네시아가 생산하는 주요 농작물은 쌀, 카사바, 옥수수, 팜유, 커피, 고무 등이다. 자바섬을 중심으로 쌀, 옥수수 등 곡물 중심의 소규모 영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마트라와 여타 섬을 중심으로 팜유, 커피, 고무 등 대규모 상업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적도선이 국토의 중심부를 통과하고 있어 인도네시아의 기후는 열대성 기후를 띠고 있으며, 연중 고온다습하여 벼의 2-3회 다모작이 가능하다. <표 5-5>는 FAO자료로서 생산액이 많은 순으로 인도네시아 20대 농산물과 생산량을 정리한 것이다. 2003년 상위 10위 농산물은 쌀, 팜유, 코코넛, 옥수수, 카사바, 닭고기, 천연고무, 계란, 쇠고기, 돼지고기 등이다.

인도네시아는 1968년 이후 실시된 사회경제개발 계획 중 농업분야의 중점과제로 기초식량인 쌀의 안정적 공급과 증산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인구에 비해 부족한 곡물재배면적으로 인해 풍흉에 따라 연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쌀, 콩, 옥수수, 밀 등 곡물류는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네시아의 기초 식량인 쌀은 1984년도에

표 5-4. 농업 생산지수 변화추이, 1999-01=10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총농업생산지수	50.8	64.9	80.3	99.2	101.4	101.2	106.0
식 량	56.6	73.6	86.9	96.6	101.7	98.8	101
비식량	60.4	72.2	84.1	92.3	102.4	100.0	106.9
축산물	42.8	61.4	82.0	105.7	101.2	106.4	108.8

자료: http://faostat.fao.org/faostat/

표 5-5. 연도별 인도네시아의 20대 농산물

단위: 1,000M/T

순위	1990		1995		2000		2003	
	품목	생산량	품목	생산량	품목	생산량	품목	생산량
1	쌀	45,179	쌀	49,744	쌀	51,898	쌀	52,079
2	코코넛	12,120	코코넛	14,318	코코넛	15,120	팜유	10,200
3	카사바	15,830	닭고기	854	옥수수	9,677	코코넛	15,630
4	옥수수	6,734	카사바	15,441	팜유	7,276	옥수수	10,910
5	돼지고기	553	옥수수	8,246	카사바	16,089	카사바	18,474
6	천연고무	1,275	돼지고기	581	닭고기	817	닭고기	947
7	닭고기	499	천연고무	1,532	천연고무	1,610	천연고무	1,792
8	쇠고기	257	팜유	4,480	쇠고기	278	계란	790
9	땅콩	1,142	기타 열대과일	3,371	계란	642	쇠고기	318
10	사탕수수	27,980	쇠고기	262	커피	625	돼지고기	491
11	팜유	2,413	바나나	3,805	돼지고기	431	커피	702
12	커피	413	계란	582	바나나	3,747	바나나	4,312
13	건조콩	700	고추	1,590	땅콩	1,292	사탕수수	25,600
14	바나나	2,411	땅콩	1,085	사탕수수	23,900	땅콩	1,377
15	계란	364	사탕수수	28,999	기타 열대과일	1,600	기타 열대과일	1,700
16	대두	1,487	완두콩	1,110	코코아두	466	코코아두	426
17	기타 열대과실	1,700	커피	457,801	완두콩	716	고추	553
18	담배	156	대두	1,680	고추	728	완두콩	620
19	차	156	건조콩	500	대두	1,018	정향나무	88
20	정향나무	67	정향나무	90	차	163	차	159

자료: http://www.fao.org/es/ess/top

자급자족 목표달성을 선언한 이후 원칙적으로 자급률 수준의 국내 생산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가뭄, 홍수 등 기상재해 발생으로 쌀 수확량이 줄어드는 흉작연도의 경우 미얀마, 태국 등 인접국가로부터 대량 수입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2002년에도 인도네시아는 200만톤 가량의 쌀을 수입한 바 있다. 대두와 옥수수의 경우 매년

생산량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가축사료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매년 수십만톤 정도를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쌀을 포함한 곡물류의 수출 여력이 별로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과일 채소 등 원예작물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으나 원예작물에 대한 생산기술 및 유통체계가 미흡하여 증가세가 크지는 않은 편이다. 이에 반해 인도네시아는 팜유, 코코넛, 커피 등 열대작물의 주요 생산국이며, 이들 작물은 인도네시아 농민의 주요한 소득 작물로 외화 획득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팜유와 팜커널오일(Palmkernel Oil)은 2002년에도 각각 700만톤, 70만톤이 수출되어 향후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와 FTA 협상이 주목해야 될 품목이다.

우유, 소, 닭, 돼지 등 축산물의 경우 생산 및 사육두수가 199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액면에서 볼 때 닭고기, 계란, 쇠고기, 돼지고기 순으로 중요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수천 톤 규모의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수출할 뿐, 대량의 축산물을 수출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1.3. 농산물 소비

지난 20여년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소득증가에 따라 곡물, 유지작물, 채소, 과일, 육류 등 모든 분야에 대한 농산물 소비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연간 400kg에도 못 미치는 1인당 평균 식량 소비량은 향후 인도네시아에서 농산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곡물의 소비량이 200kg을 넘을 정도로 아직도 쌀, 밀, 대두 등 곡물류가 인도네시아의 식생활을 지배하고 있다. 육류, 채소, 과일류의 소비증가추세는 인도네시아 국민의 식관습 패턴의 다변화와 소득향

상을 반영하고 있으나 아직도 국제 기준으로 볼 때, 이들 품목에 대한 소비량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편 주요 농산물의 국내 자급률 면에서 과일류와 어류는 자급률이 100%이상이나 곡물, 유지작물, 채소, 육류, 우유는 국내생산만으로 국내소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말레이시아

2.1. 농업개황

말레이시아는 전 국토의 70%가 열대우림으로 덮여 있으며, 말레이 반도의 남부와 보르네오섬 북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말레이시아의 국토면적은 약 3천 3백만 ha로 우리나라(남한)의 3.3배 정도이다 <표 5-7>. 2002년 현재 말레이시아 농경지 면적은 790만 ha로 전 국토면적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 총 농경지 면적 중 4.6%만이 관계수리면적으로 강우량 등 기후 변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농업 하부구조가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표 5-6. 식품소비량과 식량자급률 변화추이

단위: kg, %

	1인당 연간 소비량(kg)						자 급 율(%)					
	1980	1985	1990	1995	2000	2002	1980	1985	1990	1995	2000	2002
곡물	154.4	166.3	185.5	202.2	204.8	203.1	92.8	97.2	95.3	86.5	86.1	84.2
유지작물	18.0	28.5	34.3	53.9	34.6	43.7	109.6	97.7	96.4	96.1	92.4	95.3
채소류	15.6	17.7	22.0	30.0	27.6	27.9	96.6	100.2	100.5	99.8	96.8	96.3
과일류	25.9	26.7	28.4	40.3	32.1	36.0	99.3	99.3	101.5	104.6	101.2	100.5
육류	4.5	6.3	8.0	9.7	7.9	8.2	99.7	99.8	99.5	99.4	96.9	99.7
우유	7.0	5.6	4.0	7.4	7.6	7.8	22.1	41.5	75.7	47.4	46.0	45.5
어류	11.8	13.5	14.7	17.3	19.5	20.8	99.8	96.3	105.0	100.3	106.4	100.8

자료: http://apps.fao.org/faostat

표 5-7. 농지이용 현황

단위: 천ha, %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총면적	32,855	32,855	32,855	32,855	32,855	32,855
농지면적	4,800 (14.6)	6,900 (21.0)	7,604 (23.1)	7,890 (24.0)	7,870 (24.0)	7,870 (24.0)
관계수리면적	320 (6.7)	335 (4.9)	363 (4.8)	365 (4.6)	365 (4.6)	365 (4.6)

주: 농지면적중 ( )안은 총면적대비, 관계수리면적 비율은 농지면적대비 비율.
자료: http://faosta.fao.org/faostat

농업 관개시설의 확충과 농촌지역 하부구조 개선 등 농업근대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새로이 개간 혹은 간척되는 국토의 일부를 농경지로 지정하는 방식을 통해 곡물재배 면적을 확대해 왔다. 이를 통해 농업용 토지가 1990년대 중반까지 크게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1995년 이후 군사용, 공업용, 주택용 등 다른 분야의 토지수요 증대로 인한 농지전용 확대로 인해 최근에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인구는 2002년 기준 2,400만명 수준이고, 그 중 농가인구는 99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1%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표 5-8>. 전체 인구에서 농가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이후 정체 내지 소폭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아직도 말레이시아는 전체인구에서 농촌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또한 총인구에서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39%에서 2000년 16%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전체 노동력 중에서 농업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41%에서 2001년 18%로 ASEAN의 다른 회원국에 비해 농업노동력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

<표 5-9>는 말레이시아의 농업투입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농지 ha당 인구수는 12명으로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수준이다. ha당 질소질

표 5-8. 농가 및 농업인구 현황

단위: 백만명, %

	1980	1990	1995	2000	2001	2002
총인구	13.9	18.1	20.7	23.0	23.5	24.0
농가인구	8.7 (62.5)	8.2 (45.3)	9.4 (45.3)	9.8 (38.3)	9.8 (38.3)	9.9 (41.3)
농업인구	5.4 (38.8)	4.6 (25.4)	4.4 (21.3)	4.1 (17.8)	4.0 (17.0)	3.9 (16.3)

주: ( )는 총인구대비 비중임.

자료: http://faosta.fao.org/faostat

표 5-9. 말레이시아의 농업투입 추이

구 분	단위	1979-81	1989-91	1998	1999	2000
인구수	명/ha	14 (19)	10 (22)	12 (27)	12 (27)	12 (27)
질소질비료 투여량	kg/ha	427 (392)	538 (489)	773 (508)	796 (476)	785 (455)
트랙터대수	대/1000ha	7.7 (1.4)	15.3 (21.4)	23.8 (92.4)	23.8 (103.7)	23.8 (111.5)

주: ( )는 한국 수치임.

자료: FAOSTAT.

비료 투입량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a당 질소질 비료 투입량이 1980년 427kg에서 2000년 785kg으로 증가하였다. 1,000ha당 트랙터 대수는 1979-81년 7.7대에서 2000년 23.8대로 증가하여 베트남 다음으로 기계화 수준이 높다.

2.2. 농업생산

말레이시아 농업생산은 주로 반도지역의 중앙산맥, 빈탄산맥을 끼고 있는 연안 및 반도 남부의 평야지대, 보르네오 섬의 북부 연안의 평야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말레이시아가 생산하는 주요 농산물은 고온 다습한 열대 우림 기후적 특성으로 인해 팜유, 천연고무, 코

코아 등 열대농작물과, 쌀, 코코넛, 사탕수수, 파인애플 및 열대과실, 원목과 제재목 등 목재류 중심이다. 농업생산지수 측면에서의 말레이시아의 농업생산은 198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식량작물과 축산물 생산이 농업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1980년부터 2002년까지 축산물의 생산지수는 3배 이상 증가하고 식량도 다소 증가하였으나 비식량작물의 생산지수는 같은 기간 동안 크게 줄어들었다. 1999-2001년을 기준으로 할 때, 식량작물의 생산은 대략 0.2%, 축산물은 8.1% 성장한 반면 비식량작물은 5% 가까이 감소하였다. 이는 말레이시아의 전통적 대규모 농작물인 고무, 카카오 등 열대 플랜테이션 작목의 생산감소 및 가격하락과 채소, 과일, 축산 등 여타 경제작물로의 생산전환에 기인한다.

<표 5-11>은 생산액면에서의 말레시아 20대 농산물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03년 현재 말레이시아의 10대 농산물은 팜유, 닭고기, 계란, 쌀, 천연고무, 팜커널, 돼지고기, 오리고기, 코코넛, 바나나 등이다. 최근 계속적인 가격 상승으로 팜유 생산량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통적인 농장 작물인 천연고무, 코코넛 등의 생산은 정체 내지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가 팜유와 팜커널을 대량으로 수출하고 있어, 향후 ASEAN과 FTA 추진 시 주시 품목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과실류와 채소류가 대규모 열대 농작물을 대체할 유망품목으로 대두되어 최근 기업단위의 투자와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표 5-10. 농업 생산지수 변화추이, 1999-01=10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총농업생산지수	47.3	57.0	74.9	88.0	98.6	103.6	105.0
식 량	96.4	82.7	89.5	101.2	102.5	100.3	100.2
비식량	214.2	206.7	182.5	156.0	96.3	87.4	95.0
축산물	28.8	43.0	70.1	105.2	99.3	100.7	108.1

자료: http://faosta.fao.org/faostat

표 5-11. 연도별 말레이시아의 주요 농산물

단위: 1,000M/T

순위	1990		1995		2000		2003	
	품목	생산량	품목	생산량	품목	생산량	품목	생산량
1	팜유	6,095	팜유	7,811	팜유	10,842	팜유	13,354
2	천연고무	1,292	닭고기	705	닭고기	772	닭고기	820
3	닭고기	384	천연고무	1,089	쌀	2,141	계란	477
4	돼지고기	274	돼지고기	351	계란	391	쌀	2,145
5	쌀	1,885	쌀	2,127	천연고무	615	천연고무	589
6	계란	292	계란	355	팜커널	3,163	팜커널	3,550
7	코코아두	247	팜커널	2,396	돼지고기	160	돼지고기	233
8	팜커널	1,845	코코넛	1,024	오리고기	66	오리고기	68
9	코코넛	1,134	오리고기	55	바나나	540	코코넛	740
10	바나나	505	코코아두	131	코코넛	734	바나나	500
11	후추	31	바나나	530	후추	25	후추	33
12	오리고기	36	기타 열대과일	240	코코아두	70	기타 열대과일	220
13	기타 열대과일	250	기타 채소	250	기타 열대과일	220	기타 채소	240
14	파인애플	213	기타 채유종자	108	기타 채소	250	기타 채유종자	120
15	기타채소	189	후추	16	기타 채유종자	120	코코아두	48
16	카사바	410	카사바	440	사탕수수	1,600	사탕수수	1,600
17	기타 채유종자	80	파인애플	220	카사바	380	쇠고기	9
18	사탕수수	1,300	사탕수수	1,601	쇠고기	7	카사바	370
19	쇠고기	8	쇠고기	11	커피	40	커피	39
20	잎담배	10	수박	135	파인애플	249	잎담배	12

자료: http://faosta.fao.org/faostat

있다. 과일 중에는 바나나와 파인애플이 수 만톤 정도 수출되나 생산량 중 수출비중은 높지 않다. 또한 소득수준 향상과 수요 증대에 따라 최근에는 낙농품, 쇠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과 수산물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육류 중에는 2002년 닭고기가 14,000톤 수출되었을 뿐 쇠고기, 돼

지고기 등은 국내생산이 부족하여 주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말레이시아에서 쌀은 주로 8대 곡창지대에서 생산되며, 정부의 쌀 증산을 위한 가격지지, 관개시설 확충 등 정책적 노력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는 소맥, 옥수수, 대두의 국내 수급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02년의 경우 쌀도 50만톤 이상을 수입하여 곡물에 관한 한, 수출여력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2.3. 농산물 소비

198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과 소득증가로 1인당 연간 식품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와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최근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곡물의 소비량이 전체 식품소비량의 약 37%로 쌀, 밀, 옥수수, 대두 등 곡물류가 말레이시아의 식생활을 지배하고 있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를 중심으로 한 연간 소비량과 바나나, 파인애플 등 1인당 과실소비량은 국제 기준으로도 거의 포화 상태인 반면에 채소류 소비량은 매우 적은 편이다. 육류, 어류, 수산물의 소비량 증가추세는 말레이시아 국민의 식관습 패턴의 다변화와 소득향상을 반영하고 있다. 다만 향후 말레이지아의 지속적 경제발전과 소득증대는 쇠고기를 중심으로 한 축산 및 낙농품, 사과 등 온대과실, 양파 등 채소류 등의 수요증가 가능성을 고려할 때 아직도 이들 식품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전통적으로 말레이시아는 주로 고무, 목재 등 비식량 농산물을 대량 생산하여 수출하는 국가로서 대부분의 식량작물의 국내 자급률은 낮은 편이다. 자급률 측면에서 거의 모든 농산물에서 국내 생산만으로 국내 소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과거 자급되던 유지작물과 과실류의 경우도 자급율이 100%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다.

표 5-12. 식품소비량과 식량 자급률 변화추이

단위: kg, %

	1인당 연간 소비량(kg)						자 급 률(%)					
	1980	1985	1990	1995	2000	2002	1980	1985	1990	1995	2000	2002
곡물	146.9	121.1	121.4	127.3	148.4	156.4	48.1	36.9	32.1	27.4	25.1	21.8
유지작물	16..9	16.6	16.8	17.2	16.2	16.2	100.8	98.5	94.9	92.4	89.2	83.4
채소류	25.1	24.0	23.5	33.3	28.0	37.6	86.4	68.9	76.4	71.6	69.5	51.8
과일류	51.0	47.7	49.2	52.4	50.1	51.8	114.5	112.8	109.4	94.1	85.3	82.7
육류	23.4	29.4	37.9	53.7	51.1	48.5	90.7	89.2	90.3	91.5	93.5	85.4
우유	42.5	39.5	42.4	61.9	52.7	49.0	6.1	4.5	4.7	3.3	3.5	3.5
어류	42.8	44.5	48.0	56.3	57.9	57.0	42.8	77.4	87.9	89.7	87.5	88.9

자료: FAOSTAT DATABASE COLLECTIONS, Food Balance Sheet.

3. 필리핀

3.1. 농업개황

필리핀은 7,000개 이상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도국가이며, 고온다습한 아열대성 기후를 가지고 있다. 필리핀의 국토면적은 약 3,000만 ha로 우리나라의 약 3배 정도이다<표5-13>. 필리핀의 농지면적은 2002년 기준으로 대략 1,220만 ha로서 국토면적의 40%가량을 차지한다. 총 농지면적 중 12.7%만이 관개수리 면적으로 여타의 동남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농업하부구조가 낙후되어 있다. 농지면적은 개간과 간척을 통해 꾸준히 조금씩 증가하여 지난 22년 동안 257만 ha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필리핀의 주곡인 쌀 산업발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1980년대까지 관개시설 확충 등 농업하부구조개선 노력이 이루어져 왔으나 1990년대 이후 농업에 대한 투자 감소로 농업 하부구조개선에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5-13. 농지이용 현황

단위: 천ha, %

	1980	1990	1995	2000	2001	2002
총면적	29,817	29,817	29,817	29,817	29,817	29,817
농지면적	9,628 (32.3)	9,880 (33.1)	9,900 (33.2)	12,150 (40.7)	12,200 (40.9)	12,200 (40.9)
관개수리면적	1,219 (12.7)	1,550 (15.7)	1,550 (15.7)	1,550 (12.8)	1,550 (12.7)	1,550 (12.7)

주: 농경지 면적중 ( )안은 총면적 대비 비율임.
자료: ESCAP Statistics Division『Asia and the Pacific in Figures 2001』.

표 5-14. 농가 및 농업인구 현황

단위 : 백만명, %

	1980	1990	1995	2000	2001	2002
총인구	48.3	61.5	70.3	75.7	77.2	78.6
농가인구	30.3 (62.7)	35.2 (57.3)	32.3 (46.0)	31.4 (41.5)	31.3 (40.5)	31.3 (39.8)
농업인구	25.1 (51.9)	27.9 (45.4)	29.0 (41.3)	29.8 (39.4)	29.9 (38.7)	30.0 (38.2)

주: ( ) 안은 총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율.
자료:http://faosta.fao.org/faostat

표 5-15. 필리핀의 농업투입 추이

구 분	단위	1979-81	1989-91	1998	1999	2000
인구수	명/ha	9 (19)	11 (22)	13 (27)	13 (27)	14 (27)
질소질비료 투여량	kg/ha	64 (392)	95 (489)	114 (508)	134 (476)	132 (455)
트랙터대수	대/1000ha	2.0 (1.4)	1.9 (21.4)	2.1 (92.4)	2.1 (103.7)	2.1 (111.5)

주: ( )는 한국 수치임.
자료: FAOSTAT.

필리핀의 총인구는 2002년 기준으로 약 7,860만명 수준이고, 그 중 농가인구는 계속 감소추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3,100만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수준이다. 총인구에서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2002년 기준으로 농업인구가 전체인구의 38%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농업부문은 아직도 필리핀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총노동력중에서 농업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52%에서 2001년에는 39%로 감소하였다.

필리핀의 농지 ha당 인구수는 1979-81년 9명에서 2000년에는 14명으로 늘어나 필리핀은 ASEAN 국가 중 베트남과 함께 토지에 대한 인구압력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로 분류된다. ha당 질소질 비료의 투입량은 1979-81년 64kg에서 2000년 132kg로 늘어났지만 우리 나라는 물론 말레이시아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1,000ha당 트랙터 대수로 본 필리핀의 농기계화 정도는 분석 대상 ASEAN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00년의 경우 1,000ha당 2.1대의 트랙터만이 있을 뿐이다.

3.2. 농업생산

필리핀의 주요 농산물은 쌀, 옥수수 등 국내소비용 식량작물과 기후특성으로 풍부하게 생산되는 코코넛, 사탕수수, 커피, 바나나, 파인애플 등 수출용 작물로 구분된다. 주곡인 쌀 산업이 농업전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이상인 주요 기간 작목이며, 옥수수 또한 쌀에 대한 대체 식량작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농업생산지수 측면에서 필리핀의 농업생산은 1980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식량작물과 축산물생산이 농업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축산물의 생산은 1980년부터 2002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하였다<표 5-16>. 반면에 비식량작물의 생산은 2000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필리핀의 전통적 수출 농산물인 커피, 원목의 생산 및 수출감소, 가격하락, 그리고 채소, 축산 등 여타 경제작물로의 생산전환에 기인한다.

표 5-16. 농업 생산지수 변화추이, 1999-01=10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총농업생산지수	67.9	68.4	80.4	86.4	99.7	104.2	109.0
식 량	62.3	73.3	84.2	86.3	100.0	103.9	105.3
비식량	86.9	120.4	128.4	111.2	99.4	103.0	102.6
축산물	46.0	40.3	60.8	74.9	99.4	105.6	119.3

자료: http://faosta.fao.org/faostat

표 5-17. 연도별 필리핀의 주요 농산물 생산현황

단위: 1,000M/T

순위	1990		1995		2000		2002	
	품목	생산량	품목	생산량	품목	생산량	품목	생산량
1	쌀	9,885	쌀	10,541	쌀	12,389	쌀	14,031
2	코코넛	11,023	코코넛	12,183	코코넛	12,995	돼지고기	1,386
3	돼지고기	684	돼지고기	805	돼지고기	1,008	코코넛	13,700
4	기타 열대과일	3,455	기타 열대과일	3,045	바나나	4,930	바나나	5,500
5	옥수수	4,854	기타채소	3,700	기타 채소	4,100	닭고기	633
6	기타 채소	3,500	바나나	3,499	닭고기	532	기타 채소	4,300
7	바나나	2,913	옥수수	4,161	기타 열대과일	2,900	기타 열대과일	3,300
8	사탕수수	25,482	닭고기	397	옥수수	4,511	옥수수	4,478
9	달걀	319	사탕수수	24,590	달걀	445	달걀	500
10	닭고기	228	달걀	368	사탕수수	24,491	사탕수수	25,835
11	쇠고기	78	파인애플	1,443	쇠고기	143	쇠고기	152
12	파인애플	1,156	쇠고기	67	파인애플	1,560	파인애플	1,650
13	커피	134	카사바	1,906	망고	848	망고	890
14	카사바	1,854	커피	134	커피	126	커피	110
15	잎담배	82	망고	594	카사바	1,766	카사바	1,400
16	망고	338	잎담배	64	버팔로고기	72	버팔로고기	76
17	달걀이외 알	54	달걀이외 알	62	담배잎	49	담배잎	51
18	염소고기	27	염소고기	30	달걀이외 알	73	달걀이외 알	75
19	고구마	669	버팔로고기	50	염소고기	34	염소고기	33
20	버팔로고기	43	고구마	668	고구마	554	고구마	530

자료: http://faosta.fao.org/faostat

<표 5-17>은 필리핀의 20대 농산물 현황이다. 2003년 현재 필리핀의 10대 농산물은 쌀, 돼지고기, 코코넛, 바나나, 닭고기, 기타채소, 기타열대과일, 옥수수, 달걀, 사탕수수 등이다. 이들 품목들은 대부분 생산량이 증가추세에 있으면서 1990년 이래 필리핀 농업에서 주요작목으로 자리잡아왔다.

필리핀에서 곡물류 중 쌀과 옥수수만이 재배될 뿐 밀, 보리, 콩 등은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유지작물 중에는 코코넛만이 연간 70만톤 가량이 수출될 뿐 나머지는 대부분 내수용으로 생산된다. 과일 중에서는 바나나와 파인애플이 생산량의 30% 이상이 수출되고 있어, 이들 품목은 향후 한국・ASEAN FTA 추진 시 필리핀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일 품목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3.3. 농산물 소비

필리핀 국민의 1인당 연간 소비량에서 쌀, 옥수수, 밀 등 곡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6% 가량으로 아직도 전체 식품소비에서 곡물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필리핀에서 1인당 연간 식품 소비의 절대량은 지난 20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주요 품목군별로 식품소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유지작물, 육류, 우유 등 낙농품의 소비량이 증대한 반면 채소, 과일, 어류의 소비량은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곡물류 소비는 거의 정체상태이다. 육류와 우유 등 낙농품의 소비증가는 소득 증가와 식품소비패턴의 다양화로 해석되며, 과실 소비감소는 바나나, 망고 등 열대과실의 생산과잉으로 과실 1인당 소비량이 이미 거의 포화 상태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채소류 소비수준은 국제기준으로 볼 때 낮은 편이나 국내 생산체계의 미비로 소비량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향후 필리핀의 지속적 경제발전과 소득증대에 따라 축산 및 낙농품, 온대과실, 채소류의 잠재적 수요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5-18. 식품소비량과 식량자급률 변화추이

단위: kg, %

	1인당 연간 소비량(kg)						식량 자급률(%)					
	1980	1985	1990	1995	2000	2002	1980	1985	1990	1995	2000	2002
곡물	133.9	134.7	143.3	136.8	134.6	134.8	88.1	89.5	88.5	78.2	81.7	78.7
유지작물	3.1	3.9	4.8	5.1	4.8	4.8	119.3	131.1	105.2	88.6	93.4	110.3
채소류	68.5	65.0	65.6	61.6	61.6	62.4	99.9	100.0	99.7	100.1	98.2	98.2
과일류	117.5	113.6	103.4	94.4	98.8	104.9	123.8	119.5	119.6	124.8	125.3	123.8
육류	16.6	13.0	18.1	21.6	26.8	31.2	99.1	99.6	98.6	95.9	92.4	93.5
우유	19.8	13.9	20.8	22.0	22.6	17.6	3.1	4.3	1.6	0.8	0.6	0.8
어류	31.9	33.0	36.3	32.4	29.6	29.3	95.1	97.6	87.8	77.9	84.4	77.2

자료: FAOSTAT.

한편, 주요 식량작물의 국내 자급률 측면에서 볼 때, 유지작물과 과실류는 과잉생산 상태이나 채소류, 유지작물, 육류 등 대부분의 분야는 국내 생산만으로 국내 소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980년대 이전 자급되던 곡물류의 자급률이 100%이하로 떨어진 상황이다.

4. 태국

4.1. 농업개황

태국의 국토면적은 5,100만 ha로 우리나라의 5배에 달한다. 태국의 지형은 북부·북동부·중부·남부로 대별된다. 농경지 분포는 북동부 및 북부지역에 치우쳐 있는데, 북동부 지역이 전체 경작지역의 41%, 북부지역이 23%, 중서부 지역이 16%, 남부 등 기타지역이 20%를 차지하고 있다.

태국의 농경지 면적은 2,010만 ha로 전 국토 면적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농지면적 중 60%가량이 논이고, 25%가량이 밭이며 과수원 및 기타 농지가 나머지 15%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 하부구조개선 사

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관개수리면적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총 농경지 면적 중 25% 정도만이 관개수리 면적이다.

태국의 인구는 2002년 기준 약 6,220만명 수준이고, 그 중 농가인구는 약 4,970만명 수준으로 전체 인구의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인구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이래 80% 수준에서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다. 2002년 총인구 중 농업인구의 비중도 47.3%로 다른 ASEAN 회원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총노동력 중 농업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71%에서 2001년 56%로 감소하였지만, 태국은 아직도 고용인구의 절반 이상이 농업부분이 흡수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기반국가라고 할 수 있다.

표 5-19. 농지이용 현황

단위: 천ha, %

	1980	1990	1995	2000	2001	2002
총면적	51,089	51,089	51,089	51,089	51,089	51,089
농지면적	18,298 (35.8)	20,603 (40.3)	20,410 (39.9)	20,045 (39.2)	20,120 (39.4)	20,167 (39.5)
관개수리면적	3,015 (16.5)	4,238 (20.6)	4,590 (22.5)	4,998 (24.9)	4,924 (24.5)	4,957 (24.6)

주: ( ) 안은 총면적 대비 비율임.

자료: FAO, FAOSTAT DATABASE COLLECTIONS, Land Use.

표 5-20. 농가 및 농업인구 현황

단위: 백만 명, %

	1980	1990	1995	2000	2001	2002
총인구	47.0	56.3	59.3	60.9	61.6	62.2
농가인구	38.6 (82.9)	45.8 (81.3)	48.4 (81.7)	48.8 (80.1)	49.3 (80.0)	49.7 (79.9)
농업인구	29.8 (63.4)	30.9 (54.9)	30.6 (51.6)	29.8 (48.9)	29.7 (48.2)	29.4 (47.3)

주: ( )안 총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율임.
경제활동인구 및 농업종사자 자료에서 1980년도는 11세 이상 80년 이후는 13세 이상임.

자료: FAO, FAOSTAT DATABASE COLLECTIONS, Population.

표 5-21. 태국의 농업투입 추이

구 분	단 위	1979-81	1989-91	1998	1999	2000
인구수	명/ha	3 (19)	3 (22)	4 (27)	4 (27)	4 (27)
질소질비료 투여량	kg/ha	18 (392)	54 (489)	109 (508)	119 (476)	105 (455)
트랙터 대수	대/1000ha	1.1 (1.4)	3.3 (21.4)	14.7 (92.4)	15.0 (103.7)	15.0 (111.5)

주: ( )는 한국 수치임.
자료: FAOSTAT.

농지 ha당 총인구수면에서 볼 때 태국은 상대적으로 토지에 대한 인구 압력이 낮은 국가로 분류된다. 대부분의 다른 회원국이 ha당 인구수가 10명이 넘지만 태국은 4명 내외이다. 이는 농업생산이 본궤도에 오르면 그만큼 수출여력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비료와 농약 등 투입재 투입정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2. 농업생산

태국의 농업생산 분포는 지역별로 매우 다양하다. 우선 캐어어스와 프라야강 중앙 지대는 인디카쌀, 담배, 사탕수수, 파인애플 등의 열대 작물 및 축산, 낙농품의 주 생산지이며, 파인애플, 팜유, 고무나무 및 양식산업은 남부지역에서, 담배, 콩, 옥수수, 타피오카, 자포니카쌀 등의 대부분은 북부 및 북동부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특히 중부와 북동부의 옥수수, 남동부의 카사바, 남부의 고무, 중부의 사탕수수, 중부와 북동부의 쌀은 태국의 주요 수출 농작물로 외화 획득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 해당품목의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농업생산지수 측면에서 볼 때, 태국의 농업생산은 1980년 이후 식

량작물, 비식량작물, 축산물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비식량작물과 축산물의 생산이 식량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99-2001년을 100으로 할 때, 식량작물의 생산은 1.4%, 비식량작물은 2.8%, 축산물은 12.7%가 성장하였다.

태국의 주요 생산 농산물은 사탕수수, 고무, 커피, 담배 등 열대작물, 쌀, 옥수수, 매니옥, 타피오카 등 곡물류, 파인애플, 바나나, 야자열매 등 열대과실로 생산량의 상당부분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특히 수출량이 많은 품목으로 곡물중에는 쌀(750만톤), 근류작물로 카사바(1,133만톤), 과일로는 파인애플(91만톤), 바나나(20만톤), 사과(10만톤) 등이다.

<표 5-23>은 생산액 크기별 태국의 20대 농산물을 열거한 것이다. 2003년 현재 태국의 10대 농산물은 쌀, 닭고기, 천연고무, 카사바, 사탕수수, 돼지고기, 옥수수, 달걀, 쇠고기, 망고 등이다. 특히 닭고기는 태국에서 쌀 다음으로 생산액이 많은 품목으로 연간 120만 톤 가량이 생산되어, 태국은 ASEAN 회원국 중 닭고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이다. 또한 닭고기는 태국에서 1990-2000년간 연평균 7.5%가 성장하였는데 이는 내수보다는 수출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2002년의 경우 필리핀은 약 50만톤의 닭고기를 수출한 바 있다. 반면 쇠고기와 양고기 생산은 연평균 4% 이상 감소하였다.

표 5-22. 농업 생산지수 변화추이, 1999-01=10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총농업생산지수	64.6	75.2	76.7	91.7	99.6	104.9	105.5
식 량	67.7	82.5	68.6	86.9	101.3	103.8	101.4
비식량	39.4	49.8	72.0	90.9	101.8	103.8	102.8
축산물	49.6	62.4	75.2	98.9	97.6	107.6	112.7

자료: http://faosta.fao.org/faostat

표 5-23. 연도별 태국의 주요 농산물 생산 동향

단위: 1,000M/T

	1990		1995		2000		2004	
순위	품목	생산량	품목	생산량	품목	생산량	품목	생산량
1	쌀	9,885	쌀	22,016	쌀	25,844	쌀	27,000
2	코코넛	11,023	닭고기	909	닭고기	1,097	닭고기	1,233
3	돼지고기	684	카사바	16,217	카사바	19,064	천연고무	2,615
4	기타 열대과일	3,455	천연고무	2,061	천연고무	2,378	카사바	18,430
5	옥수수	4,854	사탕수수	54,323	사탕수수	49,563	사탕수수	64,408
6	기타 채소	3,500	돼지고기	489	돼지고기	475	돼지고기	642
7	바나나	2,913	쇠고기	256	옥수수	4,462	옥수수	4,500
8	사탕수수	25,482	옥수수	4,155	달걀	515	달걀	500
9	달걀	319	달걀	499	쇠고기	150	쇠고기	197
10	닭고기	228	파인애플	2,088	망고	1,633	망고	1,750
11	쇠고기	78	바나나	1,750	파인애플	2,248	달걀이외의 알	304
12	파인애플	1,156	달걀이외의 알	260	달걀이외의 알	293	바나나	1,800
13	커피	134	망고	1,200	바나나	1,750	파인애플	1,700
14	카사바	1,854	감귤류	650	감귤류	650	감귤류	668
15	담배잎	82	기타채소	1,000	오리고기	102	우유	620
16	망고	338	오리고기	96	기타 채소	970	기타 채소	977
17	달걀이외의 알	54	코코넛	1,413	코코넛	1,400	코코넛	1,420
18	염소고기	27	기타 열대과일	705	기타 열대과일	705	오리고기	63
19	고구마	669	건조콩	234	우유	520	기타열대과일	720
20	버팔로고기	43	버팔로고기	106	건조콩	226	건조콩	250

자료: http://faosta.fao.org/faostat

4.3. 농산물소비

태국 국민의 1인당 연간 소비량에서 쌀, 옥수수, 밀 등 곡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로 아직도 곡물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

으나 주요 품목군별로 식품소비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 우선 1980년부터 2002년까지 유지작물, 육류, 우유 등 낙농품과 어류의 소비량이 증대한 반면 곡물, 채소, 과일의 소비량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육류와 우유 등 낙농품과 어류의 소비량 증가는 소득 증가와 식품소비 패턴의 다양화로 이해된다.

과실 소비감소는 필리핀처럼 파인애플, 바나나, 야자열매 등 열대과실의 생산과잉으로 과실 1인당 소비량이 거의 포화 상태였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채소류 소비 감소는 국내 생산체계의 미비와 인구증가로 1인당 소비량이 적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인당 채소 소비량은 국제기준으로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향후 태국의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증가에 따라 육류, 우유, 채소류의 잠재적 수요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주요 농작물의 국내 자급률을 보면 우유와 유지작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100% 이상의 자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쌀, 옥수수 등 곡물류의 자급률은 150% 이상이다.

5. 베트남

5.1. 농업개황

인도지나반도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베트남의 국토면적은 약 3,300만 ha로 우리나라의 3.3배에 해당한다. 전 국토의 4분의 3이 산악, 구릉, 고원지대이며, 북쪽은 높고 남쪽은 낮은 북고 남저의 지형을 띠고 있다. 농경지면적은 전 국토의 29%를 차지하는 954만 ha이다. 베트남의 농경지 면적은 황무지개간과 간척사업 등 정부의 경지면적 확대 노력으로 1980년 660만 ha수준에서 2002년 954만 ha로 매

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농지의 상당부분이 생산력이 낮은 산악, 구릉 및 고원지역에 분포하나 북부지역의 홍화강 및 남부지역의 메콩강 삼각지(delta)의 경우 농업에 적합한 비옥한 평야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전체 농지 중 관개수리면적은 31% 수준으로 동남아 인접국에 비해 하부구조개선에 비교적 높은 투자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총 농지의 80% 이상이 주곡인 쌀 생산을 위한 벼농사 경작지로 태국에 이어 최근 세계 제 2위의 쌀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베트남의 총인구는 약 8,000만명이며, 그 중 농가인구는 6,000만명 수준으로 전체 인구의 75%가량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총인구 중

표 5-24. 식품소비량과 식량자급률 변화추이

단위:kg, %

	1인당 연간 소비량						자 급 률					
	1980	1985	1990	1995	2000	2002	1980	1985	1990	1995	2000	2002
곡물	153.4	139.7	120.5	123.1	125.8	122.3	154.9	185.8	142.4	138.4	143.3	151.4
유지작물	12.0	20.7	21.6	16.9	18.7	19.1	100.5	104.8	100.6	92.0	73.0	70.8
채소류	53.8	42.6	37.4	39.8	37.1	42.1	100.7	103.7	110.2	113.4	112.2	111.0
과일류	138.3	97.6	88.0	93.7	89.4	87.8	103.5	106.7	117.9	117.4	125.8	132.5
육류	18.9	22.2	21.3	27.8	24.3	26.4	102.2	103.9	21.3	111.3	123.1	131.1
우유	7.8	9.3	13.6	23.9	21.1	18.8	4.7	11.7	16.4	21.6	36.9	48.5
어류	18.3	20.9	20.3	32.0	28.7	30.9	153.9	135.8	121.5	100.6	115.1	110.6

자료: FAO, FAOSTAT DATABASE COLLECTIONS, Food Balance Sheet.

표 5-25. 농지이용 현황

단위: 천 ha, %

	1980	1990	1995	2000	2001	2002
총면적	32,549	32,549	32,549	32,549	32,549	32,549
농지면적	6,570 (20.2)	6,384 (19.6)	6,757 (20.8)	8,780 (27.0)	9,483 (29.1)	9,537 (29.3)
관개수리면적	1,700	2,900	3,000	3,000	3,000	3,000

주: ( ) 안은 총면적 대비 비율임.

자료: FAO, FAOSTAT DATABASE COLLECTIONS, Land Use.

농업인구 비중도 1980년 72.1%에 다소 줄어 2002년에는 66.5%로 되었으나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전체노동력 중 농업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73%에서 2001년 67%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다른 회원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1980년 이후 전체 인구에서 농가 및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인구비중은 거의 일정수준에서 변화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베트남 국민 경제의 성장과 고용안정을 위해 농업과 농촌경제의 활력 유지가 중요시되고 있다.

농지 ha당 인구수로 본 베트남의 토지에 대한 인구의 압력은 필리핀과 함께 매우 높게 나타났다. ha당 인구수가 1979-81년 9명에서 2000년 14명으로 늘어났다. ha당 질소질 투여량은 말레이시아보다는

표 5-26. 농가 및 농업인구 현황

단위: 백만 명, %

	1980	1990	1995	2000	2001	2002
총인구	53.7	66.2	72.0	78.1	79.2	80.3
농가인구	43.3 (80.7)	52.9 (79.9)	57.8 (80.3)	59.3 (75.9)	59.8 (75.5)	60.3 (75.1)
농업인구	38.7 (72.1)	47.0 (71.0)	50.5 (70.1)	52.6 (67.3)	53.0 (66.9)	53.4 (66.5)

주: ( ) 안은 총인구 대비 비율.

자료: http://faosta.fao.org/faostat

표 5-27. 베트남의 농업투입 추이

구 분	단위	1979-81	1989-91	1998	1999	2000
인구수	명/ha	9 (19)	12 (22)	13 (27)	13 (27)	14 (27)
질소질비료 투여량	kg/ha	30 (392)	118 (489)	322 (508)	339 (476)	365 (455)
트랙터대수	대/1000ha	3.8 (1.4)	5.1 (21.4)	21.3 (92.4)	25.4 (103.7)	28.3 (111.5)

주: ( )는 한국 수치임.

자료: FAOSTAT.

낮지만 과거 20년간 비료 투입량이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농기계화 수준은 분석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0년 베트남의 1,000ha 당 트랙터 대수는 28.3대이다.

5.2. 농업생산

베트남의 전체 농림수산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농업이 85%, 임업이 4%, 수산업이 11%가량이다. 특히 농업부문에서 쌀, 옥수수, 감자, 카사바, 커피, 고무, 차, 땅콩 등 작물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1%가량이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7%가량이다. 이외에도 망고,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등 아열대성 과실이 많이 재배되고 있다.

농업생산지수 측면에서 베트남의 농업생산은 198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의 농업생산은 식량작물, 비식량작물, 축산물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생산증가에 기인하고 있으나 식량작물과 축산물의 생산 증가추세가 현저함을 알 수 있다. 1999-2001년을 100으로 할 때, 2002년도 축산물은 16.2%, 식량작물과 비식량작물 생산은 각각 8.3%, 1.8% 증가하였다.

비식량작물 생산의 증가는 커피, 고무, 차, 사탕수수, 후추 등 수출상품의 재배 면적 증가에 기인한다. 농업부문의 성장은 베트남정부의 주요 정책 관심사항의 하나로, 최근 농업 및 농촌개발에 투자한

표 5-28. 농업 생산지수 변화추이, 1999-01=10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총농업생산지수	37.0	47.9	58.0	75.0	100.7	104.4	111.7
식 량	35.9	48.9	59.2	77.4	101.6	100.6	108.3
비식량	12.5	18.0	22.3	42.0	105.2	112.5	101.8
축산물	27.2	45.2	56.2	72.0	99.9	106.9	116.2

자료: http://faosta.fao.org/faostat

표 5-29. 주요 농산물 생산 동향

순위	1990		1995		2000		2004	
	품목	생산량	품목	생산량	품목	생산량	품목	생산량
1	쌀	19,225	쌀	24,964	쌀	32,530	쌀	34,519
2	돼지고기	728	돼지고기	1,010	돼지고기	1,410	돼지고기	1,800
3	기타채소	2,934	기타 신선채소	3,826	기타 신선채소	5,909	기타 신선채소	7,000
4	기타 과일	1,110	기타과일	1,750	커피	803	커피	771
5	바나나	1,221	커피	218	기타 신선과일	2,200	기타 신선과일	2,600
6	쇠고기	75	바나나	1,282	닭고기	294	닭고기	373
7	닭고기	130	쇠고기	83	사탕수수	15,044	Cashew Nuts	637
8	카사바	2,276	사탕수수	10,711	옥수수	2,006	옥수수	2,934
9	고구마	1,929	땅콩	335	쇠고기	92	카사바	5,229
10	Pimento, Allspice	64	닭고기	123	달걀	185	사탕수수	16,525
11	땅콩	213	카사바	2,212	Cashew Nuts	270	쇠고기	108
12	버팔로고기	89	Pimento, Allspice	74	땅콩	355	달걀	235
13	달걀	96	옥수수	1,177	바나나	1,125	땅콩	400
14	코코넛	894	달걀	136	Pimento, Allspice	77	천연고무	314
15	사탕수수	5,406	Cashew Nuts	202	천연고구	291	후추	90
16	Cashew Nuts	140	고구마	1,686	카사바	1,986	바나나	1,221
17	커피	92	코코넛	1,165	고구마	1,611	Pimento, Allspice	77
18	옥수수	671	버팔로고기	97	오리고기	70	오리고기	83
19	파인애플	468	오리고기	52	버팔로고기	92	차	85
20	오리고기	40	오렌지	379	차	70	고구마	1,592

자료: http://faosta.fao.org/faostat

비용이 연평균 국가재원의 15～17%에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베트남 정부가 전략 품목으로 선정한 쌀, 커피, 고무, 차, 열대

과실, 사탕수수 등의 생산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29>는 생산액 순서로 본 베트남의 20대 농산물 목록이다. 2002년 베트남의 10대 농산물은 쌀, 돼지고기, 기타 신선채소, 커피, 기타 신선과일, 닭고기, Cashew nuts, 옥수수, 카사바, 사탕수수 등이다. 이들 품목의 생산량은 대부분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쌀 생산량은 1990년 1,923만 톤에서 2002년 3,451만톤으로 179%나 증가했고 돼지고기도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1990-2000년간 주요 축종별 연평균 사육두수 증가율은 닭 6.0%, 돼지 5.1%, 양 및 염소 3.9% 등으로서 닭 사육수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베트남은 현재 세계 제2위의 쌀 수출국이다. 2002년의 경우 330만톤의 쌀을 수출한 바 있다. 그밖에 수출량이 많은 품목으로는 카사바(94만톤), 커피(72만톤) 등이다. 특이한 사항은 2002년의 경우 베트남의 닭 수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전에도 순수입국이라는 점이다. 이는 베트남에서 닭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대부분이 국내에서 소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5.3. 농산물소비

베트남 국민의 1인당 연간 식품 소비량은 모든 분야에 걸쳐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식품섭취 유형에서 쌀, 옥수수 등 곡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7% 가량으로 아직도 곡물류 소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주요 품목군별로 식품소비패턴에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육류, 우유, 채소류, 유지작물의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들 품목의 소비 증가는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와 식품소비패턴의 다양화로 이해된다.

그러나 아직도 육류, 우유 등 축산물과 낙농품, 그리고 채소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국제기준으로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향후 베트남의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이들 품목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주요 농작물의 국내 자급률 측면을 보면 우유 등 낙농제품을 제외하고는 100% 이상의 자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쌀 등 곡물류의 자급률은 127%로 충분한 수출 여력을 가지고 있다.

표 5-30. 식품소비량과 식량자급률 변화 추이

단위: kg, %

	1인당 연간 소비량						자 급 률					
	1980	1985	1990	1995	2000	2002	1980	1985	1990	1995	2000	2002
곡물	157.7	171.3	165.2	175.4	185.4	186.7	86.9	96.4	106.1	113.9	124.6	127.4
유지작물	1.9	2.6	1.9	4.6	3.7	3.2	103.7	121.4	110.4	112.8	104.6	118.5
채소류	42.0	41.6	49.9	57.4	74.9	80.1	100.2	100.0	100.4	100.2	100.0	101.1
과일류	43.3	42.1	43.0	48.4	47.7	52.0	101.2	101.4	102.1	100.2	98.8	102.7
육류	9.4	14.4	16.0	18.9	24.3	28.6	99.8	101.1	101.8	100.5	103.9	100.2
우유	1.6	1.2	1.3	3.7	4.6	5.0	46.6	76.1	66.7	24.5	23.0	26.9
어류	10.5	12.7	12.8	17.8	6.2	17.7	100.2	104.1	106.8	107.6	100.0	128.4

자료: FAO, FAOSTAT DATABASE COLLECTIONS, Food Balance Sheet.

제 6 장

ASEAN의 농산물 교역

1. ASEAN의 농산물 무역

ASEAN 국가들의 농산물 교역 규모는 2002년 488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수출이 286억 달러이고 수입이 202억 달러이다. ASEAN 국가들의 농산물 무역수지는 외환위기로 인해 1990년대 말에는 흑자 폭이 40억 달러 수준까지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2002년에는 84억 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다. ASEAN 국가들은 농산물 교역에서 1999-2001년 기간에 큰 폭의 감소를 나타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80억 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ASEAN 10개국의 농산물 수출 규모는 2002년 286억 달러로 1996년에 비해 10% 정도 감소하였다. 수출 감소의 중요한 요인은 동아시아 지역의 외환위기로 인한 교역 규모 축소로 추정되며,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주요 수출국의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4개국이 ASEAN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를 상회하고 있다. 이 기간에 수출이 증가한

국가는 인도네시아(3억 달러 증가)와 미얀마(1억 3천만 달러 증가) 정도에 불과하다. 농산물 수출 감소가 정점에 달한 2001년도의 수출액은 240억 달러로 1996년에 비해 80억 달러나 감소하였다.

ASEAN 국가들의 농산물 수출은 역내 비중이 20%를 넘어 가장 크고 일본, 미국, EU, 중국, 인도, 호주, 한국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다. 역내를 포함하여 상위 10개국의 대한 수출 의존도는 80%를 넘는다. 따라서 외환위기의 영향을 받은 ASEAN 국가들과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로의 수출 감소는 ASEAN 국가들의 수출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ASEAN 국가들의 농산물 수출 감소 요인을 제공한 품목들은 주로 열대 농산물 또는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고무, 설탕, 팜유 등이며, 구제역과 조류독감 등으로 인한 축산물 수출도 감소하였다.

2002년 ASEAN 국가들의 수입은 1996년에 비해 32억 달러 감소하였다. 수입 감소 폭이 큰 국가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로 감소액은 각각 13억 달러와 14억 달러에 달했다. 그밖에 태국과 필리핀의 농산물 수입도 각각 2억 5천만 달러와 1억 5천만 달러 감소하였다. 수입이 증가한 국가는 베트남 정도에 불과하다.

수입 감소 폭이 큰 싱가포르의 농산물 수입은 전체 품목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감소를 나타낸 품목은 담배로 5억 달러 가까이 감소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밀, 쌀 등 곡물류를 비롯하여 쇠고기, 당류 등의 수입 감소가 전체적인 농산물 수입 감소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ASEAN 국가들의 농산물 수입 감소는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와 관련이 깊으며, 특히 1998년을 전후하여 수입 감소 폭이 컸다. 농산물 수입은 2000년 이후 회복되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ASEAN 국가들 전체로 볼 때 농산물 무역수지는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개별 회원국별로는 무역수지 흑자 국가와 적자 국가가 절반

표 6-1. ASEAN 국가의 농산물 수출입 현황

단위: 천 달러

	국가명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수입	말레이시아	4,382,885	4,372,978	3,534,528	3,732,985	3,792,049	4,028,300	4,300,496
	싱가포르	5,216,912	5,298,549	4,164,646	4,100,253	3,988,839	3,963,327	3,880,939
	인도네시아	5,623,637	4,467,419	3,654,830	4,736,155	4,054,469	4,085,360	4,201,488
	태국	3,252,231	3,054,059	2,251,353	2,318,792	2,690,116	2,922,886	2,976,101
	필리핀	2,805,294	2,543,685	2,762,316	2,645,795	2,574,370	2,428,836	2,644,509
	베트남	1,036,668	844,543	1,104,273	1,158,115	1,341,457	1,113,633	1,332,764
	캄보디아	349,350	333,158	292,777	329,900	454,708	316,176	281,691
	라오스	96,162	87,842	72,686	78,495	76,373	69,615	85,649
	미얀마	418,207	342,119	361,011	355,074	338,436	295,193	286,238
	부루나이	233,472	242,787	226,765	190,897	186,045	192,670	204,032
	계	23,414,818	21,587,139	18,425,185	19,646,461	19,496,862	19,415,996	20,193,907
수출	말레이시아	7,824,225	7,349,829	7,756,400	7,117,500	5,820,951	5,521,453	7,373,520
	싱가포르	4,222,388	4,131,890	3,476,228	2,974,796	2,810,409	2,554,750	2,687,191
	인도네시아	5,905,078	6,090,487	5,054,347	5,135,654	4,941,671	4,367,602	6,207,400
	태국	9,517,699	8,692,224	7,097,394	7,156,204	7,275,250	7,422,536	8,167,397
	필리핀	1,755,967	1,802,536	1,717,857	1,358,387	1,539,833	1,443,560	1,509,717
	베트남	2,010,720	2,265,030	2,396,789	2,454,620	2,296,934	2,023,819	2,114,413
	캄보디아	37,970	44,960	26,762	43,964	10,580	22,213	36,441
	라오스	27,858	22,407	27,054	33,846	33,396	27,522	15,351
	미얀마	342,316	322,961	317,379	272,036	375,500	473,944	471,879
	부루나이	21,758	1,535	1,042	1,046	626	1,626	1,535
	계	31,665,979	30,723,859	27,871,252	26,548,053	25,105,150	23,859,025	28,584,844
무역수지	말레이시아	3,441,340	2,976,851	4,221,872	3,384,515	2,028,902	1,493,153	3,073,024
	싱가포르	-994,524	-1,166,659	-688,418	-1,125,457	-1,178,430	-1,408,577	-1,193,748
	인도네시아	281,441	1,623,068	1,399,517	399,499	887,202	282,242	2,005,912
	태국	6,265,468	5,638,165	4,846,041	4,837,412	4,585,134	4,499,650	5,191,296
	필리핀	-1,049,327	-741,149	-1,044,459	-1,287,408	-1,034,537	-985,276	-1,134,792
	베트남	974,052	1,420,487	1,292,516	1,296,505	955,477	910,186	781,649
	캄보디아	-311,380	-288,198	-266,015	-285,936	-444,128	-293,963	-245,250
	라오스	-68,304	-65,435	-45,632	-44,649	-42,977	-42,093	-70,298
	미얀마	-75,891	-19,158	-43,632	-83,038	37,064	178,751	185,641
	부루나이	-211,714	-241,252	-225,723	-189,851	-185,419	-191,044	-202,497
	계	8,251,161	9,136,720	9,446,067	6,901,592	5,608,288	4,443,029	8,390,937

자료: http://faostat.fao.org/faostat/

정도씩 분포하고 있다.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 국가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미얀마 등 5개국이며, 적자 국가는 싱가포르,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등 5개국이다.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는 농업 자원이 부족한 국가로 전통적인 농산물 수입국가로 볼 수 있다. 그밖에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등 3개국은 농업 자원은 비교적 풍부하나 기술, 기반 시설 등이 부족하여 생산성이 낮은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가공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산물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필리핀은 밀, 쌀 등 곡물과 담배에서 큰 폭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국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의 주요 수출품목은 열대산품인 고무, 팜유, 설탕 등이며, 태국과 베트남은 여기에 더하여 쌀이 중요한 수출 품목으로 추가된다. 그밖에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파인애플 등의 열대과일, 커피, 닭고기, 유제품 등도 중요한 수출 농산물에 속한다.

2. ASEAN 국별 농산물 무역

2.1.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주요 농작물은 쌀, 카사바, 옥수수, 팜유, 커피, 고무 등이다. 자바 섬을 중심으로 쌀, 옥수수 등 곡물 중심의 소규모 영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마트라와 여타 섬을 중심으로 팜유, 커피, 고무 등 열대작물과 관련된 대규모 상업적 영농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인구에 비해 곡물 생산이 부족하여 쌀, 콩, 옥수수, 밀 등 곡물류는 수입하고 있으며, 고무와 팜유 등 열대산품은 수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2002년 전체 교역규모는 883억 달러이며, 이 중 농산물 교역이 104억 달러로 전체 교역에서 12%를 차지한다. 인도네시아는 연간 250억 달러 정도의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산물 무역수지는 20억 달러의 흑자를 나타내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8%를 차지하고 있다.

2002년도 농산물 수출액은 62억 달러, 수입은 42억 달러이다. 주요 수출 농산물은 팜유, 고무, 코코아, 커피, 담배, 목재 등이며, 주요 수입 농산물은 옥수수, 쌀, 콩, 밀 등 곡물류와 유제품, 대두박 등 축산물과 사료, 설탕, 식물성 섬유 등이다.

인도네시아는 주곡인 쌀과 밀의 만성적인 생산 부족으로 곡물의 수입 규모가 크다. 2002년의 경우 밀과 쌀의 수입 규모는 각각 6억 3천만 달러와 2억 5천만 달러에 달했으며, 여기에 유지작물(주로 대두)과 사료곡물(옥수수, 대두박 등)을 더하면 곡물류의 수입 규모는 20억 달러에 달한다. 그밖에 주요 수입품목은 유제품 및 쇠고기, 사과, 배, 식물성 섬유, 담배, 당류 등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곡물류, 축산물(쇠고기와 유제품), 온대성 과실(사과, 배), 담배, 당류 등의 수입국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6-2. 인도네시아의 상품 및 농산물 교역

단위: 백만 달러

		1990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전체 교역	수출액	25,675	45,418	48,848	48,665	62,124	56,321	57,159
	수입액	21,837	40,629	27,337	24,003	33,515	30,962	31,229
	무역수지	3,838	4,789	21,511	24,662	28,609	25,359	25,930
농산물 교역	수출액	2,802	5,493	5,054	5,136	4,946	4,368	6,207
	수입액	1,591	4,884	3,655	4,736	4,054	4,085	4,201
	무역수지	1,211	609	1,400	399	892	283	2,006

자료: FAO, FAOSTAT DATABASE COLLECTIONS, Agriculture & Food Trade.

표 6-3. 인도네시아의 농산물 수입현황

단위: 천 달러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곡물류	2,275,575	1,342,489	1,675,644	2,217,136	1,391,379	1,000,405	1,578,195
- 밀	1,050,364	776,521	630,422	404,381	502,406	399,522	625,000
- 쌀	737,791	71,769	842,505	1,117,375	239,068	81,000	253,664
- 옥수수	132,887	171,675	47,838	80,320	157,949	125,512	137,982
- 감자(냉동)	11,723	22,958	4,776	4,205	7,688	8,996	9,722
- 콩	251,656	206,674	98,693	301,688	275,481	239,322	299,219
- 기타곡물	91,154	92,892	51,410	309,167	208,787	146,053	252,608
채소류	94,896	109,239	70,339	117,801	74,447	84,107	85,195
- 양파	15,647	14,381	11,499	18,135	12,914	12,475	9,069
- 마늘	58,074	55,984	45,853	81,590	43,445	51,217	52,298
- 건조채소	5,762	6,437	4,393	3,316	5,592	6,497	5,731
- 기타채소	15,413	32,437	8,594	14,760	12,496	13,918	18,097
과실류	112,181	115,163	42,807	63,853	148,123	149,535	223,459
- 오렌지	8,747	6,343	2,662	3,714	10,896	6,617	13,928
- 감귤류	18,629	18,693	8,302	13,055	30,744	33,360	37,052
- 사과	28,813	42,009	11,655	19,461	42,421	47,010	68,343
- 배	17,062	15,735	6,230	7,520	21,336	26,286	40,172
- 포도	15,458	10,183	3,364	2,773	10,961	10,032	18,640
- 기타과실	23,472	22,200	10,594	17,330	31,765	26,230	45,324
축산물	493,030	423,329	187,836	442,469	458,058	456,522	360,039
- 소	190,420	180,358	37,503	79,859	92,669	60,993	47,572
- 버터	27,280	11,945	11,833	20,426	17,078	12,252	15,462
- 우유	131,409	110,969	78,432	185,108	206,081	268,556	181,989
- 닭	13,508	12,238	3,707	18,826	10,185	11,944	11,542
- 기타축산물	130,413	107,819	56,361	138,250	132,045	102,777	103,474
식물성유지	599,849	553,534	236,580	235,486	361,318	438,895	387,333
- 대두박	265,935	281,724	157,830	161,240	268,746	360,534	285,000
- 코코넛오일	42,966	38	2,728	108	78	18	14
- 팜유	61,173	55,456	8,459	543	915	60	3,268
- 기타유지	229,775	216,316	67,563	73,595	91,579	78,283	99,051
당류	512,824	462,767	375,767	557,066	315,054	276,605	242,192
음료	33,237	41,743	7,274	10,714	14,602	12,134	10,468
초콜릿	8,216	6,737	2,796	2,592	5,416	13,890	18,529
식물성섬유	980,576	818,832	763,686	672,640	729,919	1,066,302	707,639
연초류	181,418	206,549	84,474	141,060	163,694	220,227	197,743
기타조제식품	63,283	61,441	37,232	35,895	51,348	62,621	69,803
기타농산물	268,552	325,596	170,395	239,443	341,111	304,117	320,893
총 계	5,623,637	4,467,419	3,654,830	4,736,155	4,054,469	4,085,360	4,201,488

자료: http://faostat.fao.org/faostat/

표 6-4. 인도네시아의 농산물 수출현황

단위: 천 달러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곡물류	135,544	97,433	126,096	105,301	106,582	126,140	145,033
- 밀	55,090	38,184	30,030	23,904	23,307	28,799	40,505
- 마카로니	12,898	4,493	1,733	12,344	17,606	20,684	22,211
- 감자	15,018	8,432	5,888	5,892	4,495	4,232	5,573
- 기타곡물	52,538	46,324	88,445	63,161	61,174	72,425	76,744
채소류	160,770	203,625	207,153	242,191	279,402	154,305	135,735
- 양배추	8,781	7,114	4,446	5,313	5,069	6,206	8,235
- 고추	98,864	163,145	188,920	191,241	221,090	100,507	89,197
- 기타채소	53,125	33,366	13,787	45,637	53,243	47,592	38,303
과실류	166,042	93,017	55,660	142,096	104,696	107,083	151,237
- 바나나	19,287	13,224	14,074	11,102	413	50	980
- 파인애플 캔	91,815	47,473	25,682	85,302	60,284	62,742	79,352
- 파인애플 쥬스	26,339	14,131	4,332	17,114	11,169	13,016	19,074
- 기타과실	28,601	18,189	11,572	28,578	32,830	31,275	51,831
축산물	52,742	44,994	52,033	66,031	128,740	177,768	115,104
- 돼지	17,661	18,253	17,151	24,470	33,313	36,700	27,645
- 닭	3,557	1,602	1,821	2,908	2,748	1,371	1,593
- 기타육류	15,417	11,762	15,023	8,460	11,079	14,178	13,544
- 기타축산물	16,107	13,377	18,038	30,193	81,600	125,519	72,322
유지류	1,493,738	2,321,615	1,247,593	1,778,609	1,763,840	1,446,604	2,662,456
- 코코넛유	266,474	401,650	206,021	209,362	319,669	111,651	157,847
- 팜유	1,060,583	1,740,355	940,725	1,462,218	1,326,398	1,227,166	2,348,638
- 기타유지류	166,681	179,610	100,847	107,029	117,773	107,787	155,971
커피류	605,949	529,671	615,779	488,760	339,876	203,524	239,636
코코아류	365,346	407,651	489,304	386,922	311,113	363,577	666,930
차류	112,343	88,838	113,208	97,141	112,106	99,967	103,426
연초류	219,500	245,797	254,332	212,073	220,976	274,935	247,880
고무류	1,920,055	1,549,114	1,106,295	850,026	889,302	786,614	1,038,388
- 천연고무	43,939	26,035	13,985	9,899	7,208	7,180	5,984
- 건조고무	1,873,966	1,467,209	1,087,468	839,204	881,416	779,018	1,031,579
- 기타고무류	2,150	55,870	4,842	923	678	416	825
전분	57,545	26,963	32,677	32,917	12,270	15,848	9,333
당류	63,546	58,901	28,675	65,241	60,062	63,713	70,871
기타농산물	551,958	422,868	725,542	668,346	612,706	547,524	621,371
총 계	5,905,078	6,090,487	5,054,347	5,135,654	4,941,671	4,367,602	6,207,400

자료: http://faostat.fao.org/faostat/

인도네시아의 농산물 수출 규모는 62억 달러(2002년)로 ASEAN 국가들 가운데 말레이시아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중요한 수출 품목은 팜유와 고무로 2002년 수출 실적은 각각 23억 5천만 달러와 10억 4천만 달러로 전체 농산물 수출의 55%를 차지하였다. 그밖에 중요한 수출 품목은 코코아(7억 달러), 커피(2억 4천만 달러), 연초(2억 5천만 달러), 차(1억 달러), 파인애플 및 관련 제품(1억 달러) 등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팜유, 고무, 파인애플, 커피, 코코아 등 열대산 원료 농산물의 수출국으로 분류될 수 있다.

2.2.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고온 다습한 열대 우림 기후의 특성을 가진 나라로 팜유, 천연고무, 코코아, 코코넛, 사탕수수, 파인애플 등 열대산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그밖에 쌀, 목재 등도 말레이시아의 중요한 농림산물에 속한다. 2002년도 기준으로 말레이시아의 전체 교역규모는 1,738억 달러 수준이며, 이 가운데 농산물은 116억 달러로 전체의 7%를 차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로 2002년에는 143억 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다. 이 가운데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는 31억 달러로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표 6-5. 말레이시아의 상품 및 농산물 교역

단위: 백만 달러

		1990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전체 교역	수출액	29,447	73,761	73,217	84,617	98,240	87,969	94,061
	수입액	29,252	77,492	58,286	65,386	82,202	73,744	79,761
	무역수지	195	-3,731	14,931	19,231	16,038	14,225	14,300
농산물 교역	수출액	4,360	8,228	7,756	7,118	4,348	5,521	7,374
	수입액	2,137	3,877	3,535	3,733	3,070	4,028	4,300
	무역수지	2,223	4,351	4,221	3,385	1,278	1,493	3,074

자료: FAO, FAOSTAT DATABASE COLLECTIONS, Agriculture & Food Trade.

표 6-6. 말레이시아의 농산물 수입현황

단위: 천 달러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곡물류	1,360,624	1,466,440	1,039,708	1,093,626	1,054,579	1,075,206	1,116,786
- 밀	269,444	388,060	187,332	215,359	187,080	206,149	201,902
- 쌀	211,198	236,000	232,161	181,224	175,823	134,756	124,701
- 옥수수	422,945	414,973	225,867	259,903	255,056	218,431	262,862
- 감자(신선)	18,381	20,000	18,431	22,151	18,215	21,945	23,455
- 감자(냉동)	18,089	23,000	13,365	15,316	17,716	19,435	19,949
- 콩	129,746	150,000	131,843	145,429	132,186	150,897	167,374
- 기타곡물	290,821	234,407	230,709	254,244	268,503	323,593	316,543
채소류	234,350	162,177	187,011	207,395	197,016	215,943	232,922
- 토마토	2,152	2,152	1,298	2,015	1,993	1,615	2,251
- 꽃양배추	20,605	19,000	16,441	19,075	20,011	20,267	22,266
- 양파	58,903	58,903	67,336	64,543	59,716	66,268	67,156
- 마늘	47,483	10,000	21,408	25,514	17,452	26,708	27,329
- 당근	19,104	10,000	15,489	16,919	17,136	17,287	19,653
- 기타채소	86,103	62,122	65,039	79,329	80,708	83,798	94,267
과실류	189,009	202,264	118,025	142,802	145,608	151,841	161,856
- 오렌지	28,175	36,000	19,151	14,475	18,388	20,031	19,026
- 감귤류	14,256	15,000	10,023	11,299	11,274	10,365	11,284
- 사과	23,888	24,000	15,813	18,068	16,873	19,152	19,922
- 배	12,547	16,000	9,613	6,628	8,696	12,434	13,598
- 대추야자	13,437	13,437	8,216	10,867	9,786	10,123	12,048
- 조제과실	25,427	20,000	12,056	17,559	17,540	16,987	18,346
- 기타과실	71,279	77,827	43,153	63,906	63,051	62,749	67,632
축산물	737,236	739,054	454,423	524,511	601,559	701,380	656,762
- 쇠고기	103,292	103,292	73,843	83,767	108,187	105,536	106,440
- 버터	13,631	18,500	14,740	19,002	18,969	17,735	17,297
- 우유(원유)	136,825	160,000	95,428	102,770	107,785	138,688	119,727
- 우유(시유)	157,601	130,000	97,252	100,386	121,101	107,917	84,439
- 치즈	10,982	10,000	9,066	11,239	12,543	14,222	15,447
- 닭고기	15,488	15,488	19,403	35,201	35,619	42,206	55,350
- 기타축산물	299,417	301,774	144,691	172,146	197,355	275,076	258,062
음료	2,994	2,994	4,416	3,839	3,463	1,884	5,402
주류	83,628	83,628	34,376	36,604	30,594	32,671	58,396
커피류	38,894	24,884	31,399	36,395	37,543	35,435	38,863
코코아류	50,171	67,972	99,039	77,864	99,976	120,082	172,058
면화	157,791	102,344	136,906	116,214	110,642	89,386	55,472
연초류	94,227	143,026	98,014	118,131	132,963	186,475	280,688
고무류	291,590	192,100	317,348	255,809	347,189	293,031	292,963
당류	341,343	383,900	289,734	281,672	278,977	319,378	297,944
유지류	316,286	319,122	346,261	423,228	310,660	353,785	461,076
기타농산물	484,742	483,073	377,868	414,895	441,280	451,803	469,308
총 계	4,382,885	4,372,978	3,534,528	3,732,985	3,792,049	4,028,300	4,300,496

자료: http://faostat.fao.org/faostat/

표 6-7. 말레이시아의 농산물 수출현황

단위: 천 달러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곡물류	245,179	195,977	182,806	230,381	264,366	257,402	285,298
- 밀(밀가루)	21,022	24,674	22,145	25,889	28,202	27,189	26,278
- 쌀	96	48	355	46	60	101	690
- 보리	24,389	25,000	20,856	31,838	38,373	38,596	31,590
- 귀리	8,817	3,900	5,207	5,401	5,650	5,387	7,204
- 감자(냉동)	1,184	1,184	500	508	372	400	1,014
- 기타곡물	189,671	141,171	133,743	166,699	191,709	185,729	218,522
채소류	121,458	155,552	149,110	172,377	173,073	131,155	129,603
- 양상추	3,275	880	2,575	2,544	3,061	3,190	3,075
- 토마토	2,134	1,400	3,149	3,814	5,371	7,894	8,609
- 양파	5,538	5,538	4,088	7,037	7,712	7,198	10,097
- 마늘	7,454	8,400	5,153	7,027	4,578	5,543	6,689
- 수박	21,529	14,000	17,501	16,219	15,796	14,434	13,991
- 후추	51,576	84,000	92,957	106,783	97,343	49,324	38,368
- 기타채소	29,952	41,334	23,687	28,953	39,212	43,572	48,774
과실류	95,022	79,170	76,296	103,968	104,810	109,965	116,277
- 바나나	5,277	4,500	5,370	8,388	8,555	8,334	7,467
- 파인애플	22,200	19,000	12,881	13,139	8,624	7,468	9,371
- 파파야	11,980	12,000	10,338	15,680	18,201	24,603	26,247
- 기타과실	55,565	43,670	47,707	66,761	69,430	69,560	73,192
축산물	406,264	360,758	291,246	241,975	221,806	226,629	241,069
- 쇠고기	2,562	2,562	1,919	1,688	2,269	2,516	3,386
- 우유	42,291	28,000	41,295	33,753	34,429	27,311	24,435
- 돼지	140,501	112,000	94,213	19,948	41	0	0
- 닭	74,615	60,000	58,200	66,432	65,810	76,221	76,058
- 닭고기	14,657	10,000	10,740	9,294	3,813	4,241	6,697
- 기타축산물	131,638	148,196	84,879	110,860	115,444	116,340	130,493
식물성유지	4,488,632	4,337,441	5,150,296	4,459,893	3,045,393	2,947,677	4,342,362
- 대두유	76,884	86,000	122,809	94,879	81,028	73,955	67,745
- 코코넛유	27,124	23,000	32,178	33,652	30,753	19,577	41,296
- 팜유	3,766,725	3,838,650	4,492,705	3,738,325	2,558,723	2,534,879	3,824,429
- 기타유지류	617,899	389,791	502,604	593,037	374,889	319,266	408,892
전분	3,526	3,194	3,520	3,406	2,809	3,060	3,025
당류	84,118	92,293	66,065	75,620	93,239	101,599	122,806
식물성섬유	5,072	6,251	9,195	4,251	7,149	7,539	9,856
음료	32,655	32,000	29,724	36,955	43,806	55,746	56,378
주류	34,485	34,485	23,065	28,477	28,975	27,605	28,933
커피류	19,046	11,572	16,126	24,621	40,302	62,602	69,824
코코아류	236,727	257,390	196,576	192,965	156,875	174,145	238,680
연초류	133,877	97,853	158,356	173,047	202,942	214,950	213,497
고무류	1,394,804	1,165,085	721,698	616,685	676,674	496,450	655,776
- 천연고무	208,024	168,000	87,957	95,468	87,085	69,275	74,946
- 건고무	1186,695	997,000	633,638	521,201	589,589	427,149	580,813
- 기타고무	85	85	103	16	0	26	17
기타농산물	523,360	520,808	682,321	752,879	758,732	704,929	860,136
총 계	7,824,225	7,349,829	7,756,400	7,117,500	5,820,951	5,521,453	7,373,520

자료: http://faostat.fao.org/faostat/

농산물 수출은 1990년대 후반 이후 2000년까지 아시아 지역의 외환위기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2001년부터 회복되는 추세에 있다. 2002년 농산물 수출액은 74억 달러에 달했으며, 주요 수출 농산물은 팜유, 고무, 코코아, 당류, 후추, 연초, 파파야 등 열대성 작물과 원목, 제재목 등이다. 주요 수입농산물은 쌀, 옥수수, 밀, 대두 등 곡물류, 쇠고기, 우유 등 축산물, 온대성 과일류, 담배 등이다.

말레이시아의 주요 수입 농산물은 곡물과 축산물이다. 곡물류 수입 규모는 연간 10억 달러 이상이며, 2002년의 경우 11억 2천만 달러를 나타내 전체 농산물 수입의 26%를 차지하였다(식물성유 수입액 4억 6천만 달러를 더하면 이 비중은 37%로 증가함). 다음으로 수입 규모가 큰 축산물은 주로 쇠고기와 유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2년 축산물 수입 규모는 6억 6천만 달러로 전체 농산물 수입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중요한 수입 농산물로는 사과, 배, 감귤류 등 과실류(1억 6천만 달러)와 양파, 마늘, 당근 등 채소류(2억 3천만 달러), 코코아(1억 7천만 달러), 연초(2억 8천만 달러), 당류(3억 달러) 등이다. 말레이시아는 곡물(식물성유 포함), 축산물, 과실, 채소, 담배, 당류 등 주요 농산물의 순수입국으로 분류된다.

말레이시아의 농산물 수출 74억 달러(2002년 기준) 가운데 팜유의 수출이 38억 달러로 50% 이상을 차지한다. 팜유를 포함한 식물성 유지 수출 규모는 43억 달러로 전체의 60% 가까이 된다. 그밖에 주요 품목의 수출 규모는 고무 6억 6천 만 달러, 연초 2억 1천만 달러, 코코아 2억 4천만 달러, 파파야 3천만 달러, 후추 4천만 달러 등이다. 말레이시아의 농산물 수출은 열대산품 중심의 단순한 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3. 태국

태국의 주요 농산물은 사탕수수, 고무, 커피, 파인애플, 바나나, 야

자열매 등 열대작물, 쌀, 옥수수, 카사바 등 곡물류로 생산량 가운데 많은 부분이 수출되고 있다. 2002년 기준 태국의 전체 교역규모는 1,326억 달러이며, 이 중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 수준인 111억 달러이다. 태국의 2002년 농산물 수출액은 82억 달러, 농산물 수입액은 30억 달러로 농산물 무역수지는 52억 달러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2002년도 태국의 전체 무역수지 흑자는 35억 달러로 농산물을 제외한 상품 수출입 무역수지는 적자를 나타냈다.

태국은 전통적인 농산물 수출국으로 농산물 수출은 농산물의 수요와 판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농산물 무역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흑자는 태국 전체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태국의 농산물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전체 수출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출 농산물은 쌀, 타피오카, 카사바, 설탕, 닭고기, 전분, 파인애플, 고무, 사료 등이며, 주요 수입 농산물은 임산물, 면화, 낙농제품, 가죽 및 피혁, 대두, 식물성유, 담배, 주류 등이다.

태국의 농산물 수입액 30억 달러 가운데 50%를 차지하는 중요한 3대 수입 품목은 면화(약 5억 달러), 분유 및 쇠고기(3억 3천만 달러), 대두 및 대두유(6억 8천만 달러) 등이다. 식물성 기름의 소비 증가로

표 6-8. 태국의 상품 및 농산물 교역

단위: 백만 달러

		1990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전체 교역	수출액	23,071	56,516	54,928	58,537	67,942	64,971	68,062
	수입액	33,031	70,891	43,358	50,424	62,423	61,947	64,591
	무역수지	-9,960	-14,375	11,570	8,113	5,519	3,024	3,471
농산물 교역	수출액	5,388	9,022	7,097	7,159	7,274	7,423	8,167
	수입액	1,601	2,907	2,249	2,316	2,612	2,923	2,976
	무역수지	3,787	6,115	4,848	4,843	4,662	4,500	5,191

자료: FAO, FAOSTAT DATABASE COLLECTIONS, Agriculture & Food Trade.

표 6-9. 태국의 농산물 수입현황

단위: 천 달러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곡물류	588,154	655,000	476,616	500,905	607,343	618,014	689,877
- 밀	171,524	122,906	119,958	119,680	105,990	135,415	151,644
- 보리	84,124	78,042	59,370	46,962	44,839	58,656	62,826
- 옥수수	62,787	40,496	30,742	15,831	38,026	3,673	3,332
- 콩	135,005	285,501	172,679	210,195	286,935	278,668	324,309
- 기타곡물	134,714	128,055	93,867	108,237	131,553	141,602	147,766
채소류	21,164	21,740	19,307	25,387	29,154	28,048	33,834
- 양파	615	204	93	1,132	499	537	1,245
- 마늘	0	1	0	1	13	22	2,364
- 건조채소	3,327	3,095	2,093	2,388	2,358	2,014	5,783
- 조제채소	1,278	3,533	3,483	7,046	12,080	7,669	7,439
- 기타채소	15,944	14,907	13,638	14,820	14,204	17,806	17,003
과실류	144,569	101,921	47,176	69,383	78,239	92,000	104,025
- 사과	84,737	62,097	29,562	39,708	41,489	44,519	39,881
- 배	4,428	1,955	1,121	1,674	1,596	1,744	3,533
- 포도	7,562	8,709	2,174	4,128	6,201	6,300	7,049
- 조제과실	2,938	4,016	2,599	4,169	7,256	16,958	25,994
- 기타과실	44,904	25,144	11,720	19,704	21,697	22,479	27,568
축산물	676,830	685,118	492,823	471,030	483,621	568,026	508,984
- 분유	295,224	314,243	230,480	199,587	188,907	210,659	177,255
- 쇠고기	110,050	115,099	84,977	87,188	113,082	157,808	149,259
- 양모	56,124	70,609	40,215	39,957	45,702	44,774	57,308
- 기타축산물	215,432	185,167	137,151	144,298	135,930	154,785	125,162
유지류	391,846	495,089	295,218	310,195	351,888	437,133	456,260
- 대두유	235,459	355,513	212,708	237,304	267,927	338,390	355,555
- 땅콩유	30,651	33,295	22,313	5,817	1,987	10,793	8,687
- 해바라기유	26,828	19,912	5,740	6,588	7,686	6,854	5,760
- 기타유지류	98,908	86,369	54,457	60,486	74,288	81,096	86,258
주류	146,751	111,933	42,309	69,791	92,601	92,010	106,730
코코아류	20,598	19,322	20,789	19,108	23,447	19,646	35,720
초콜릿류	17,480	12,775	8,093	11,027	10,275	11,962	17,245
면화류	692,235	487,288	448,929	397,440	475,986	492,711	470,210
당류	17,069	16,333	11,818	15,294	18,242	22,074	28,327
연초류	94,601	82,849	98,961	113,427	122,212	112,464	100,775
고무류	44,216	27,914	15,935	21,064	29,280	27,529	24,858
기타농산물	396,718	336,777	273,379	294,741	367,828	401,269	399,256
총 계	3,252,231	3,054,059	2,251,353	2,318,792	2,690,116	2,922,886	2,976,101

자료: http://faostat.fao.org/faostat/

표 6-10. 태국의 농산물 수출현황

단위: 천 달러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곡물류	2,238,275	2,393,461	2,302,521	2,174,855	1,873,969	1,864,128	1,946,309
- 쌀	1,845,724	1,982,639	1,953,023	1,741,189	1,513,874	1,397,903	1,423,484
- 보리	7,731	10,800	11,412	14,563	15,197	17,309	31,950
- 옥수수	16,861	17,042	19,193	12,271	8,450	55,453	27,502
- 기타곡물	367,959	382,980	318,893	406,832	336,448	393,463	463,373
채소류	300,098	280,118	242,335	252,180	253,193	259,220	279,191
- 양파	7,664	2,405	3,215	4,735	4,263	3,754	4,583
- 마늘	98	184	10	40	371	1,857	2,207
- 조제채소	125,013	120,262	96,982	93,560	103,762	100,038	96,040
- 냉동채소	54,121	48,739	45,564	52,147	42,684	40,147	39,605
- 기타채소	113,202	108,528	96,564	101,698	102,113	113,424	136,756
과실류	857,354	759,158	515,325	789,893	709,050	684,247	795,865
- 파인애플캔	263,803	202,409	174,131	313,655	212,403	207,060	224,640
- 파인애플쥬스	117,876	73,424	59,122	102,285	72,299	66,747	630
- 기타신선과실	126,815	145,130	68,569	111,056	109,555	105,577	78,367
- 조제과실	182,885	149,618	111,081	145,139	141,167	155,685	201,319
- 기타과실	165,975	188,577	102,422	117,758	173,626	149,178	290,909
축산물	584,812	635,047	715,692	783,902	856,175	1,115,307	1,222,371
- 분유	21,778	23,234	21,097	20,441	23,822	69,685	109,072
- 닭고기	358,747	363,250	403,248	403,275	392,346	538,708	534,657
- 닭고기가공품	133,042	164,092	209,261	259,067	334,896	380,072	428,512
- 기타축산물	71,245	84,471	82,086	101,119	105,111	126,842	150,130
당류	1,390,270	1,135,239	710,284	613,000	733,945	797,957	802,116
- 설탕(비정제)	784,479	578,697	346,485	299,932	334,277	452,336	301,198
- 설탕(정제)	478,361	465,116	296,050	252,465	309,682	236,182	383,064
- 기타당류	127,430	91,426	67,749	60,603	89,986	109,439	117,854
전분	545,380	450,603	308,430	353,134	218,468	286,346	213,375
유지류	59,901	108,810	92,594	100,105	107,550	133,983	131,339
음료	96,659	98,569	45,907	69,744	71,179	73,152	60,294
주류	5,198	6,433	9,747	9,801	9,348	6,631	10,226
커피류	100,913	75,098	89,211	39,433	47,217	31,732	14,562
코코아류	18,745	19,828	18,375	21,618	14,954	15,693	22,175
연초류	94,737	94,022	84,049	58,856	71,117	68,509	67,620
고무류	2,500,519	1,903,935	1,339,542	1,161,051	1,519,042	1,321,190	1,737,297
애완용사료	221,709	225,890	191,346	209,145	225,701	202,363	236,217
기타조제식품	317,067	298,894	240,578	287,421	305,106	319,589	359,004
기타농산물	186,062	207,119	191,458	232,066	259,236	242,489	269,436
총 계	9,517,699	8,692,224	7,097,394	7,156,204	7,275,250	7,422,536	8,167,397

자료: http://faostat.fao.org/faostat/

대두와 대두유 수입은 1996-2002년 기간에 80% 이상 증가하였다. 이 기간에 농산물 수입이 32억 5천만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8% 감소한 것에 비하면 폭발적인 수입의 증가로 볼 수 있다. 그밖에 중요한 수입 품목은 밀(1억 5천만 달러), 사과 등 신선 과실 및 과실가공품(1억 달러), 주류(1억 달러), 담배(1억 달러) 등이다. 태국의 수입 농산물은 크게 대두, 밀 등 일부 곡물류, 사과와 배 등 온대성 과실류, 쇠고기 및 유제품, 대두유 등 식물성 기름, 주류, 담배, 면화 등 10개 품목(군) 정도로 볼 수 있다.

태국의 농산물 수출은 2002년 82억 달러로 지난 5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나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에 접근하였다.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의 농산물 수출액 95억 달러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곡물류, 설탕, 고무 등 3개 품목의 수출이 1996년 수준에 도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태국의 5대 수출 품목(군)인 쌀, 카사바, 전분, 사료 등 곡물류(2002년 수출액 25억 달러), 고무(17억 달러), 닭고기(10억 달러), 설탕(8억 달러), 파인애플 등 과실류(8억 달러)가 농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3%에 달한다.

2.4. 필리핀

2002년을 기준으로 필리핀의 전체 교역규모는 724억 달러 수준이며, 농산물 교역규모는 42억 달러로 농산물이 전체 교역의 6%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필리핀은 전체 무역수지에 있어서 적자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며, 농산물 무역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다. 2002년 농산물 수출액은 15억 달러, 수입액은 26억 달러로 11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내 전체 무역수지 적자의 57%를 차지하였다. 주요 수출 농산물은 바나나, 코코넛, 파인애플, 망고, 사탕수수, 커피, 연초, 목재류 등이다. 주요 수입 농산물은 밀, 콩, 쌀 등 곡

물류와 쇠고기, 우유 등 축산물, 식물성 기름, 담배 등이다. 필리핀은 ASEAN의 주요 농업국가 가운데 만성적인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내는 순수입국으로 분류될 수 있다.

1996-2002년 기간에 필리핀의 농산물 수입액은 24억 달러에서 28억 달러 사이를 유지하여 안정적인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2년 농산물 수입액은 26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곡물과 식물성 기름의 수입이 13억 달러를 넘는다. 수입 규모가 가장 큰 농산물은 밀로 5억 달러 가까이 되며, 다음이 대두유(2억 3천만 달러), 우유(2억 1천만 달러), 쌀(2억 1천만 달러)의 순이다. 과실류는 사과, 배, 포도, 오렌지 등 온대성 과실을 중심으로 5천만 달러 정도가 수입되고 있다. 그밖에 쇠고기(수입 규모 8,200만 달러), 담배(1억 8,500만 달러), 면화(4,100만 달러) 등이 수입되고 있다.

필리핀의 농산물 수출 규모는 15억 달러 수준이다. 코코넛유 등 식물성 기름과 바나나 등 과실류 수출이 각각 4억 8천만 달러와 5억 8천만 달러로 전체 농산물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바나나 이외에 수출되는 중요한 과실로는 망고, 파인애플 등이 있다. 고무 수출은 2천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

표 6-11. 필리핀의 상품 및 농산물 교역

단위: 백만 달러

		1990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전체 교역	수출액	8,186	17,371	29,496	36,576	39,793	32,150	35,208
	수입액	13,042	26,479	31,541	32,568	33,807	34,943	37,196
	무역수지	-4856	-9108	-2045	4008	5986	-2,793	-1,988
농산물 교역	수출액	1,230	1,881	1,718	1,358	1,540	1,444	1,510
	수입액	1,363	2,378	2,762	2,646	2,633	2,429	2,645
	무역수지	-133	-497	-1044	-1288	-1093	-985	-1,135

자료: FAO, FAOSTAT DATABASE COLLECTIONS, Agriculture & Food Trade.

표 6-12. 필리핀의 농산물 수입현황

단위: 천 달러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곡물류	1,080,668	886,633	1,220,335	943,885	812,182	819,282	1,000,406
- 밀	430,309	422,677	286,922	402,842	390,987	427,483	486,728
- 쌀	308,872	211,325	646,609	239,931	135,508	136,530	211,663
- 옥수수	99,697	54,120	87,412	35,986	64,479	25,636	49,232
- 콩	41,602	31,932	51,862	108,856	53,804	74,373	88,233
- 기타곡물	200,188	166,579	147,530	156,270	167,404	155,260	164,550
채소류	34,165	28,132	34,959	54,782	47,928	34,753	30,562
- 마늘	894	1,322	3,692	5,088	982	1,652	3,376
- 스위트콘	8,537	1,990	5,685	5,679	1,941	1,608	2,534
- 건조채소	6,513	6,086	3,069	4,995	4,810	5,010	5,213
- 조제채소	2,406	4,212	2,670	3,100	4,347	4,189	1,301
- 기타채소	15,815	14,522	19,843	35,920	35,848	22,294	18,138
과실류	88,860	68,856	65,946	71,407	71,071	49,454	53,374
- 오렌지	14,963	7,916	5,214	3,564	3,131	4,200	2,425
- 사과	22,976	16,662	13,779	16,206	21,138	9,532	8,655
- 배	2,589	603	1,014	953	1,564	1,473	1,087
- 포도	14,219	8,079	4,877	6,795	3,586	1,857	1,540
- 기타과실	34,113	35,596	41,062	43,889	41,652	32,392	39,667
축산물	612,384	651,921	513,460	603,601	661,651	604,566	534,692
- 소	72,800	85,844	72,884	82,379	57,671	21,979	31,547
- 쇠고기	85,055	96,610	70,380	79,000	97,944	81,530	81,952
- 버터	25,678	20,898	18,874	17,678	17,815	11,537	10,804
- 우유	267,773	271,563	201,923	211,592	277,890	280,499	213,394
- 치즈	33,936	38,715	31,705	28,453	29,607	32,429	27,176
- 기타축산물	127,142	138,291	117,694	184,499	180,724	176,592	169,819
당류	286,762	61,465	142,742	147,914	103,709	85,428	76,318
- 설탕(비정제)	135,472	13,940	61,290	56,930	4,187	21,851	13,951
- 설탕(정제)	81,182	8,189	34,570	40,153	53,628	23,014	19,537
- 기타당류	70,108	39,336	46,882	50,831	45,894	40,563	42,830
유지류	226,640	289,714	330,010	266,375	281,580	265,430	302,917
- 대두유	112,825	183,942	239,488	126,547	182,602	200,532	231,911
- 팜유	15,452	9,710	10,072	31,875	26,590	10,225	15,731
- 기타유지류	98,363	96,062	80,450	107,953	72,388	54,673	55,275
음료	11,444	15,369	6,397	5,954	5,590	5,530	5,423
주류	21,335	30,526	20,098	31,101	22,933	27,650	28,129
코코아류	18,942	15,685	15,764	13,174	13,951	18,836	31,819
초콜릿류	26,185	46,163	26,383	35,889	36,239	31,401	26,215
면화류	143,459	106,815	66,790	72,732	56,582	50,329	41,929
담배류	73,719	141,487	119,746	131,551	150,934	155,630	185,335
기타조제식품	78,659	90,645	84,590	128,736	155,160	165,677	170,153
기타농산물	102,072	110,274	115,096	138,694	154,860	114,870	157,237
총 계	2,805,294	2,543,685	2,762,316	2,645,795	2,574,370	2,428,836	2,644,509

자료: http://faostat.fao.org/faostat/

표 6-13. 필리핀의 농산물 수출현황

단위: 천 달러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곡물	37,951	46,208	35,604	46,684	48,263	67,838	59,942
- 패스트리	9,112	12,186	7,725	10,130	10,200	10,566	14,526
- 보리	4,462	3,505	3,957	6,782	7,922	9,071	9,224
- 기타곡물	24,377	30,517	23,922	29,772	30,141	48,201	36,192
채소류	33,980	30,717	26,038	24,453	26,926	25,219	27,192
- 아스파라거스	13,725	12,515	7,835	10,174	9,616	10,139	0
- 양파	11,406	10,531	5,997	2,958	4,053	1,033	3,301
- 마늘	189	0	129	0	0	496	3,047
- 기타신선채소	4,383	4,777	9,224	8,213	9,705	10,199	16,756
- 기타채소	4,277	2,894	2,853	3,108	3,552	3,352	4,088
과실류	504,525	485,028	466,575	471,295	548,592	577,256	578,419
- 바나나	236,267	216,556	217,040	240,703	291,651	297,371	308,887
- 망고	39,761	40,479	45,992	32,340	39,812	35,990	31,188
- 파인애플	24,514	27,189	20,841	22,814	24,794	27,407	29,537
- 기타조제과실	57,230	61,053	51,960	44,140	42,125	51,612	64,901
- 기타과실	146,753	139,751	130,742	131,298	150,210	164,876	143,906
축산물	2,519	2,804	2,724	3,517	16,728	35,671	51,450
- 분유	46	47	197	679	12,074	29,803	45,924
- 아이스크림	1,229	295	351	686	1,415	1,083	2,151
- 기타축산물	1,244	2,462	2,176	2,152	3,239	4,785	3,375
유지류	722,443	824,309	833,032	474,368	569,898	526,575	481,829
- 코코넛유	570,639	673,430	705,664	342,283	463,940	417,566	352,625
- 기타유지류	151,804	150,879	127,368	132,085	105,958	109,009	129,204
당류	160,550	117,463	115,378	89,435	84,576	58,618	66,448
코코아	20,359	19,219	18,535	10,585	7,057	7,989	9,157
연초류	37,625	40,003	35,643	47,622	38,231	36,389	36,956
고무류	33,816	25,137	14,252	11,756	14,293	13,247	18,188
기타조제식품	24,758	27,670	23,972	36,996	44,901	48,203	41,530
기타농산물	177,441	183,978	146,104	141,676	140,368	46,555	138,606
총 계	1,755,967	1,802,536	1,717,857	1,358,387	1,539,833	1,443,560	1,509,717

자료: http://faostat.fao.org/faostat/

2.5. 베트남

2002년 베트남의 전체 교역규모는 364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수

출이 167억 달러이고 수입이 197억 달러이다. 베트남은 만성적이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농산물 교역에 있어서는 흑자를 보이고 있다. 2002년 농산물 교역규모는 34억 달러로 전체 교역의 9%를 차지하고 있다. 농산물 수출은 21억 달러, 수입은 13억 달러로 농산물 무역수지는 8억 달러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베트남의 주요 수입 농산물은 밀(1억 1천만 달러), 면화(1억 2천만 달러), 담배 등 연초류(2억 9천만 달러), 대두유를 포함한 식물성유(2억 6천만 달러) 등이다. 이들 4대 수입 품목(군)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 가까이 된다. 그밖에 수입 농산물로는 사과, 배, 포도 등 온대성 과실류(4천만 달러), 옥수수(4천만 달러), 낙농품(5,600만 달러), 주류(6,700만 달러) 등이 있다.

베트남의 농산물 수출 규모는 20억 달러에서 25억 달러 수준으로 커피와 고무 수출에 따라 변화한다. 2002년 농산물 수출액은 21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쌀, 후추, 캐슈넛, 커피, 고무 등 5개 품목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7%에 이른다. 주요 품목별 수출 규모는 쌀 7억 3천만 달러, 후추 1억 1천만 달러, 캐슈넛 2억 1천만 달러, 커피 3억 2천만 달러, 고무 2억 7천만 달러 등이다. 그밖에 돼지고기, 벌꿀, 땅콩 등이 수출되고 있다.

표 6-14. 베트남의 상품 및 농산물 교역

단위: 백만 달러

		1990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전체 교역	수출액	2,404	5,449	9,361	11,540	14,308	15,029	16,706
	수입액	2,752	8,155	11,500	11,622	15,200	16,218	19,745
	무역수지	-348	-2,706	2,138	82	892	-1,189	-3,039
농산물 교역	수출액	754	1,632	2,440	2,446	2,176	2,024	2,114
	수입액	236	1,153	1,078	1,102	1,355	1,114	1,333
	무역수지	518	479	1,362	1,344	821	910	781

자료: FAO, FAOSTAT DATABASE COLLECTIONS, Agriculture & Food Trade.

표 6-15. 베트남의 농산물 수입현황

단위: 천 달러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곡물	176,205	133,379	155,173	138,807	167,440	169,806	234,762
- 밀(밀가루)	106,500	80,606	90,888	83,915	94,230	112,286	112,600
- 보리	28,900	30,953	33,200	20,820	24,350	30,370	43,921
- 옥수수	12,500	6,900	15,200	16,500	22,700	7,000	41,500
- 기타곡물	28,305	14,920	15,885	17,572	26,160	20,150	36,741
채소류	1798	590	1684	2242	3555	1755	17551
- 양파	376	210	1,100	900	550	250	2,779
- 마늘	950	30	410	970	2,200	680	13,607
- 조제채소	85	175	90	180	460	650	988
- 기타채소	387	175	84	192	345	175	177
과실류	21,358	27,685	26,528	25,035	56,096	17,530	40,773
- 사과	11,633	15,605	13,000	11,000	7,200	2,700	16,764
- 배	425	720	2,363	3,200	2,700	1,050	5,950
- 포도	3,350	4,200	3,350	4,500	6,000	5,250	7,576
- 건포도	810	660	350	200	610	650	1,171
- 기타과실	5,140	6,500	7,465	6,135	39,586	7,880	9,312
축산물	108,463	97,700	108,774	50,689	72,173	64,975	86,799
- 버터	11,320	11,000	9,000	10,000	8,200	7,800	10,562
- 우유	70,400	63,100	78,800	21,000	43,000	38,000	41,199
- 치즈	3,600	3,114	3,841	2,800	3,100	3,000	4,442
- 닭고기	76	312	380	20	25	25	8,657
- 기타축산물	23,067	20,174	16,753	16,869	17,848	16,150	21,939
음료	2,150	2,350	2,400	5,200	3,200	950	1,420
주류	18,195	15,744	14,000	12,000	18,200	5,000	67,203
면화	74,500	66,982	91,826	83,278	101,000	131,900	124,000
연초류	378,436	233,676	407,900	469,000	503,297	177,000	288,921
고무류	33,700	6,200	3,400	750	2,300	600	1,811
당류	25,565	27,629	29,000	20,278	15,670	46,406	30,048
식물성유지	125,160	151,000	157,320	246,230	278,630	389,285	263,850
- 대두유	42,400	72,500	76,000	102,900	95,000	158,300	187,500
- 팜유	75,260	70,800	55,000	98,000	136,800	199,000	57,244
기타농산물	71,138	81,608	106,268	104,606	119,896	108,426	175,626
총 계	1,036,668	844,543	1,104,273	1,158,115	1,341,457	1,113,633	1,332,764

자료: http://faostat.fao.org/faostat/

표 6-16. 베트남의 농산물 수출현황

단위: 천 달러

	1996	1997	198	1999	2000	2001	2002
곡물류	908,501	897,929	1,043,196	1,051,132	695,523	660,063	757,374
- 쌀	855,000	870,892	1,019,739	1,025,095	666,667	624,710	725,535
- 옥수수	34,000	9,162	900	419	2,008	4,500	870
- 콩	10,000	9,300	11,500	12,000	10,900	9,300	6,500
- 기타곡물	9,501	8,575	11,057	13,618	15,948	21,553	24,469
채소류	58,417	88,937	89,769	170,498	170,585	112,403	132,730
- 양파	1,450	191	470	870	370	65	183
- 마늘	1,063	267	360	10,200	1,100	650	438
- 건조채소	2,530	2,535	1,860	3,295	3,210	3,230	3,487
- 조제채소	1,800	950	2,600	3,600	4,300	1,400	3,591
- 후추	30,600	67,501	64,449	137,263	145,700	91,237	109,310
- 기타채소	20,974	17,493	20,030	15,270	15,905	15,821	15,721
과실류	16,019	15,936	25,507	31,985	53,698	92,728	70,365
- 바나나	4,800	1,600	3,200	1,630	600	1,000	2,242
- 망고	500	400	300	300	850	900	284
- 파인애플	3,578	4,663	4,500	6,600	2,200	5,000	3,348
- 조제과실	3,959	3,364	4,900	7,300	8,800	8,000	11,845
- 기타과실	3,182	5,909	12,607	16,155	41,248	77,828	52,646
축산물	31,147	199,716	154,860	124,256	130,225	96,795	46,552
- 돼지고기	8,000	178,000	136,000	112,000	119,000	80,500	18,454
- 계란	16,000	12,000	6,300	4,200	2,600	1,050	3,836
- 벌꿀	2,768	3,280	6,500	2,700	3,400	8,700	17,982
- 기타축산물	4,379	6,436	6,060	5,356	5,225	6,545	6,280
유지작물	154,819	183,053	160,348	144,456	233,003	193,961	263,197
- 캐슈넛	60,000	133,331	116,969	109,748	191,355	151,707	208,996
- 땅콩	87,000	47,381	42,048	32,748	40,718	38,154	50,852
기타유지류	7,819	2,341	1,331	1,960	930	4,100	3,349
전분	13,065	8,550	6,400	16,000	12,100	12,500	27,407
당류	2,083	6,001	6,322	14,820	34,410	43,287	8,332
음료	850	2,400	500	1,038	1,931	2,800	2,900
주류	4,108	1,621	1,700	2,500	5,900	3,600	3,957
커피류	420,000	497,536	593,793	584,903	499,651	391,329	322,310
연초류	1,935	5,874	17,300	5,900	7,200	5,200	10,572
고무류	255,000	190,541	127,470	146,207	230,943	165,972	267,832
기타농산물	144,776	166,936	169,624	160,925	221,765	243,181	200,885
총 계	2,010,720	2,265,030	2,396,789	2,454,620	2,296,934	2,023,819	2,114,413

자료: http://faostat.fao.org/faostat/

2.6. 기타 ASEAN 회원국

싱가포르,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등 5개 ASEAN 회원국들 가운데 싱가포르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농산물 교역 규모는 미미한 상태이다. 5개 회원국 가운데 미얀마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은 농산물 순수입국이다. 농산물 교역 규모는 싱가포르 66억 달러(수출 27억 달러, 수입 39억 달러), 캄보디아 6억 5천만 달러(수출 3억 6천만 달러, 수입 2억 8천만 달러), 라오스 1억 달러(수출 1,500만 달러, 수입 8,600만 달러), 미얀마 7억 6천만 달러(수출 4억 7천만 달러, 수입 2억 9천만 달러), 브루나이 2억 달러(수입 2억 달러, 수출 150만 달러) 등의 수준이다(부표 참조).

이들 5개국 가운데 유일한 농산물 순수출국인 미얀마의 주요 수출 농산물은 쌀(1억 달러)과 콩(2억 9천만 달러)으로 이들 두 품목의 수출이 전체 농산물 수출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미얀마의 수입 농산물은 담배, 식물성유 등이다. 캄보디아의 주요 수입 농산물은 담배(1억 2,600만 달러, 전체 농산물 수입의 45%), 당류, 음료, 주류 등 가공품이 대부분이며, 수출 농산물은 고무(수출액 2,800만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싱가포르의 수출 농산물은 주로 가공식품이다. 수출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담배로 수출액이 6억 달러를 상회한다(1996년도 수출액 13억 달러). 그밖에 수출 규모가 큰 품목은 주류, 커피, 코코아, 곡물조제품 등이며, 농산물 생산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농산물을 고르게 수입하고 있다(부표 참조).

2.7. 요약 및 시사점

ASEAN 국가들의 농산물 교역 특징은 첫째, 10개 회원국이 순수출국과 순수입국으로 양분되는 것이며, 둘째, 가공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원료 농산물 위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점, 셋째, 수출 농산물이 천연고무, 팜유, 열대과일 등 열대산품과 쌀, 카사바 등 곡물류에 집

중되어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천연고무, 팜유, 목재 등은 우리나라의 국내 생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원료 농산물로 수입할 수밖에 없는 품목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의 시장개방 협상에서 민감품목은 곡물류와 열대과실에 집중될 것이다. 곡물류와 열대과실은 우리나라 농산물과 직접적인 경쟁은 물론 대체수요를 통한 간접적인 경쟁을 통해서도 농업부문에 피해를 가져다 줄 것으로 우려된다.

ASEAN 국가들 가운데 농산물 교역 규모가 큰 국가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의 순이다. 이 가운데 싱가포르는 농산물 순수입국으로 우리나라와의 경쟁관계가 거의 없는 나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를 제외한 4대 농산물 교역국이 우리나라와 경합하는 형태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밖에 교역 규모는 작으나 농산물 순수출국인 베트남과 미얀마는 매우 제한적인 품목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경합하는 형태를 나타낼 것이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ASEAN 국가들의 농산물 경쟁력이 여타 수출경쟁국보다 낮아 시장 점유율이 크지 않았던 커피, 연초, 바나나, 파인애플 등 열대작물을 중심으로 관세장벽 철폐로 인한 수입선 전환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온대성

표 6-17. ASEAN 국가들의 주요 수출 농산물

국 가	품 목
인도네시아	고추, 파인애플, 팜유, 코코넛유, 차, 고무, 코코아, 커피, 연초,
말레이시아	식물성유(팜유, 대두유, 코코넛유), 커피, 연초, 고무, 코코아, 후추
필 리 핀	과실류(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식물성유(코코넛유), 야자열매, 연초, 설탕, 연초
태 국	곡물류(쌀, 카사바, 전분, 사료), 파인애플, 닭고기, 설탕, 식물성유, 고무
베 트 남	쌀, 유지작물(땅콩, 캐슈넛, 땅콩, 대두), 후추, 벌꿀, 커피, 고무, 돼지고기
미 얀 마	쌀, 대두

과실(사과, 배 등), 우리나라 특산품(인삼, 김치 등), 가공식품(주류, 음료, 과자류, 면류 등) 등은 ASEAN 국가들의 소득 증가에 따라 수출 증대가 예상된다.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업자원이 풍부하며 가격 경쟁력을 갖춘 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농업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ASEAN 국가간 생산비와 가격차가 큰 품목과 우리나라의 관세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무역창출효과가 발생하여 우리나라로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품목들 가운데 특히 중요한 품목으로는 곡물류 가운데 쌀, 카사바, 유지작물(대두, 땅콩 등), 채소류 가운데 고추, 과실류 가운데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축산물 가운데 닭고기, 기타 특용작물 가운데 차, 후추, 연초 등이 있다. 따라서 ASEAN 국가들과의 시장개방 협상에서 민감품목을 개관한다면 쌀, 카사바, 열대과일, 닭고기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한 ASEAN 회원국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 농업의 GDP 비중이 높은 인도네시아는 AFTA에서 상당수의 농산물을 자유화의 예외로 설정하고 있다. 한·ASEAN FTA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철폐에 대한 예외를 설정하거나, 유예기간을 신축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도 있으므로, 본격적인 FTA 추진에 앞서 시장개척 및 농업협력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제 7 장

한·ASEAN 농산물 무역

1. 한국과 ASEAN의 교역

우리나라와 ASEAN 10개국의 농산물 교역 규모는 연간 14억 달러 정도이며, 이 가운데 수출이 1억 달러 수입이 13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ASEAN 국가들에 대한 농산물 무역수지는 매년 적자를 나타냈으며, 2003년에는 1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와 ASEAN 국가들과의 농산물 교역의 특징은 지리적 인접성이나 외교·사회·문화 등 경제외적 긴밀도에 비해 교역 규모가 작다는 점과 우리나라가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ASEAN 10개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은 1억 달러 정도로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수출이 1억 달러를 넘게 된 것도 2000년 이후이다. 우리나라는 ASEAN 국가에 대한 수출에 있어서 축산물의 비중은 증가하고 임산물의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축산물 수출의 대부분은 필리핀으로 수출되는 돼지고기이며, 돼지고

기의 수출 규모는 2003년 700만 달러 정도이다. 농산물 수출의 대부분은 면류, 당류, 커피, 과자류 등 가공식품과 과실류이다. 과실류 수출은 배, 감, 과실조제품이 주를 이루며, 사과 수출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태이다. 그밖에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 대하여는 인삼과 사료가 수출되고 있다. ASEAN 국가들에 대한 농산물 수출 부진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농산물인 채소류와 특산품(인삼, 밤 등)의 수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ASEAN으로부터 수입하는 농림축산물 가운데 48%는 농산물, 46%는 임산물, 6%는 축산물이다. ASEAN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은 일부 곡물류(타피오카, 쌀), 열대과실(바나나, 파인애플), 식물성유(팜유), 특용작물(커피, 설탕, 코코아 등)과 소량의 화훼류 등이다. 수입되는 중요한 축산물로는 닭고기가 있고, 임산물은 원목, 제재목, 합판, 단판 등이 수입되며, 원목보다는 합판 등 가공품의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표 7-1. 한국의 대 ASEAN 농산물 무역

단위: 천 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수출	농산물	70,817	76,126	90,785	105,495	97,389	98,267
	축산물	3,613	7,197	4,712	20,020	9,991	11,369
	임산물	3,619	3,682	5,357	7,092	5,434	3,892
	총 계	78,049	87,005	100,854	132,607	112,814	113,528
수입	농산물	510,330	484,684	501,558	501,967	505,512	611,053
	축산물	10,943	19,100	27,295	53,875	58,427	75,028
	임산물	329,727	508,462	580,065	585,952	630,363	593,246
	총 계	851,000	1,012,246	1,108,918	1,141,794	1,194,302	1,279,327
무역 수지	농산물	-439,513	-408,558	-410,773	-396,472	-408,123	-512,786
	축산물	-7,330	-11,903	-22,583	-33,855	-48,436	-63,659
	임산물	-326,108	-504,780	-574,708	-578,860	-624,929	-589,354
	총 계	-772,951	-925,241	-1,008,064	-1,009187	-1,081488	-1,165799

자료: http://www.kati.net

ASEAN에 대한 농산물 수입의 특징은 국가별로 수입품이 특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열대산품과 가공용 원료 등 우리 농산물과 직접적으로 경쟁하지 않는 품목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되는 것은 임산물과 팜유,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되는 것은 열대과실,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것은 타피오카, 커피, 후추, 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것은 열대과실, 닭고기, 설탕, 커피 등으로 특화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2. ASEAN 회원국별 한국과 교역 현황

2.1. 말레이시아

2003년 우리나라의 말레이시아에 대한 농림축산물 수출은 1,150만 달러, 수입은 3억 6,600만 달러로 1998년 대비 수출은 72%, 수입은

표 7-2. 한국의 대 말레이시아 농산물 무역

단위: 천 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수출	농산물	6,026	11,353	7,714	9,043	10,257	10,723
	축산물	293	201	85	274	358	377
	임산물	347	299	621	807	573	402
	총 계	6,666	11,853	8,420	10,124	11,188	11,502
수입	농산물	122,837	111,997	100,054	91,596	106,793	121,745
	축산물	96	226	405	905	834	702
	임산물	132,114	189,928	231,014	234,060	252,178	243,995
	총 계	255,047	302,151	331,473	326,561	359,805	366,442
무역 수지	농산물	-116,811	-100,644	-92340	-82,553	-96,536	-111,022
	축산물	197	-25	-320	-631	-476	-325
	임산물	-131,767	-189,629	-230,393	-233,253	-251,605	-243,593
	총 계	-248,381	-290,298	-323,053	-316,437	-348,617	-354,940

자료: http://www.kati.net

표 7-3. 한국의 대 말레이시아 농산물 수출

단위: 천 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곡류	-	-	1	1	2	9
- 기타곡물	-	-	1	1	2	9
서류	116	-	-	-	-	-
- 감자	116	-	-	-	-	-
두류	-	1	-	4	-	-
전분	776	1,169	1,389	1,691	1,353	1,868
과실류	332	1,099	2,407	2,432	2,756	1,135
- 사과	258	159	332	93	15	21
- 배	-	2	129	244	486	102
- 단일과실조제품	7	24	22	96	78	44
-감	11	885	1,887	1,912	2,037	946
- 기타과실	56	29	37	87	140	22
채소류	38	57	108	158	73	114
- 김치	-	22	-	6	3	23
- 당근	-	-	-	12	-	-
- 토마토	-	13	-	-	-	-
- 딸기	-	-	-	-	6	26
- 마늘	-	-	-	-	17	-
- 고추	1	3	1	34	-	-
- 기타채소	37	19	107	106	47	65
화훼류	28	33	109	75	62	34
식물성유지	1,902	11	-	17	-	-
면류	166	242	502	618	1,447	3,116
과자류	230	108	356	471	886	1,017
당류	920	7,145	972	261	317	316
주류	98	148	225	379	306	430
인삼류	74	56	57	49	148	113
소오스류	82	31	141	188	169	249
커피류	143	101	137	1,017	770	516
기타농산물	1,237	1,153	1,311	1,687	1,970	1,815
농산물전체	6,026	11,353	7,714	9,043	10,257	10,723
돼지고기	-	-	10	43	-	-
축산부산물	236	29	39	68	41	89
단백질류	2	19	36	-	2	11
가금류	17	153	-	127	282	275
기타 축산물	38	-	-	36	33	2
축산물전체	293	201	85	274	358	377
합판	-	-	-	-	-	-
단판	193	-	-	-	-	27
섬유판	67	121	197	113	59	35
기타목재류	63	52	80	81	88	273
석제품	1	47	23	16	35	11
견과류	-	64	320	597	388	36
기타 임산물	23	15	1	-	3	20
임산물전체	347	299	621	807	573	402
총 계	6,666	11,853	8,420	10,124	11,188	11,502

자료: http://www.kati.net

표 7-4. 한국의 대 말레이시아 농산물 수입

단위: 천 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곡류	-	-	315	653	-	-
- 옥수수	-	-	315	653	-	-
두류	402	301	339	384	369	289
- 비그나파세러스종	312	234	317	331	285	269
- 완두	90	45	22	15	10	-
- 기타 두류	-	22	-	38	74	20
과실류	7	9	95	158	90	103
- 과실조제품	-	-	-	53	27	39
- 과실혼합물	-	-	19	5	-	-
- 감귤류	-	-	-	-	-	-
- 코코넛	6	9	12	2	7	20
- 기타과실류	1	-	64	98	56	44
채소류	7,333	9,601	8,911	6,079	3,610	3,928
- 후추	7,332	9,600	8,905	6,036	3,576	3,910
- 기타채소류	1	1	6	43	34	18
화훼류	5	7	20	36	4	138
식물성유지	100,697	88,539	76,421	66,924	82,728	99,796
- 팜유	95,883	79,134	68,842	63,686	76,920	91,137
- 기타 식물성유지	4,814	9,405	7,579	3,238	5,808	8,659
박류	10,975	8,442	8,441	10,134	9,450	5,751
과자류	64	325	957	1,031	1,261	1,120
기타 농산물	3,354	4,773	4,555	6,197	9,281	10,620
농산물전체	122,837	111,997	100,054	91,596	106,793	121,745
낙농품	-	145	41	56	50	47
축산부산물	53	52	176	551	478	533
기타 축산물	43	29	188	298	306	122
축산물전체	96	226	405	905	834	702
원목	33,271	51,812	51,479	25,713	25,068	22,145
제재목	39,896	47,328	42,298	38,177	33,282	28,858
합판	34,235	54,601	82,356	97,082	116,743	134,131
단판	10,603	17,688	30,376	44,352	48,662	36,802
섬유판	461	287	798	8,887	17,706	11,291
파티클보드	4,052	9,535	12,881	10,064	3,774	4,754
기타목재	7,209	4,889	5,566	5,240	3,401	3,279
기타 임산물	2,387	3,788	5,260	4,545	3,542	2,735
임산물전체	132,114	189,928	231,014	234,060	252,178	243,995
총 계	255,047	302,151	331,473	326,561	359,805	366,442

자료: http://www.kati.net

44% 증가하였다. 무역수지는 1998-2003년 기간에 총 18억 8,000만 달러(연평균 3억 8,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임산물이 전체 수입의 대부분(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축산물 수입의 미미한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로 수출한 농산물은 과실류(사과, 배, 단감 등 1백만 달러), 면류(3백만 달러), 과자류(1백만 달러), 전분(2백만 달러) 등이다. 팜유(기타 포함)의 수입 규모는 1억 달러로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한 농산물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농산물 수입액 1억 2천만 달러 가운데 80% 이상이 팜유임). 그밖에 중요한 수입 품목은 후추(400만 달러), 박류(600만 달러), 과자(1백만 달러) 등이 있다. 임산물은 합판(1억 3,400만 달러), 단판(3,700만 달러), 제재목(2,900만 달러), 원목(2,200만 달러) 등이 주로 수입되고 있다.

2.2. 인도네시아

2003년도 인도네시아에 대한 수출은 3,250만 달러, 수입은 4억 달러로 1998년 대비 수출은 32%, 수입은 37% 증가하였다. 무역수지는

표 7-5.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농산물 무역

단위: 천 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수출	농산물	23,890	21,110	22,352	23,649	25,426	30,559
	축산물	204	369	625	515	414	606
	임산물	624	874	1,534	1,938	1,731	1,344
	총 계	24,718	22,353	24,511	26,102	27,571	32,509
수입	농산물	112,756	118,788	95,822	62,887	95,271	103,406
	축산물	1,006	1,192	1,162	1,113	979	764
	임산물	179,612	263,826	286,294	292,607	312,899	295,747
	총 계	293,374	383,806	383,278	356,607	409,149	399,917
무역수지	농산물	-88,866	-97,678	-73,470	-39,238	-69,845	-72,847
	축산물	-802	-823	-537	-598	-565	-158
	임산물	-178,988	-262,952	-284,760	-290,669	-311,168	-294,403
	총 계	-268,656	-361,453	-358,767	-330,505	-381,578	-367,408

자료: http://www.kati.net

표 7-6.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농산물 수출

단위: 천 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곡류	165	1,979	2,337	1,986	480	190
- 밀	163	1,609	2,337	1,978	463	141
- 기타 곡류	2	370	-	8	17	49
두류	-	10	2	-	1	-
전분	342	635	942	1,418	1,799	1,849
과실류	743	909	1,855	1,450	1,526	1,812
- 사과	62	96	346	241	22	112
- 배	651	755	1,364	956	1,205	1,390
- 복숭아	-	-	4	4	12	3
- 단일과실조제품	-	-	23	84	127	189
- 포도	-	17	66	33	91	24
- 감귤	-	24	52	34	28	83
- 기타 과실류	30	17	-	98	41	11
채소류	36	752	922	3,255	1,697	763
- 김치	3	135	148	96	81	106
- 토마토	-	-	-	-	30	-
- 양파	-	-	-	67	104	-
- 마늘	-	-	-	2,632	715	-
- 고추	-	-	297	36	10	17
- 채소종자	31	593	468	417	750	609
- 기타 채소류	2	24	9	7	7	31
유지가공품	92	386	144	78	250	383
사료	101	133	236	1,169	1,656	2,035
면류	323	795	1,050	1,358	2,460	3,353
과자류	171	424	632	401	629	546
당류	17,224	9,608	9,265	5,808	5,188	6,365
주류	253	223	242	352	257	398
인삼류	182	325	234	186	138	235
연초류	535	1	167	1	232	956
커피류	2,048	2,625	2,736	4,062	6,697	8,300
식물성물질	148	392	525	309	131	85
식물성액즙	197	1,312	708	1,321	1624	2,446
기타 농산물	1,330	601	355	495	661	841
농산물전체	23,890	21,110	22,352	23,649	25,426	30,559
축산부산물	14	111	360	190	165	406
단백질류	189	210	254	223	217	140
기타 축산물	1	48	11	102	32	60
축산물전체	204	369	625	515	414	606
제재목	407	31	114	255	247	270
합판	-	-	-	590	-	24
단판	21	209	398	459	239	109
섬유판	74	482	606	464	858	573
파티클보드	15	30	11	5	28	34
기타 목재	86	82	174	100	296	289
기타 임산물	21	40	231	65	63	45
임산물전체	624	874	1,534	1,938	1,731	1,344
총 계	24,718	22,353	24,511	26,102	27,571	32,509

자료: http://www.kati.net

표 7-7.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농산물 수입

단위: 천 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곡류	426	-	-	-	-	-
- 옥수수	426	-	-	-	-	-
서류	16,037	7,456	5,364	2,473	-	-
- 타피오카	16,037	7,456	5,364	2,473	-	-
두류	-	15	-	-	-	4
전분	130	81	46	16	3	6
과실류	181	202	213	880	483	906
- 파인애플	93	83	114	297	79	89
- 코코넛	-	2	16	2	19	27
- 과실혼합물	13	14	10	365	115	51
- 기타 과실류	75	103	73	216	270	739
채소류	2,025	2,380	3,912	1,461	1,256	1,258
- 오이	-	-	-	9	27	8
- 후추	1,934	2,114	3,658	1,242	1,036	956
- 채소종자	88	252	197	206	118	219
- 기타 채소류	3	14	57	4	75	75
화훼류	58	111	37	57	53	14
버섯류	62	377	209	108	157	131
식물성유지	18,454	30,246	22,281	4,086	19,891	22,946
박류	43,473	38,192	30,696	30,465	42,262	51,528
사료	410	534	1,566	1,099	1,177	1,268
지방성물질	457	622	1,011	1,479	1,455	1,438
커피류	17,277	24,599	12,046	3,516	8,979	5,137
코코아류	446	1,327	2,989	2,139	1,969	2,950
주류	1,890	228	581	353	376	424
당류	7,099	3,710	3,886	4,747	3,718	2,495
과자류	1,552	4,564	5,178	4,779	6,121	6,293
면류	687	363	646	2,102	2,758	2,261
기타 농산물	2,092	3,781	5,161	3,127	4,613	4,347
농산물 전체	112,756	118,788	95,822	62,887	95,271	103,406
축산부산물	137	44	79	117	204	161
골류	6	5	48	37	64	61
가금류	796	1,000	903	747	285	-
기타 축산물	67	143	132	212	426	542
축산물전체	1,006	1,192	1,162	1,113	979	764
원목	136	225	856	8,385	733	196
제재목	31,149	60,715	56,026	66,249	76,393	61,072
합판	88,241	139,231	146,722	134,171	154,603	170,009
단판	694	929	917	681	490	273
섬유판	1,102	8,804	20,166	22,180	20819	15,793
파티클보드	4,652	7,680	9,255	6,553	6074	5,470
기타 목재	41,829	30,168	32,146	34,282	32,217	22,871
석제품	11	38	87	415	384	537
목탄	8,980	11,984	15,256	15,350	16,672	14,790
기타 임산물	2,818	4,052	4,863	4,341	4,514	4,736
임산물전체	179,612	263,826	286,294	292,607	312,899	295,747
총 계	293,374	383,806	383,278	356,607	409,149	399,917

자료: http://www.kati.net

1998-2003년 기간에 총 21억 달러(연평균 4억 1,3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수출은 대부분이 농산물이며, 임산물과 축산물 수출은 미미하다. 반면 우리나라의 수입은 3/4 정도가 임산물이며, 축산물 수입은 거의 없다.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로 수출한 농산물 가운데 품목별로는 과실류 수출이 많았으나 수출 규모는 작은 편이다. 과실류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등이 180만 달러 정도 수출되었다(배가 140만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함). 그밖에 1백만 달러 이상이 수출된 품목은 커피(830만 달러), 면류(3백만 달러), 식물성 액즙(245만 달러), 사료(200만 달러), 전분(180만 달러), 과자류(1백만 달러) 등이다. 따라서 배를 제외하고는 신선 과실과 채소, 축산물 등의 수출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 가운데 곡물, 신선 채소 및 과실, 화훼류 등은 거의 없다. 농산물(축산물과 임산물 제외) 수입액 1억 달러 가운데 박류 5,200만 달러, 식물성유지 2,300만 달러, 커피 500만 달러, 코코아 300만 달러, 당류 250만 달러, 과자 630만 달러 등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임산물은 합판(1억 7,000만 달러), 제재목(6,100만 달러), 섬유판(1,600만 달러) 등이 주로 수입된다.

2.3. 태국

한국의 ASEAN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은 임산물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농산물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2003년도 태국에 대한 수출은 1,100만 달러, 수입은 2억 3,500만 달러 수준이다. 2003년 교역은 1998년 대비 수출은 1.7배, 수입은 86% 증가한 것이다. 무역수지는 1998～2003년 기간에 총 1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연간 2억 달러 정도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가 태국으로 수출한 농산물은 주로 가공식품이며, 수출 규모는

사료 350만 달러, 유가공품 170만 달러, 과자 100만 달러 등이다. 과실류 가운데에서는 감의 수출 규모가 가장 크며(60만 달러), 배와 사과도 일부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축산물과 임산물 수출은 매우 부진한 상태이다.

태국은 ASEAN 국가들 가운데 가장 다양한 농산물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은 우리 농산물과 직접적으로 경쟁이 될 수 있는 곡물, 채소, 과실, 화훼, 닭고기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우리나라가 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은 곡물류 가운데 쌀(2003년 기준으로 470만 달러), 타피오카(580만 달러), 전분(150만 달러) 등이 있고, 과실류로는 파인애플(360만 달러)과 과실 혼합물 등이 있다. 채소류 가운데에서는 스위트콘(570만 달러)을 비롯하여 채소종자, 토마토, 토란, 후추 등이 수입되고 있다. 화훼류와 닭고기의 수입 규모는 각각 350만 달러와 6,200만 달러에 달한다. 임산물 수입은 전체 농산물의 13%에 달하는 3,000만 달러 정도로 파티클보드(1,300만 달러), 섬유판(900만 달러), 칩(400만 달러), 목탄(170만 달러) 등이 수입되고 있다.

표 7-8. 한국의 대 태국 농산물 무역

단위: 천 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수출	농산물	3,161	4,166	9,076	10,627	12,114	10,025
	축산물	544	1,716	575	979	1,100	662
	임산물	51	187	198	216	620	47
	총 계	3,756	6,069	9,849	11,822	13,834	10,734
수입	농산물	111,515	66,136	108,390	134,460	102,545	134,869
	축산물	9,290	16,544	24,544	51,439	53,944	69,341
	임산물	5,631	34,711	42,676	39,415	39,989	30,424
	총 계	126,436	117,391	175,610	225,314	196,478	234,634
무역수지	농산물	-108,354	-61,970	-99,314	-123,833	-90,431	-124,844
	축산물	-8,746	-14,828	-23,969	-50,460	-52,844	-68,679
	임산물	-5,580	-34,524	-42,478	-39,199	-39,369	-30,377
	총 계	-122,680	-111,322	-165,761	-213,492	-182,644	-223,900

자료: http://www.kati.net

표 7-9. 한국의 대 태국 농산물 수출

단위: 천 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곡류	-	-	1,561	-	-	-
- 밀	-	-	1,561	-	-	-
서류	134	-	-	-	-	-
- 감자	134	-	-	-	-	-
두류	-	-	-	-	-	-
과실류	661	784	828	804	910	793
- 사과	558	266	170	79	-	18
- 배	91	79	149	171	225	126
- 감	-	430	492	541	635	597
- 기타 과실류	12	9	17	13	50	52
채소류	221	265	233	391	272	332
- 김치	18	3	-	-	-	-
- 채소종자	203	248	219	387	241	332
- 기타 채소류	-	14	14	4	31	-
화훼류	2	6	-	5	-	-
버섯류	-	-	-	-	-	-
유지가공품	377	178	729	974	1,330	1,731
사료	76	115	881	2,997	3,332	3,520
면류	13	26	101	285	436	903
과자류	773	1,398	1,420	558	758	1,047
음료	217	52	46	41	46	63
당류	68	59	74	47	49	25
주류	29	41	2,373	3,869	3,100	202
인삼류	224	212	360	225	338	264
코코아류	38	301	216	148	438	701
기타 농산물	330	735	254	288	1,105	444
농산물전체	3,161	4,166	9,076	10,627	12,114	10,025
돼지고기	140	1,314	165	182	191	5
가금육류	-	-	47	225	68	-
축산부산물	345	312	309	375	284	328
단백질류	59	-	48	153	166	107
기타 축산물	-	90	6	44	391	222
축산물전체	544	1,716	575	979	1,100	662
제재목	-	75	-	-	20	10
섬유판	-	-	2	-	133	13
기타목재	16	26	12	13	241	8
견과류	-	25	181	182	187	-
석제품	-	38	-	11	30	12
기타 임산물	35	23	3	10	9	4
임산물전체	51	187	198	216	620	47
총 계	3,756	6,069	9,849	11,822	13,834	10,734

자료: http://www.kati.net

표 7-10. 한국의 대 태국 농산물 수입

단위: 천 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곡류	5,497	1,987	9,076	3,746	-	4,666
- 쌀	5,497	1,987	9,076	3,746	-	4,666
서류	24,985	-	1,017	13,378	3,217	5,842
- 타피오카	24,985	-	1,017	13,378	3,217	5,842
두류	80	68	75	79	56	160
전분	630	307	677	756	1,887	1,490
과실류	3,034	5,895	6,062	7,617	12,402	12,637
- 파인애플	1,288	3,399	3,578	2,799	3,791	3,621
- 코코넛	5	65	13	136	174	437
- 캐슈넛	-	46	-	40	-	-
- 과실혼합물	1,179	1,795	879	891	1,306	1,659
- 단일과실조제품	-	-	-	196	27	53
- 기타과실	562	590	1,592	3,555	7,104	6,867
채소류	4,769	5,322	6,033	5,698	6,638	8,131
- 토마토	222	141	66	31	22	291
- 토란줄기	542	218	206	203	158	569
- 채소종자	482	570	1,232	864	320	889
- 후추	1	30	48	105	163	77
- 스위트콘	2,914	3,969	3,937	4,201	5,398	5,665
- 기타 채소류	608	394	544	294	577	640
화훼류	1,378	2,457	2,722	3,430	3,581	3,461
식물성유지	750	470	484	3,039	1,360	3,008
식물성액즙	64	69	221	775	43	22
기타 식물성물질	1,388	2,865	3,856	5,055	5,679	7,651
사료	891	1,640	2,132	2,817	3,065	4,481
커피류	9,037	4,404	5,136	3,680	124	2,674
한약재	916	661	1,511	1,319	420	337
당류	56,634	38,829	66,886	78,805	59,399	74,866
과자류	632	310	1,100	1,437	1,300	1,300
조제농산물	51	34	224	644	734	1,308
기타 농산물	779	818	1,178	2,185	2,640	2,835
농산물 전체	111,515	66,136	108,390	134,460	102,545	134,869
가금육류	9,219	16,283	23,646	50,061	49,160	61,736
축산부산물	2	88	800	1,117	3,490	6,375
기타 축산물	69	173	98	261	1,294	1,230
축산물전체	9,290	16,544	24,544	51,439	53,944	69,341
섬유판	561	12,620	17,837	15,717	17,111	9,167
파티클보드	2,836	16,691	19,765	18,905	15,931	13,386
목탄	435	720	1,435	1,378	1,935	1,689
기타목재	1,287	3,964	2,881	1,788	1,896	1,567
칩,삭편상의 목재	-	-	-	747	2,201	3,993
기타 임산물	512	716	758	880	915	622
임산물전체	5,631	34,711	42,676	39,415	39,989	30,424
총 계	126,436	117,391	175,610	225,314	196,478	234,634

자료: http://www.kati.net

2.4. 필리핀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농산물 교역 규모는 연간 1억 8천만 달러로 다른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 비해 작은 편이다. 그러나 필리핀은 ASEAN 1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이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국가이다. 우리나라의 2003년 필리핀에 대한 농산물 수출은 2,800만 달러, 수입은 1억 7,6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억 4,800만 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다. 무역수지는 1998-2003년 기간에 총 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가 필리핀으로 수출한 농산물 가운데 수출 규모가 큰 품목은 전분(700만 달러), 당류(600만 달러), 면류(240만 달러), 과자(100만 달러) 등 가공식품이 대부분이다. 신선 농산물 가운데 과실류와 채소류의 수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축산물 가운데 돼지고기의 수출이 700만 달러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2001년 1,600만 달러가 수출됨).

표 7-11. 한국의 대 필리핀 농산물 무역

단위: 천 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수출	농산물	19,357	18,698	25,991	35,894	24,580	20,317
	축산물	2,090	4,636	2,621	16,622	6,505	7,136
	임산물	860	715	1,058	1,436	1,095	834
	총 계	22,307	24,049	29,670	53,952	32,180	28,287
수입	농산물	104,934	119,879	129,438	145,449	141,323	173,466
	축산물	7	67	34	20	69	75
	임산물	1,407	1,291	2,224	2,321	2,833	2,946
	총 계	106,348	121,237	131,696	147,790	144,225	176,487
무역수지	농산물	-85,577	-101,181	-103,447	-109,555	-116,743	-153,149
	축산물	2,083	4,569	2,587	16,602	6,436	7,061
	임산물	-547	-576	-1,166	-885	-1,738	-2,112
	총 계	-84,041	-97,188	-102,026	-93,838	-112,045	-148,200

자료: http://www.kati.net

표 7-12. 한국의 대 필리핀 농산물 수출

단위: 천 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곡류	2	99	127	49	78	56
- 밀	1	76	85	30	72	56
- 옥수수	-	23	39	19	-	-
- 기타 곡물	1	-	3	-	6	-
서류	-	-	-	-	-	14
- 감자	-	-	-	-	-	14
두류	14	5	10	14	2	9
전분	1,169	6,218	7,884	11,734	7,896	7,167
과실류	352	330	278	175	235	273
- 사과	49	26	1	-	-	3
- 배	25	31	22	90	87	60
- 감	-	-	-	24	2	-
- 과실혼합물	-	-	54	-	2	36
- 단일과실조제품	276	273	201	53	100	105
- 기타 과실류	2	-	-	8	44	69
채소류	35	145	145	246	273	144
- 김치	-	-	1	2	14	48
- 채소종자	35	69	135	220	145	71
- 고추	-	69	1	9	-	-
- 기타 채소	-	7	8	15	114	25
화훼류	4	-	-	1	-	-
버섯류	-	-	-	-	-	-
유지가공품	164	41	127	63	91	121
식물성액즙	126	47	-	182	75	607
사료	170	549	581	382	407	360
면류	249	410	451	1,894	2,688	2,383
과자류	378	607	697	839	1,085	999
음료	192	-	-	37	39	139
당류	15,552	8,218	14,578	19,013	10,546	6,234
주류	311	1,491	217	207	301	425
인삼류	85	101	112	115	155	247
커피류	43	123	356	606	286	302
기타 농산물	511	314	428	337	423	837
농산물전체	19,357	18,698	25,991	35,894	24,580	20,317
돼지고기	1,705	3,810	1909	16,195	5,837	6,946
축산부산물	224	238	476	144	322	15
낙농품	49	-	40	2	24	82
단백질류	80	132	170	98	177	71
기타 축산물	32	456	26	183	145	22
축산물전체	2,090	4,636	2,621	16,622	6,505	7,136
섬유판	386	322	247	175	139	165
기타 목재	405	354	809	1,259	693	547
수지류	-	-	-	-	240	77
석제품	17	2	1	-	11	27
기타 임산물	52	37	1	2	252	95
임산물전체	860	715	1,058	1,436	1,095	834
총 계	22,307	24,049	29,670	53,952	32,180	28,287

자료: http://www.kati.net

표 7-13. 한국의 대 필리핀 농산물 수입

단위: 천 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곡류	-	-	-	-	-	-
서류	-	-	-	-	-	-
두류	10	-	-	-	1	-
전분	134	280	114	22	18	8
과실류	56,704	96,478	103,980	101,723	114,397	142,587
- 배	-	-	-	-	-	-
- 파인애플	9,050	15,481	15,073	16,666	18,427	23,669
- 망고	1	-	1,310	695	1,602	2,143
- 바나나	37,423	68,381	73,082	69,993	78,196	90,681
- 코코넛	34	388	736	474	696	798
- 과실혼합물	8,934	10,130	11,526	11,954	12,491	12,193
- 단일과실조제품	5	32	66	147	959	1,540
- 기타 과실	1,257	2,066	2,187	1,794	2,026	11,563
채소류	-	-	28	23	5	274
- 채소종자	-	-	25	23	-	-
- 양파	-	-	-	-	-	224
- 기타 채소류	-	-	3	-	5	50
화훼류	3	3	1	-	-	9
식물성유지	7,372	1,314	570	10,766	3,414	3,465
박류	23,467	9,996	17,741	25,468	17,389	21,675
사료	6	82	50	158	252	667
과자류	112	241	772	962	1,189	1,699
당류	13,995	8,768	3,659	3,847	1,512	547
코코아류	2,199	1,052	860	1,415	1,833	1,434
기타 농산물	932	1,665	1,663	1,065	1,313	1,101
농산물전체	104,934	119,879	129,438	145,449	141,323	173,466
쇠고기	-	-	6	3	10	10
돼지고기	-	12	-	-	-	-
축산부산물	-	20	4	9	18	27
낙농품	-	-	-	-	10	-
단백질류	-	-	-	7	22	-
기타 축산물	7	35	24	1	9	38
축산물전체	7	67	34	20	69	75
제재목	220	170	93	27	41	112
단판	153	205	250	183	243	203
목탄	329	318	962	1,051	1,244	1,493
기타 목재	486	412	721	813	954	796
석제품	1	25	4	28	35	173
기타 임산물	218	161	194	219	316	169
임산물전체	1,407	1,291	2,224	2,321	2,833	2,946
총 계	106,348	121,237	131,696	147,790	144,225	176,487

자료: http://www.kati.net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산물은 과실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임산물, 축산물, 화훼류, 채소, 곡물 등의 수입은 거의 없다. 과실류 수입 규모는 1억 4,300만 달러로 농림축산물 전체 수입의 80%를 넘는 수준이다. 과실류의 품목별 수입 규모는 바나나 9,100만 달러, 파인애플 2,400만 달러, 과실 혼합물 1,200만 달러, 망고 200만 달러, 코코넛 80만 달러 등의 순이다.

2.5. 베트남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농산물 교역 규모는 연간 7,300만 달러로 다른 주요 ASEAN 국가들에 비해 작은 편이다. 2003년 우리나라가 베트남으로 수출한 농산물은 1천만 달러, 수입한 농산물은 6,300만 달러이다. 베트남에 대한 수출은 지난 5년간 매년 1천만 달러 정도로 정체되어 있으나 수입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베트남에 대한 1998-2003년 기간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총 2억 6,700만 달러이다.

표 7-14. 한국의 대 베트남 농산물 무역

단위: 천 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수출	농산물	10,007	7,062	7,874	7,551	6,517	7,362
	축산물	112	186	714	1,496	1,231	2,086
	임산물	527	375	228	186	432	599
	총 계	10,646	7,623	8,816	9,233	8,180	10,047
수입	농산물	40,356	49,623	52,146	49,916	38,116	54,927
	축산물	57	110	189	69	127	228
	임산물	2,900	5,568	5,842	6,233	6,613	8,128
	총 계	43,313	55,301	58,177	56,218	44,856	63,283
무역수지	농산물	-30,349	-42,561	-44,272	-42,365	-31,599	-47,565
	축산물	55	76	525	1,427	1,104	1,858
	임산물	-2,373	-5,193	-5,614	-6,047	-6,181	-7,529
	총 계	-32,667	-47,678	-49,361	-46,985	-36,676	-53,236

자료: http://www.kati.net

표 7-15. 한국의 대 베트남 농산물 수출

단위: 천 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곡류	1,735	1,608	308	118	102	169
- 밀	1,735	1,608	305	117	102	168
- 기타농산물	-	-	3	1	-	1
전분	33	70	189	240	154	85
과실류	6	9	15	13	46	77
- 배	-	9	15	10	1	36
- 과일조제품	-	-	-	-	44	8
- 기타 과실	6	-	-	3	1	33
채소류	29	142	133	198	142	171
- 채소종자	26	126	133	198	141	166
- 기타채소	3	16	-	-	1	5
버섯류	1	66	422	196	254	422
유지가공품	14	35	70	43	69	123
박류	739	-	-	-	-	-
사료	16	230	399	847	1,185	1,904
코코아류	88	178	259	89	111	103
인삼류	1,941	1,827	2,631	1,569	1,926	2,198
주류	215	432	248	379	343	305
당류	3,333	50	104	153	221	119
과자류	1,513	1,745	2,485	2,904	623	372
면류	133	419	475	528	467	764
기타 농산물	211	251	136	274	874	550
농산물 전체	10,007	7,062	7,874	7,551	6,517	7,362
낙농품	16	4	18	115	142	410
축산부산물	95	112	342	932	781	1,118
기타육류	-	-	-	2	-	15
단백질류	-	56	354	420	231	290
기타축산물	1	14	-	27	77	253
축산물 전체	112	186	714	1,496	1,231	2,086
제재목	12	-	-	16	64	86
합판	94	-	-	8	39	8
단판	78	115	138	-	4	-
섬유판	182	81	61	127	243	328
기타목재	127	159	25	16	37	144
기타 임산물	34	20	4	19	45	33
임산물 전체	527	375	228	186	432	599
총 계	10,646	7,623	8,816	9,233	8,180	10,047

자료: http://www.kati.net

표 7-16. 한국의 대 베트남 농산물 수입

단위: 천 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곡류	183	2,622	44	20	-	-
- 쌀	-	2,553	-	3	-	-
- 밀렛	183	69	44	17	-	-
서류	7,723	17,124	21,563	23,667	11,881	18,036
- 타피오카	7,723	17,124	21,563	23,667	11,874	18,036
- 기타 서류	-	-	-	-	7	-
채유종실	748	1,227	1,328	1,270	1,789	2,661
과실류	1,253	1,381	944	1,065	1,245	1,297
- 과실혼합물	71	67	156	129	256	314
- 기타과실류	1,182	1,314	788	936	989	983
채소류	1,007	2,184	1,770	1,443	1,184	1,917
- 호박	-	-	42	38	185	185
- 양파	-	-	-	-	-	327
- 파	188	130	24	-	-	-
- 채소종자	13	2	70	28	48	-
- 후추	782	1,997	1,565	1,331	888	1,159
- 기타 채소류	24	55	69	46	63	246
농산부산물	3,125	3,664	4,998	4,348	4,035	1,940
커피류	23,765	16,678	17,170	14,264	13,668	23,884
한약재	2,044	4,243	3,642	2,254	2,375	1,755
과자류	110	220	395	829	1,088	1,808
면류	3	22	32	93	360	912
기타농산물	395	258	260	663	491	717
농산물전체	40,356	49,623	52,146	49,916	38,116	54,927
축산부산물	14	8	12	17	102	118
가금육류	-	-	-	16	-	72
한약재	-	45	-	-	-	-
기타육류	43	57	177	36	16	29
기타 축산물	-	-	-	-	9	9
축산물전체	57	110	189	69	127	228
제재목	76	247	171	101	184	176
칩, 삭편상의 목재	909	2,331	1,405	2,016	2,546	3,596
목탄	-	81	70	15	18	33
기타 목재	648	1,573	2,706	2,627	2,477	2,504
수지류	57	10	87	70	94	216
석제품	1	6	64	167	236	222
기타 임산물	1,209	1,320	1,339	1,237	1,058	1,381
임산물전체	2,900	5,568	5,842	6,233	6,613	8,128
총 계	43,313	55,301	58,177	56,218	44,856	63,283

자료: http://www.kati.net

우리나라가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농산물은 인삼(220만 달러), 사료(200만 달러), 축산부산물 등 3개 품목의 비중이 55%를 넘는다. 그밖에 배, 채소종자, 버섯, 과자, 면류, 당류 등이 소량 수출되고 있다.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산물은 타피오카(1,800만 달러), 유지작물(270만 달러), 과실조제품(130만 달러), 후추(120만 달러), 커피(2,400만 달러), 과자(180만 달러), 한약재(180만 달러) 등이다. 임산물로는 칩, 목재 등이 수입되며, 수입 규모는 800만 달러 수준이다.

2.6. 기타 ASEAN 국가

라오스, 브루나이, 캄보디아 등과의 농산물 교역은 매우 적은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2003년 브루나이와의 교역액은 9만 달러, 라오스와의 교역액은 14만 달러에 불과하다. 기타 국가들 가운데 교역 규모가 큰 나라는 미얀마와 싱가포르이다. 2003년 싱가포르에 대한 수출은 2천만 달러, 수입은 2,200만 달러이며, 미얀마에 대한 수출은 23만 달러, 수입은 1,600만 달러이다(미얀마로부터의 수입은 주로 합판임). 싱가포르로 수출하는 농산물은 당류(680만 달러), 커피(330만 달러), 과자(130만 달러), 감(40만 달러), 과실조제품(100만 달러) 등이고, 수입하는 농산물은 식물성 기름, 유가공품, 사료, 코코아, 주류, 축산부산물 등이다. 미얀마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은 두류(220만 달러), 한약재(100만 달러), 옥수수(100만 달러) 등이며, 임산물은 합판이 1천만 달러 정도 수입된다(부표 참조).

2.7. 요약 및 시사점

우리나라와 ASEAN 국가들의 농산물 무역은 ASEAN 국가들의 수출이 수입을 크게 앞서는 일방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매년 1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열대과일, 코코아, 커피,

후추, 당류, 박류, 팜유를 비롯한 식물성 기름 등 우리 농산물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품목이다. 또한 많은 품목들이 가공식품이나 축산업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품목은 과실과 가공식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와 ASEAN이 상호 시장개방을 추진할 경우 가장 민감하게 경쟁하게 될 부문은 곡물과 과실이다. 쌀은 우리나라도 과잉 공급 상태에 있으나 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ASEAN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는 일방적인 형태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과실류는 우리나라가 ASEAN 국가들로부터 열대성 과일을 수입하고 온대성 과일은 수출하는 산업내 무역의 형태로 교역이 증진될 것이다. 과실류의 수출국인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미얀마 등의 관세율은 39～134%로 높아 관세 철폐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출 증대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전분(전분 원료 작물 포함)과 닭고기 등은 ASEAN으로부터의 수입 증가 형태로 교역이 증가할 부분이다.

제 8 장

ASEAN의 농산물 관세

1. 관세율 분포 및 관세부과 방식

ASEAN 회원국들 간에는 역내 공동유효특혜관세(CEPT)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농산물과 비농산물을 포함한 전체 상품의 평균 CEPT 수준(2003년 기준)은 싱가포르 0%, 태국 4.64%, 말레이시아 2.06%, 인도네시아 3.71%, 필리핀 3.75% 등이며, 가장 높은 관세율은 라오스의 5%이다. ASEAN 국가들의 평균 CEPT 수준은 2.68%(2003년)로 매우 낮고 관세율의 분포 또한 국가별로 편차가 크지 않다.

ASEAN 국가 가운데 WTO 회원국은 ASEAN 역외 WTO 회원국에 대해서는 WTO 양허세율을 적용한다. WTO 회원국이 아닌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등 3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7개국의 농산물 WTO 양허관세율 수준은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농산물의 평균 양허관세율(종가세 품목의 경우)은 미얀마 84.4%, 인도네시아 48%, 태국 34.9%, 필리핀 34%, 브루나이 23.5%, 말레이시아 11.8%, 싱가포르 9.6% 등이다<표 8-1>. 미얀마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율

63.8%에 비해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국별 최고 양허세율을 보면, 말레이시아 168%, 인도네시아 210, 태국 226%, 미얀마 550%, 필리핀 60%, 브루나이 50%, 싱가포르 10% 등으로 우리나라의 최고 세율보다 낮다. 미얀마는 ASEAN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양허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165%의 세율이 부과되는 품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관세가 매우 높은 나라로 볼 수 있다.

ASEAN 국가들의 관세부과 방식은 비교적 단순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ASEAN 회원국이면서 WTO 회원국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미얀마 등 7개국 가운데 가장 복잡한 관세부과 형태를 보이고 있는 국가는 말레이시아이다. 말레이시아는 종가세 이외에 종량세, 복합세, 선택세 등 네 가지 관세부과 방식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종가세만 운영하고 있다.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은 몇몇 품목에 대하여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ASEAN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관세부과 방식이 종가세 위주로 단순화되어 있어 투명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관세 협상에 있어서 관세부과 방식에 따른 복잡한 문제는 최소화 될 전망이다.

표 8-1. ASEAN 국가별 양허관세 비교

단위: 개, %

	품목수(개)	평균(%)	최빈값(%)	최고세율(%)
말레이시아	1,300	11.8	5.0	168.0
인도네시아	1,341	48.0	40.0	210.0
태 국	740	34.9	30.0	226.0
필 리 핀	753	34.0	40.0	60.0
싱 가 포 르	837	9.6	10.0	10.0
브 루 나 이	871	23.5	20.0	50.0
미 얀 마	240	84.4	165.0	550.0
한 국	1,307	63.8	27.0	887.4

자료: WTO 홈페이지(http://www.wto.org).

ASEAN 국가들의 관세율 구간별 품목수의 분포는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10% 미만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이 전체의 72%로 가장 많았다<표 8-3>. 따라서 평균 관세율이 11.8%로 싱가포르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싱가포르는 모든 농산물이 10% 미만의 관세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루나이는 전체 품목의 88%가 20% 미만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반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3개국은 20～50% 국간의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이 가장 많고, 평균 관세율 또한 높은 편이다. 미얀마는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100% 이상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표 8-2. ASEAN 국가들의 관세부과 방식

단위: 개, %

	종가세	종량세	복합세	선택세	합계
말레이시아	964 (74.2)	113 (8.7)	182 (14.0)	41 (3.2)	1,300 (100.0)
인도네시아	1,341 (100.0)	0 (0.0)	0 (0.0)	0 (0.0)	1,341 (100.0)
태 국	736 (99.5)	4 (0.5)	0 (0.0)	0 (0.0)	740 (100.0)
필 리 핀	753 (100.0)	0 (0.0)	0 (0.0)	0 (0.0)	753 (100.0)
싱 가 포 르	784 (93.7)	53 (6.3)	0 (0.0)	0 (0.0)	837 (100.0)
부 루 나 이	842 (96.7)	29 (3.3)	0 (0.0)	0 (0.0)	871 (100.0)
미 얀 마	239 (99.6)	1 (0.4)	0 (0.0)	0 (0.0)	240 (100.0)
한 국	1,244 (95.2)	0 (0.0)	0 (0.0)	63 (4.8)	1,307 (100.0)

주 1) 말레이시아의 종량세 품목은 주로 우유 및 낙농품(04류)과 음료 및 주류 (22류)이며, 복합세 품목으로는 당류(17류), 담배류(24류)가 있으며, 선택세 품목으로는 조제식료품(18류)가 있음.
2) 태국의 종량세 품목은 균질화조제품(220710류)임.
3) 싱가포르의 종량세 품목은 조제채소류(22류)와 담배류(24류)임.
4) 부루나이의 종량세 품목은 커피 및 차류(09류)와 담배류(24류)임.

자료: WTO 홈페이지(http://www.wto.org).

표 8-3. ASEAN 국가들의 양허관세 분포

단위: 개, %

	0~10% 미만	10~20% 미만	20~50% 미만	50~100% 미만	100% 이상	계
말레이시아	857	241	42	36	11	1,187
인도네시아	4	0	1,155	127	55	1,341
태 국	48	22	591	62	13	736
필 리 핀	71	74	605	3	0	753
싱 가 포 르	784	0	0	0	0	784
부 루 나 이	0	743	99	0	0	842
미 얀 마	13	47	45	53	81	239
한 국	218	343	453	174	119	1,307

* ASEAN 국가는 종가세가 포함된 양허관세만을 기준으로 한 반면, 한국은 종량세를 종가세로 환산한 총 품목의 양허관세를 기준으로 함.

자료: WTO 홈페이지(http://www.wto.org).

2. 회원국별 관세체계

2.1.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농산물 평균 양허관세는 48% 수준이며, 농산물 관세의 분포는 0%에서 210%까지 다양하다. 품목류별로 볼 때 평균 관세율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주류(평균 120.4%), 낙농품(92.3%), 곡물(74.4%), 당류(55.1%) 등이다. 관세할당 적용 품목은 비관세장벽이 관세로 전환된 우유와 크림 등 낙농제품과 쌀 등이다. 평균 관세율보다 현저하게 낮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군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품목군에서 평균 관세율이 40%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2.2.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농산물 평균 양허관세는 11.8%이며, 최고세율은 168%이다. 관세율이 높은 품목군은 육류(평균 50.3%), 곡물(17.4%), 조제식품(15.5%) 등이다.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가 가장 높다. 가금육 등 축산물, 우유와 크림 등 낙농제품, 밀가루 등 19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할당제가 적용된다. 담배, 식물성 액즙 등 일부 품목군의 평균 관세율은 5% 이하로 매우 낮다. 관세부과 방식은 종가세, 종량세, 복합세, 선택세 등으로 다양하다. 종가세 적용 품목은 964개로 전체의 74%이며, 종량세(113개 품목), 복합세(182개 품목), 선택세(41개 품목) 등도 폭 넓게 적용된다. 10% 이하의 저세율 부과 품목이 857개로 전체의 72%에 달하며, 100% 이상의 고율관세 품목은 11개이다. 5%의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이 가장 많다.

2.3. 태국

태국의 농산물 평균 양허관세는 35% 수준이며, 농산물 관세부과 범위는 0～226%이다. 특히 생사(226%), 분유(216%), 식물성 유지(133～143%), 양파(142%), 조당(94%) 등에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비교적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군은 채소(46.8%), 커피·차(47.8%), 곡물(38.3%), 식물성 기름(38.2%), 당류(44.1%), 주류(56.7%), 담배(64%) 등이다. 태국은 국제 경쟁력이 있는 곡물, 식물성 기름 등과 주류, 담배 등 기호식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평균보다 낮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군은 산동물, 박류 등이다. 우유, 크림 등 낙농제품, 감자, 양파, 마늘, 코코넛, 커피, 쌀, 옥수수 등 23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할당제가 운영된다.

관세부과 방식은 종가세와 종량세가 있으나 종가세 부과 품목이 전체의 99.5%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종량세 부과 품목은 4개에 불과하다. 20～5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전체의 80%를 차지하

며, 10% 이하의 저세율 부과 품목이 48개로 적은 편이다. 100% 이상의 고율관세 품목은 13개이다.

2.4. 필리핀

필리핀의 농산물 평균 양허관세는 34%이며, 최고세율은 60%이다. 최고세율이 60%로 비교적 낮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관세율이 높은 것은 주로 20～50%의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많기 때문이다(전체의 80%). 4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가장 많다. 평균 관세율이 40% 이상인 품목군은 주로 가공식품이며, 대표적인 품목으로 담배, 주류, 당류, 코코아 조제품, 육가공품 등이 있다. 이들 품목군의 평균 관세율은 40%～46% 사이에 있다. 산동물, 육류, 감자, 쌀, 옥수수, 커피, 설탕 등 14개 품목에 대해 관세할당제가 운영되고 있다. HS 1류부터 24류 가운데 평균 관세율이 20% 이하로 낮은 품목군은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품목군이 20～40%의 관세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관세부과 방식은 종가세로 단일화되어 있으며, 100% 이상의 고율관세 품목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10% 이하의 저세율 품목은 71개로(전체의 9%) 비교적 적은 수준이다. 평균 관세율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주로 HS 15류부터 24류 사이에 분포하여 가공품에 대한 관세가 원료 농산물보다 높은 누진관세 체계로 볼 수 있다.

2.5. 기타 ASEAN 국가

싱가포르는 ASEAN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관세율을 유지(평균 9.6%)하고 있으며 과세방식도 종가세와 종량세 두 가지로 비교적 단순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종가세 부과 품목은 전체의 94%인 784개 품목이며, 종량세 부과 품목은 53개이다. 최고세율은 10%이며, 대부분의 품목에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품목군별로 10% 이하의 관세를 나타내는 것은 육류, 낙농품, 조제식품, 장류 등이다.

표 8-4. ASEAN 국가들의 품목군별 양허관세율 분포

단위: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미얀마	한국
1류	11.2	40.0	13.8	29.6	10.0	27.2	10.0	19.7
2류	50.3	45.9	34.7	37.9	8.8	26.3	99.0	23.0
4류	17.7	92.3	32.8	29.3	8.0	25.1	85.7	67.9
5류	2.3	40.0	29.7	26.2	10.0	20.0	55.0	14.9
6류	6.8	45.2	33.4	36.9	10.0	20.0	76.7	21.9
7류	7.8	46.4	46.8	38.1	9.5	33.8	128.4	125.4
8류	7.5	47.2	39.2	40.2	9.6	29.1	134.2	85.4
9류	10.1	43.3	47.6	35.2	10.0	30.0	74.4	76.9
10류	17.4	74.4	38.3	36.2	10.0	32.9	16.0	218.0
11류	9.3	37.9	30.7	36.2	10.0	20.0	60.5	314.8
12류	2.6	39.0	35.3	29.8	10.0	20.0	35.8	121.2
13류	5.0	39.7	23.9	21.7	10.0	20.0	36.7	110.6
14류	4.8	40.0	27.7	29.1	10.0	20.0	72.3	8.4
15류	6.8	40.7	38.2	37.4	10.0	20.0	31.1	25.5
16류	13.2	40.0	35.2	40.6	10.0	20.0	165.0	54.6
17류	9.9	55.1	44.1	41.7	10.0	25.5	78.1	31.0
18류	13.8	40.0	31.1	41.4	10.0	20.0	181.5	21.5
19류	15.5	42.6	29.9	35.8	8.7	20.0	165.0	33.7
20류	13.5	48.4	32.3	40.4	9.4	20.0	165.0	43.6
21류	11.6	42.4	35.2	38.5	8.7	20.0	70.0	64.7
22류	12.5	120.4	56.7	43.3	10.0	20.0	308.0	32.9
23류	8.5	39.8	15.3	27.1	10.0	20.0	61.2	19.1
24류	5.0	40.0	64.0	46.3	10.0	20.0	275.0	59.1
29류	5.0	40.0	27.0	30.0	10.0	20.0	16.5	22.5
33류	11.0	40.0	30.0	19.6	10.0	20.5	11.0	13.2
35류	14.2	37.0	29.3	27.2	8.8	20.0	40.9	201.2
38류	5.0	40.0	28.5	25.0	10.0	20.0	16.5	15.5
41류	5.0	40.0	25.0	5.0	10.0	20.0	55.0	5.2
43류	5.0	40.0	25.7	50.0	10.0	20.0	55.0	14.5
50류	5.0	40.0	63.3	10.0	10.0	20.0	45.0	25.7
51류	5.0	40.0	21.0	10.0	10.0	20.0	10.0	2.0
52류	4.0	37.4	4.5	10.0	10.0	20.0	19.8	2.0
53류	2.0	40.0	27.0	10.0	10.0	20.0	10.0	2.0
평균	11.8	48.0	34.9	34.0	9.6	23.5	84.4	63.8

자료: WTO 홈페이지(http://www.wto.org).

브루나이의 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23.5%이며, 종가세와 종량세 등 두 가지 과세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종가세 부과 품목은 전체의 97%인 842개이다. 10% 이하의 저세율이 부과되는 품목은 없으며, 최고세율은 50%이다. 20%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이 가장 많다. 대부분의 품목군에서 평균 관세율이 20%를 보이고 있으나 HS 1～10류까지의 신선 농산물을 위주로 30%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미얀마는 평균 관세율이 84.4%로 고율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최고세율은 550%이며, 165%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이 가장 많다. 종량세 적용 대상은 1개 품목이며, 이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종가세가 적용된다. 100%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수가 81개로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관세율이 높은 품목군은 HS 22류, 24류, 16류 등 가공식품이 많고 신선 농산물은 가공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가 부과되는 누진관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제 9 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의 개요

「한·ASEAN FTA 연구」2년차 연구 중 1년차 연구인 이 연구에서는 한·ASEAN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대비하여 ASEAN 자유무역지대(AFTA)의 내용, ASEAN과 주요국과의 FTA 논의 동향, 회원국들의 농업동향, 관세구조, 농산물 무역현황 등을 정리·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과 ASEAN간의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에 대한 상대국들의 주요 관심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한·ASEAN 자유무역협정 협상 참고자료를 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부수적으로는 ASEAN 회원국들의 무역 및 관세자료 등이 정리되어 향후 파급영향 계측에 이용될 기초통계자료 수집도 가능할 것이다. 2차 연도에는 민감 품목을 위주로 경쟁력 및 파급영향 등이 분석될 것이다.

2. ASEAN의 발전

1967년 8월에 결성된 ASEAN은 역내 국가간 경제·무역상의 상호협력뿐만 아니라 지역 내 평화와 안정, 문화, 교육, 행정 분야에서의 협력 등 다 부문에 걸쳐 상호협력을 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공산세력의 확장과 외부세력의 지배로부터 역내 국가의 민족주의적 독립을 온전히 보장하자는 집단안보체제적인 성격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ASEAN 발전의 제1기(1968-1976)는 1968년 ASEAN의 창립으로부터 1976년 제1차 ASEAN정상회담의 개최에 이르는 ASEAN의 창립기이다. 이 기간에는 ASEAN 회원국간 실질적인 경제협력관계는 미미했으나, 자유무역지대를 이루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제2기(1977-1991)에는 제2차 ASEAN 정상회담으로부터 제4차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직전까지로서, 정치·경제적으로 실질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시킨 시기이다.

제3기(1992-현재)는 제4차 ASEAN정상회담이 개최된 1992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으로서, ASEAN의 자유무역지대(AFTA)가 실질적으로 형성, 추진되어 역내무역확대와 경제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ASEAN 6개국은 1993년 1월 1일부터 ASEAN 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AFTA)를 창설하는 데 합의하였다. AFTA는 ASEAN 회원국간의 무역거래에 대한 관세 및 모든 비관세장벽을 점진적으로 인하 또는 철폐함으로써 ASEAN 역내 무역을 자유화하고, 외국인의 ASEAN 역내투자를 촉진하여 궁극적으로는 역내 경제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AFTA의 주요 내용를 보면 우선 회원국들은 공동실효관세(CEPT) 계획에 따라 관세인하계획을 통보하고 관세를 인하해야 한다. ASEAN은 CEPT 적용과 관련하여 품목 범주를 i) 관세인하 적용품

목(Inclusion List), ii) 잠정제외품목(Temporary Exclusion List), iii) 민감 및 고민감 품목(Sensitive and Highly Sensitiev List), iv) 일반적 제외품목(General Exception List) 등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중 ii)부터 iv)는 관세인하의 예외를 인정하는 품목들로서 농산물이 주종을 이룬다. 관세인하대상 품목은 기존회원국은 2010년까지, 후발개도국은 2015년까지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민감 및 고민감 품목은 채소, 과일, 곡물류, 육류 등 비가공농산물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서, IL로의 편입과 관세인하에 더 긴 시간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3. 역외국가와 FTA 추진 동향

ASEAN은 AFTA를 통한 역내 경제통합 심화시키는 한편 역외국가들과 FTA를 추진함으로써 역내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004년 11월 FTA 체결에 합의한 ASEAN과 중국은 2010년까지 관세인하에 합의하였다. 관세인하계획을 담은 기본협정에는 관세인하를 품목에 따라 표준트랙(normal tract)과 민감트랙(sensitive track)으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준트랙으로 분류된 품목은 중국과 ASEAN 기존회원국은 2005년 1월부터 2010년까지, 신규회원국은 2005년 1월부터 2015년까지 합의된 인하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하 또는 철폐된다. 민감트랙 품목 역시 협의에 의해 결정된 일정에 의해 인하되는데, 대상품목은 양측의 협의에 의해 상한을 두기로 하였다. 양측은 ASEAN · 중국간 FTA를 가속화시키기 FTA 이행이전에 조기 자유화를 실시하는 조기자유화에 합의하였다. 조기자유화 대상품목은 HS 1～8류로서 산동물, 육과 식용설육, 어류, 낙제제품, 기타동물제품, 살아있는 수목, 식용채소류, 식용

과일 및 견과류 등이다.

ASEAN과 인도는 2002년 11월 양측은 FTA 체결에 합의하고 2003년 10월 발리에서 개최된 ASEAN · 인도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협력협정에 서명하였다. 관세인하 및 철폐기준일은 2004년 7월 1일 현재 적용되는 MFN 관세율로 하고, 동 협정에 서명한 후 인도와 ASEAN의 개별 회원국과 관세인하 협상을 개시한다는 것이다. ASEAN과 인도의 FTA에서도 중국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기자유화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조기자유화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은 표준트랙과 민감트랙으로 구분하여 자유화일정을 달리하고 있다. 기본협정은 표준트랙으로 분류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그리고 인도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합의된 관세인하계획에 따라 인하 또는 철폐하고, 필리핀과 ASEAN 신규회원국들은 2006년 1월 1일부터 자유화를 추진하되, 2016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일본과 ASEAN 간에는 일본의 제안 및 주도로 일 · ASEAN 경제파트너십(JAEPA) 연구그룹이 구성되어 양 지역간 FTA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003년 10월 발리에서 개최된 ASEAN+일본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ASEAN 전체와 2012년까지 FTA 추진을 목표로 2005년 교섭을 개시하가로 합의한 바 있으나, 우선은 일본과의 FTA에 적극성을 보이는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 3개국과의 양자협상을 조만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 일본의 구상이다.

4. ASEAN 경제개황과 전망

ASEAN국가들은 공업화 초기단계에 산업보호 정책을 추진했지만, 1990년대 이후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통한 수출진흥정책으로 전환하

고 ASEAN자유무역지대(AFTA)를 강화하고 있다. 2003년도 ASEAN 지역은 총인구 약 5억 4,000만명의 인구와 GDP 6,858억 달러 규모의 단일시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ASEAN 국가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4.8%, 1인당 GDP는 4,445달러 수준이고, 농업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9%, 광공업부문은 22.8%, 그리고 서비스업은 42.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준에서 ASEAN회원국간 경제력의 차이가 크고, 역외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경제통합에 따른 무역창출효과의 증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진전으로 ASEAN 회원국에서 농업부문의 인구비중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주도의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진했지만, 주로 외국투자 기업의 확산으로 ASEAN국가들의 국내 산업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의 후발가입국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원부자재 및 부품, 소재산업의 취약성이 반영되어 수출이 확대될수록 수입도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지역 경제의 높은 성장세는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것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급등과 중국경제 둔화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성장세를 전망하고 있다. 동남아시장은 우리나라의 5대 교역국, 2대 건설수주국, 3대 투자지역으로서 경제적 긴밀성이 높고, 석유, 천연가스, 고무, 목재 등 주요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 자원공급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5. ASEAN 주요 회원국의 농업현황과 전망

인도네시아가 생산하는 주요 농작물은 쌀, 팜유, 코코넛, 옥수수,

카사바, 닭고기, 천연고무, 계란, 쇠고기, 돼지고기 등이다. 인도네시아는 과일류와 어류는 100%이상의 자급을 이루고 있으나 곡물, 유지작물, 채소, 육류, 우유는 국내생산만으로 국내소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 현재 말레이시아의 10대 농산물은 팜유, 닭고기, 계란, 쌀, 천연고무, 팜커널, 돼지고기, 오리고기, 코코넛, 바나나 등이다. 말레이시아는 소맥, 옥수수, 대두의 국내 수급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02년의 경우 쌀도 50만톤 이상을 수입하여 곡물에 관한한, 수출여력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2003년 현재 필리핀의 10대 농산물은 쌀, 돼지고기, 코코넛, 바나나, 닭고기, 기타채소, 기타열대과일, 옥수수, 달걀, 사탕수수 등이다. 필리핀에서 유지작물과 과실류는 과잉생산 상태이나 채소류, 유지작물, 육류 등 대부분의 분야는 국내 생산만으로 국내 소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 현재 태국의 10대 농산물은 쌀, 닭고기, 천연고무, 카사바, 사탕수수, 돼지고기, 옥수수, 달걀, 쇠고기, 망고 등이다. 특히 닭고기는 태국에서 쌀 다음으로 생산액이 많은 품목으로 연간 50만 톤 가량이 수출된다. 태국은 우유와 유지작물을 제외하고는 100% 이상의 자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쌀, 옥수수 등 곡물류의 자급률은 150% 이상이다.

베트남의 10대 농산물은 쌀, 돼지고기, 기타 신선채소, 커피, 기타 신선과일, 닭고기, Cashew nuts, 옥수수, 카사바, 사탕수수 등이다. 베트남은 현재 세계 제2위의 쌀 수출국이다. 2002년의 경우 330만톤의 쌀을 수출한 바 있다. 그밖에 수출량이 많은 품목으로는 카사바(94만톤), 커피(72만톤) 등이다. 베트남은 우유 등 낙농제품을 제외하고는 100%이상의 자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쌀 등 곡물류의 자급률은 127%로 충분한 수출여력을 가지고 있다.

6. ASEAN의 농산물 교역

ASEAN 국가들의 농산물 교역 특징은 첫째, 10개 회원국이 순수출국과 순수입국으로 양분되는 것이며, 둘째, 가공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원료 농산물 위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점, 셋째, 수출 농산물이 천연고무, 팜유, 열대과일 등 열대산품과 쌀, 카사바 등 곡물류에 집중되어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천연고무, 팜유, 목재 등은 우리나라의 국내 생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원료 농산물로 수입할 수밖에 없는 품목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의 시장개방 협상에서 민감품목은 곡물류와 열대과실에 집중될 것이다. 곡물류와 열대과실은 우리나라 농산물과 직접적인 경쟁은 물론 대체수요를 통한 간접적인 경쟁을 통해서도 농업부문에 피해를 가져다 줄 것으로 우려된다.

ASEAN 국가들 가운데 농산물 교역 규모가 큰 국가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의 순이다. 이 가운데 싱가포르는 농산물 순수입국으로 우리나라아의 경쟁관계가 거의 없는 나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를 제외한 4대 농산물 교역국이 우리나라와 경합하는 형태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밖에 교역 규모는 작으나 농산물 순수출국인 베트남과 미얀마는 매우 제한적인 품목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경합하는 형태를 나타낼 것이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ASEAN 국가들의 농산물 경쟁력이 여타 수출경쟁국보다 낮아 시장 점유율이 크지 않았던 커피, 연초, 바나나, 파인애플 등 열대작물을 중심으로 관세장벽 철폐로 인한 수입선 전환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온대성 과실(사과, 배 등), 우리나라 특산품(인삼, 김치 등), 가공식품(주류, 음료, 과자류, 면류 등) 등은 ASEAN 국가들의 소득 증가에 따라 수출 증대가 예상된다.

7. 한·ASEAN 농산물 무역

우리나라와 ASEAN 국가들의 농산물 무역은 ASEAN 국가들의 수출이 수입을 크게 앞서는 일방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매년 1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열대과일, 코코아, 커피, 후추, 당류, 박류, 팜유를 비롯한 식물성 기름 등 우리 농산물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품목이다. 또한 많은 품목들이 가공식품이나 축산업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품목은 과실과 가공식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와 ASEAN이 상호 시장개방을 추진할 경우 가장 민감하게 경쟁하게 될 부문은 곡물과 과실이다. 쌀은 우리나라도 과잉 공급 상태에 있으나 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ASEAN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는 일방적인 형태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과실류는 우리나라가 ASEAN 국가들로부터 열대성 과일을 수입하고 온대성 과일은 수출하는 산업내 무역의 형태로 교역이 증진될 것이다. 과실류의 수출국인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미얀마 등의 관세율은 39～134%로 높아 관세 철폐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출 증대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전분(전분 원료 작물 포함)과 닭고기 등은 ASEAN으로부터의 수입 증가 형태로 교역이 증가할 부분이다.

8. ASEAN의 농산물 관세

ASEAN 회원국들 간에는 역내 공동유효특혜관세(CEPT)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농산물과 비농산물을 포함한 전체 상품의 평균 CEPT 수준(2003년 기준)은 싱가포르 0%, 태국 4.64%, 말레이시아 2.06%,

인도네시아 3.71%, 필리핀 3.75% 등이며, 가장 높은 관세율은 라오스의 5%이다. ASEAN 국가들의 평균 CEPT 수준은 2.68%(2003년)로 매우 낮고 관세율의 분포 또한 국가별로 편차가 크지 않다.

ASEAN 국가 가운데 WTO 회원국은 ASEAN 역외 WTO 회원국에 대해서는 WTO 양허세율을 적용한다. WTO 회원국이 아닌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등 3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7개국의 농산물 WTO 양허관세율 수준은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농산물의 평균 양허관세율(종가세 품목의 경우)은 미얀마 84.4%, 인도네시아 48%, 태국 34.9%, 필리핀 34%, 브루나이 23.5%, 말레이시아 11.8%, 싱가포르 9.6% 등이다. 미얀마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율 63.8%에 비해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ASEAN 국가들의 관세부과 방식은 비교적 단순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종가세 이외에 종량세, 복합세, 선택세 등 네 가지 관세부과 방식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종가세만 운영하고 있다.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은 몇몇 품목에 대하여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ASEAN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관세부과 방식이 종가세 위주로 단순화되어 있어 투명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관세 협상에 있어서 관세부과 방식에 따른 복잡한 문제는 최소화 될 전망이다.

9. 시사점

9.1. 협상 방식

ASEAN과 FTA 협상시 ASEAN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개별 회원국을 대상으로 할 경우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다. 중국, 인도는 ASEAN FTA를 전체로 하되, 개별 회원국에게 조기자유화조치를 통해 유인책 제공하였다. 반면 일본은 ASEAN 전체보다는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우선 FTA 협상 후 ASEAN과 FTA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ASEAN과 2005년부터 FTA 협상을 개시할 우리나라는 ASEAN 회원국간 경제발전 단계와 이해관계가 매우 이질적인 점을 감안, ASEAN 전체를 대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질적인 개별회원국을 상대하는 것보다 ASEAN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이나 인도처럼 후발참여국 등에 대한 특별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ASEAN과 FTA 논의 시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대한 영향정도에 따라 다음의 세가지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표 9-1>.

1그룹에는 농산물 수출을 많이 하고 흑자를 내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이 포함되는데 우리나라 농업에

표 9-1.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예상 영향정도에 따른 ASEAN 국가의 분류

그룹	해당국가	특 징
1그룹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농산물수출규모가 크며 흑자를 내는 국가로서 쌀, 열대과일, 닭고기 등 우리나라 농업에 민감한 품목을 주로 수출하는 국가들임. ・우리나라에 대해 농산물 개방요구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임. ・이들 국가와의 협상이 ASEAN과의 FTA 성공의 관건일 것임.
2그룹	미얀마	・농산물 무역 흑자국이지만 수출액이 많지 않은 국가임. ・미얀마로부터 쌀 개방압력이 예상됨.
3그룹	브루나이, 캄보디아, 싱가포르, 라오스	・농산물수입국들로서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임. ・브루나이 등 후발참여국들로부터 경제협력 요구를 예상할 수 있음.

민감한 영향을 미칠 품목들을 주로 수출하는 국가들이다. 2그룹에는 쌀과 콩을 수출하는 미얀마가 포함된다. 3그룹에는 농산물 수입국들로 분류되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싱가포르, 라오스 등이 포함된다.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3그룹에 속하는 국가들은 우리나라에 대해 농산물 시장개방보다는 경제원조에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3개 그룹 중 우리나라가 협상을 집중해야 할 그룹은 1그룹이라고 판단된다. 이들 국가들은 경제, 정치면에서 ASEAN을 주도하는 국가들로서 이들 국가들과의 의견합의가 ASEAN과의 FTA 성공여부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다. 협상과정에서 ASEAN 내부에서 그룹간 이해조정도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우리나라가 특정 품목의 농산물 관세인하를 유보내지 제외시키는 조건으로 3그룹 국가에 대한 경제협력을 약속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다.

다음으로는 포괄방식 채택여부이다. 중국과 인도는 포괄방식을 채택하였으나, 일본은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할 때도 그렇고 태국과 FTA협상을 벌일 때 민감한 농업문을 협상에서 제외하려고 하였다. 농산물 수출확대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ASEAN의 입장에서 농산물 분야를 제외한 FTA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FTA가 WTO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GATT 24조 8항(무차별 적용원칙)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라도 농산물을 포함한 전 분야를 포괄하는 포괄방식이 불가피할 것이다. 다만 포괄방식을 채택하되,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인하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최대한 유보하는 협상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ASEAN과 FTA 협상 시 조기자유화 부여 여부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중국과 인도가 조기자유화조치를 통해 FTA 논의를 가속화 시킨 선례가 있기 때문에 ASEAN 국가들이 조기자유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 조기자유화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일본의 사례와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의 조기 개방의 어려움을 들어 조기자

유화조치를 수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을 개시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조기자유화 조치 대신 경제협력 또는 농업기술협력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9.2. 예상 쟁점

9.2.1. 곡물류

ASEAN은 전체적으로 볼 때 곡물류는 자급을 달성하지 못하는 국가가 많아 곡물류의 수출여력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ASEAN과 FTA를 체결할 경우 쌀, 카사바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들이다. ASEAN 국가 중 쌀 수출국인 태국, 미얀마, 베트남 등이 우리나라에 대해 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ASEAN 국가 중 인도네시아, 말레시아, 필리핀은 쌀을 고민감 품목으로 분류해서 ASEAN 역내에서도 개방을 유보한 실정이다. 이들 품목에 대해 개방요청이 있을 경우 AFTA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시아, 필리핀은 쌀을 고민감 품목으로, 베트남과 미얀마는 민감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쌀은 국내 농업에 워낙 민감한 부문이므로 FTA 논의에서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시켜야 한다.

9.2.2. 축산물

축산물 수출에 특히 관심이 많은 국가는 태국이다. 2002년의 경우 태국은 물량으로는 33만톤, 금액으로는 5억 3,466만 달러 정도의 닭고기를 수출하였다. 일본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인 태국은 일본에 대해 닭고기 수입개방을 요청한 적이 있다. 말레이시아도 약 5만톤 정도의 닭고기를 수출한 바 있어 닭고기 시장 개방에 관심이 있을 수 있다.

돼지고기는 필리핀 (140만톤)과 베트남(180만톤)에서 생산이 많지만 베트남만이 14,000톤 정도를 수출하여 큰 논란의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조기자유화 품목에 육류를 포함시킨 점을 고려하면, 태국, 베트남 등으로부터 육류에 대한 개방요청이 있을 수 있다. ASEAN 회원국 중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이 닭고기를 포함 가금육을 민감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은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9.2.3. 과일

과일의 경우,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 코코넛 등 열대과일에서 가장 큰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부문이다. 이들 열대과일의 수입이 증가되면 우리나라 과일과 소비대체가 일어나 국내 과일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 파인애플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다. 파인애플 열매는 물론 통조림 및 주스 수입에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바나나는 필리핀이 연간 170만톤 정도 수출하는 품목으로서 수입증대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 과일부문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망고와 코코넛 역시 필리핀이 주 수출국이다.

9.2.4. 채소

ASEAN 국가에서 채소 자급을 이루는 국가는 태국과 베트남 정도이고 나머지 국가는 자급을 이루지 못하는 실정이다. ASEAN에서는 기후특성상 한국에서 소비되는 채소가 많이 재배되지는 않으나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들은 베트남, 라오스의 고추와,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에서 생산되는 양파 등이므로 이들 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태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스위트콘, 토마토, 토란 등도 우리나라 농산물과 직간접인 경합이 예상되어 대비가 필요하다.

9.2.5. 기타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ASEAN 회원국에 대해 만성적인 농산물 무역적자를 내는 것에 착안하여, 한국-ASEAN간 FTA를 우리 농산물의 수출확대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ASEAN과 FTA 협상시 채소, 과일, 축산물, 화훼, 인삼류 등 우리나라 수출유망농산물에 대한 ASEAN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10. 향후 연구 과제

향후 연구과제로서 첫째, 협상 시나리오별 품목(군)별 FTA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 FTA로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품목별로 수입정도 및 국내 농업에 대한 영향이 분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자료의 제약으로 일반균형모형접근보다는 부분균형모형 접근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때 수입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기호 또는 수요도 조사되어야 한다. 수입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기호가 조사되면, 소비에서 수입농산물이 국내 농산물을 대체하는 정도가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수입증가 예상 품목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가격 및 품질경쟁력이 분석되어야 하는데 수입예상품목의 품종, 품질, 수입가격, 수입시기 등이 조사, 분석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ASEAN 회원국별로 주된 관심사항과 개방요청 사항이 사전에 파악되어야 한다. 네 번째는 우리나라 수출유망농산물에 대한 ASEAN 국가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현황을 파악하여 ASEAN에 대한 개방요청사항을 작성해야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 충분하게 다루지 못한 ASEAN의 농산물 수입제도와 동식물 검역 등 비관세장벽 현황이 면밀하게 분석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는 ASEAN에 대한 농산물 개발수입 가능성에 대한 검토

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국내생산이 없거나 부족한 열대과일의 경우,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여 ASEAN에서 생산하여 국내에 저렴한 가격으로 들여올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ASEAN의 외국인 투자제도와 외국인 농지소유제한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ASEAN과 FTA 협상시 투자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투자협정 등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시켜야 한다. 여섯 번째는 ASEAN 국가들과의 농업협력 방안에 대한 검토이다. 대부분이 후발개도국인 ASEAN 국가들은 우리나라에 대하여 무상지원, 기술지원 등을 희망하고 있는데, FTA 추진시 ASEAN 국가들과 농업협력을 병행추진하면 FTA 추진이 순조로울 수 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연구과제는 FTA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 수립이다. FTA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상되는 산업간 및 산업내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고, 경쟁력제고 및 피해부분에 대한 보상 대책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부 표

부표 1. ASEAN의 주요 민감품목

회원국별	민감 품목수	주요 품목 (HS 4단위 기준)	HS 8단위
브루나이	14	커피, 녹차	0901(11.000, 12.000, 21.100, 21.200, 22.100, 22.200), 0902(10.100, 10.200, 20.100, 20.200, 30.100, 30.200, 40.100, 40.200)
캄보디아	50	기타말, 돼지, 가금류, 닭고기, 활어, 기타 산식물, 절화와 꽃봉오리, 토마토, 배추류, 상추 및 치커리, 당근, 오이류, 채두류, 기타의 채소, 코코넛, 대추야자, 감귤류, 멜론, 기타 과실	0101(19.00), 0103(91.00, 92.00), 105(92.90, 99.10, 99.20,), 0207(11.00, 12.00, 13.00, 14.10, 14.20, 14.30, 14.90, 32.10, 32.20, 33.10, 33.20, 36.20,), 0301(93.00, 99.10, 99.20, 99.30), 0620 (10.10, 40.00, 90.10), 0603(10.10, 10.90), 0702 (00.00, 10.10), 0703(20.00), 0704(10.10, 10.20, 90.10, 90.90), 0705(11.00, 19.00), 0705(10.10, 10.20, 90.00), 0707(00.00), 0708(20.00), 0709 (90.00), 0801(11.00, 19.00), 0804(30.00, 50.00), 0805(10.00), 0807(11.00, 19.00), 0810(90.20)
라오스	88	말, 돼지, 가금류, 기타 산동물, 쇠고기, 돼지고기, 식용설육, 기금육의 육과 설육, 육과 식용설육, 송어, 조란, 동물의 장과 방광, 토마토, 야배추, 당근, 오이류, 기타의 채소, 냉동채소, 일시저장처리한 채소, 건조한 채소, 건조한 채두류, 매니옥, 기타견과류, 대추야자, 감귤류의 과실, 멜론, 건조과실, 고춧가루, 벼, 쌀,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치커리뿌리, 잎담배	0102(90.000), 0103(91.000, 92.000), 0105 (11.000, 19.000, 91.000, 99.000), 0106(00.000), 0201(10.000, 20.000, 30.000), 0202(10.000, 20.000, 30.000), 0203(11.000, 12.000, 19.000, 21.000, 22.000, 29.000), 0206(10.000, 20.000, 30.000, 40.000), 0207(10.000, 20.000, 30.000, 90.000), 0210(11.000, 12.000, 19.000, 20.000, 90.000), 0301(91.000), 0407(00.000, 00.000), 0702(00.000, 10.000, 90.000), 0702(90.000), 0704(10.000), 0705(00.000),0706(10.000, 90.000), 0707(00.000), 0708(20.000, 90.000), 0709(30.000, 51.000, 60.000, 90.000), 0710 (22.000, 29.000, 40.000, 80.000, 90.000), 0711 (10.000, 40.000, 90.000), 0712(20.000, 30.000, 90.000), 0713(30.000, 90.000), 0714(10.000, 20.000, 90.000), 0802(00.000), 0804(30.000, 50.000), 0805(10.000, 20.000, 30.000, 90.000), 0807(10.000, 20.000), 0813(40.000, 50.000), 0904(20.000), 1006(10.000, 20.000, 30.000, 40.000), 1207(99.000, 1212(92.000, 99.000), 2401(10.000, 20.000, 30.000

<표계속>

회원국별	민감 품목수	주요 품목 (HS 4단위 기준)	HS 8단위
말레이시아	65	돼지, 가금류, 돼지고기, 가금류의 육과 설육, 밀크와 크림, 조란, 기타의 산식물, 양배추, 바나나, 대추야자, 멜론, 기타과실(감, 단감, 대추 등), 커피, 파종용의 종자·과실, 편조물에 사용되는 식물성재료(대나무등), 잎담배 및 담배	0103(91.000, 92.000), 0105(11.100, 92.000, 99.100), 0203(11.000, 12.000, 0207(11.000), 0401(30.900), 0407(00. 111, 00.112), 0602(90.100, 90.200, 90.300, 90.900), 0704(90.110), 0803(00. .100, 00.200, 00.300, 00.400, 00.900), 0804(30.000, 50.100, 50.200, 50.300), 0807(11.000, 19.000, 20.100, 20.900), 0810(90.110, 90.120, 90.130, 90.140, 90.160, 90.170, 90.190), 0901(11.000), 1209(99.110, 99.190, 99.900), 1401(10.000, 20.100, 20.910, 20.920, 20.990, 90.000), 2401(10.100, 10.900, 20.100, 20.900, 30.000), 2402(10.000, 20.100, 20.900, 90.100, 90.200), 2403(10.110, 10.190, 10.900, 91.100, 91.900, 99.200, 99.310, 99.390, 99.900)
미얀마	21	채두류(완두 등), 커피, 차류, 쌀, 사탕수수, 누에고치, 생사, 견웨이스트, 면, 면웨이스트	0708(10.000, 20.000), 0901(11.000, 12.000), 0902(10.000, 20.000), 1006(10.000, 20.000, 30.000, 40.000), 1701(11.000, 12.000), 5001(00.000), 5002(00.000), 5003(10.000, 90.000), 5201(10.000, 91.000, 99.000), 5202(10.000, 91.000, 99.000), 5203(00.000)
필리핀	58	돼지, 가금류, 돼지고기, 가금률의 육과 설육, 메니옥, 옥수수	0103(91.100, 91.200, 92.100, 92.200), 0105(11.910, 11.920, 92.910, 92.920, 93.910, 93.920), 0203(11.100, 11.200, 12.100, 12.200, 19.110, 19.120, 19.210, 19.220, 19.910, 19.920, 21.100, 21.200, 22.100, 22.200, 29.110, 29.120, 29.210, 29.220, 29.910, 29.920), 0207(11.100, 11.200, 12.100, 12.200, 13.100, 13.200, 14.110, 14.120, 14.910, 14.920, 27.110, 27.120, 27.910, 27.920, 32.110, 32.120, 32.210, 32.220, 35.100, 35.200, 36.110, 36.120), 0714(10.000, 20.000), 1005(90.100, 90.910, 90.920), 1007(00.000)
태국	7	절화와 꽃봉오리(국화, 튜립,백합등), 감자, 커피, 코프라	0603(10.000), 0701(10.000, 90.000), 0901(11.000, 12.000, 90.001), 1203(00.000)

<표계속>

회원국별	민감 품목수	주요 품목 (HS 4단위 기준)	HS 8단위
베트남	51	가금류,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 기타(토끼등)의 육과 식용설육, 조란, 기타의 산식물(사과나무등), 감귤류의 과실(오렌지등), 쌀, 소시지,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과 설육, 사탕수수	0105(11, 11.900, 12, 12.900, 19, 19.900, 92.900, 93.000, 99.900), 0207(11.000, 12.000, 13.000, 14.000, 24.000, 25.000, 26.000, 27.000, 32.000, 33.000, 34.000, 35.000, 36.000), 0208(10.000, 20.000, 90.000), 0407(00.100, 00.900), 0602(10.000, 20.000, 30.000, 40.000, 90.000), 0805(10.000, 20.000, 30.000, 40.000, 90.000), 1006(10.900, 20.000), 1601(00.000), 1602(10.000, 20.000, 31.000, 32.000, 39.000, 41.000, 49.000, 50.000, 90.000), 1701(11.000, 91.000, 99.100, 99.900)

부표 2. 싱가포르의 상품 및 농산물 교역

단위: 백만 달러

		1990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전체 교역	수출액	52,527	118,187	109,801	114,625	137,953	121,685	125,043
	수입액	60,583	124,394	101,496	110,998	134,675	115,918	116,337
	무역수지	-8,056	-6,207	8,305	3,627	3,278	5,768	8,706
농산물 교역	수출액	2,555	4,320	3,476	2,975	2,810	2,555	2,687
	수입액	3,520	5,249	4,165	4,100	3,989	3,963	3,881
	무역수지	-965	-929	-689	-1,125	-1,179	-1,408	-1,194

자료: FAO, FAOSTAT DATABASE COLLECTIONS, Agriculture & Food Trade.

부표 3. 캄보디아 상품 및 농산물 교역

단위: 백만 달러

		1990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전체 교역	수출액	86	854	913	973	1,327	1,374	1,766
	수입액	164	1,187	1,073	1,170	1,536	1,600	2,311
	무역수지	-78	-333	-160	-197	-209	-226	-545
농산물 교역	수출액	38	38	27	44	11	22	36
	수입액	14	134	293	330	454	316	282
	무역수지	24	-96	-264	-286	-443	-294	-246

자료: FAO, FAOSTAT DATABASE COLLECTIONS, Agriculture & Food Trade.

부표 4. 라오스의 상품 및 농산물 교역

단위: 백만 달러

		1990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전체 교역	수출액	79	308	337	302	330	320	297
	수입액	185	589	553	554	535	510	467
	무역수지	-106	-281	-216	-253	-205	-191	-170
농산물 교역	수출액	34	69	27	34	33	28	15
	수입액	12	95	73	78	76	70	86
	무역수지	22	-26	-46	-44	-43	-42	-71

자료: FAO, FAOSTAT DATABASE COLLECTIONS, Agriculture & Food Trade.

부표 5. 미얀마의 상품 및 농산물 교역

단위: 백만 달러

		1990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전체 교역	수출액	472	899	1,077	1,438	1,982	2,563	-
	수입액	880	1,836	2,689	2,614	2,346	2,749	-
	무역수지	-408	-937	-1,612	-1,176	-364	-187	-
농산물 교역	수출액	190	417	317	272	375	474	472
	수입액	120	447	361	355	338	295	286
	무역수지	70	-30	-44	-83	37	179	186

자료: FAO, FAOSTAT DATABASE COLLECTIONS, Agriculture & Food Trade.

부표 6. 브루나이의 상품 및 농산물 교역

단위: 백만 달러

		1990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전체 교역	수출액	-	2,593	1,891	2,539	3,904	3,643	3,708
	수입액	-	2,345	1,314	1,250	1,047	1,125	1,480
	무역수지	-	248	577	1,289	2,857	2,518	2,228
농산물 교역	수출액	9	9	1	1	1	2	2
	수입액	177	215	227	191	186	193	204
	무역수지	-168	-206	-226	-190	-185	-191	-202

자료: FAO, FAOSTAT DATABASE COLLECTIONS, Agriculture & Food Trade.

부표 7. 싱가포르의 농산물 수입

단위: 천 달러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곡물류	509,976	504,598	396,554	461,385	434,544	413,573	411,668
- 밀(밀가루)	66,754	62,594	48,353	60,434	49,647	49,321	45,300
- 쌀	128,247	142,290	114,081	137,297	125,622	112,832	114,562
- 보리	65,845	73,279	55,490	59,876	62,868	62,639	61,960
- 옥수수	11,094	11,268	4,047	5,585	4,772	3,071	4,837
- 기타곡물	238,036	215,167	174,583	198,193	191,635	185,710	185,009
채소류	347,511	349,276	292,347	319,136	278,319	229,956	233,521
- 양배추	14,259	12,459	12,563	12,592	13,609	13,754	15,553
- 양파	30,391	24,929	23,454	17,771	11,626	11,727	10,392
- 마늘	37,897	17,901	10,814	11,635	6,303	7,632	6,264
- 조제채소	21,337	18,944	15,401	17,618	16,450	17,945	16,609
- 기타채소	243,627	275,043	230,115	259,520	230,331	178,898	184,703
과실류	527,802	531,441	409,642	459,768	440,749	425,814	436,714
- 오렌지	42,111	43,445	37,919	30,189	26,731	26,874	26,584
- 감귤류	21,304	16,337	12,684	13,596	11,767	11,027	11,393
- 사과	55,237	52,726	41,956	39,181	38,000	34,935	35,788
- 배	41,224	35,799	28,379	20,875	21,145	20,316	19,518
- 포도	35,364	34,884	22,467	23,680	21,791	20,181	21,634
- 망고	12,140	11,278	9,158	10,881	11,834	12,637	13,255
- 조제과실	57,498	56,787	33,192	42,200	34,673	30,110	31,111
- 기타과실	262,924	280,185	223,887	279,166	274,808	269,734	277,431
축산물	929,168	869,195	701,643	739,176	786,700	805,194	789,300
- 버터	42,582	33,435	32,254	36,046	32,682	32,816	30,595
- 우유	136,765	126,457	97,207	103,811	119,473	151,750	103,506
- 돼지	164,418	134,492	110,564	20,910	37,400	41,100	31,000
- 닭	83,829	83,239	64,583	67,515	66,263	72,512	74,683
- 닭고기	126,156	108,991	88,387	104,128	93,127	91,062	90,929
- 기타축산물	375,418	382,581	308,648	406,766	437,755	415,954	458,587
식물성유지	385,780	376,660	317,086	314,501	236,111	195,583	236,931
- 팜유	174,310	202,232	169,237	167,806	112,842	79,580	110,763
- 해바라기유	14,645	9,359	12,025	11,665	9,931	11,381	14,589
- 기타유지류	196,825	165,069	135,824	135,030	113,338	104,622	111,579
당류	155,958	145,289	120,248	114,334	114,247	147,408	144,393
코코넛유	12,238	8,841	6,853	8,680	8,727	4,163	7,655
음료	62,357	60,474	46,467	49,916	65,162	75,040	73,602
주류	380,976	368,605	236,593	234,919	259,489	216,883	227,896
커피류	68,060	92,608	64,608	57,364	50,791	50,694	58,661
코코아류	123,044	118,151	96,417	92,575	95,392	98,362	126,183
담배류	959,874	1,180,495	957,309	696,906	630,842	624,653	486,430
기타조제식품	211,482	213,449	166,168	184,218	195,190	204,695	220,224
기타농산물	542,686	479,467	352,711	367,375	392,576	471,309	427,761
총 계	5,216,912	5,298,549	4,164,646	4,100,253	3,988,839	3,963,327	3,880,939

자료: http://faostat.fao.org/faostat/f

부표 8. 싱가포르의 농산물 수출

단위: 천 달러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곡물류	311,930	267,063	214,852	211,145	203,864	207,523	220,781
- 밀	18,407	19,895	13,848	8,628	7,829	8,966	10,379
- 패스트리	69,226	60,440	51,938	54,892	51,950	54,266	56,447
- 보리	62,685	49,100	41,157	46,306	49,894	50,447	55,712
- 조제곡물	79,773	66,472	42,615	45,146	43,826	44,770	55,020
- 감자	8,170	6,095	5,405	5,285	3,744	3,898	3,031
- 기타곡물	73,669	65,061	59,889	50,888	46,621	45,176	40,192
채소류	217,064	300,257	271,652	280,711	234,797	113,244	87,006
- 양파	21,909	16,588	12,021	8,770	4,190	3,056	1,924
- 마늘	31,418	19,185	10,079	8,531	2,994	2,290	1,644
- 건조채소	10,993	8,493	3,640	3,209	1,623	1,276	1,352
- 후추	103,543	216,909	218,677	233,833	201,500	84,228	58,674
- 기타채소	49,201	39,082	27,235	26,368	24,490	22,394	23,412
과실류	215,180	194,503	165,258	174,372	161,047	139,732	148,921
- 오렌지	8,929	7,708	6,410	3,827	3,009	2,580	2,265
- 사과	21,039	17,284	12,255	8,367	6,671	5,057	5,061
- 배	16,619	12,522	9,031	4,442	4,443	3,475	2,218
- 포도	11,917	10,221	6,826	6,577	5,620	4,946	3,469
- 파인애플캔	21,826	16,575	21,946	25,484	10,903	12,463	11,829
- 조제과실	30,983	29,789	19,226	20,716	15,323	13,165	14,513
- 기타과실	103,867	100,404	89,564	104,959	115,078	98,046	109,566
축산물	163,058	143,799	100,184	105,322	101,316	112,088	177,632
- 쇠고기	4,611	2,586	1,840	1,085	1,276	526	673
- 우유	98,722	79,236	51,483	54,500	49,369	67,149	137,603
- 닭고기	10,570	9,996	4,637	5,100	3,641	2,349	3,185
- 기타축산물	49,155	51,981	42,224	44,637	47,030	42,064	36,171
식물성유지	334,629	326,995	248,934	258,443	193,379	159,756	202,402
- 대두유	37,929	30,583	21,785	23,575	15,586	12,627	10,355
- 코코넛유	15,355	17,844	15,265	14,116	9,687	6,909	9,575
- 팜유	146,129	159,431	117,902	125,967	84,395	70,661	90,793
- 기타유지류	135,216	119,137	93,982	94,785	83,711	69,559	91,679
당류	36,650	42,914	42,029	30,048	24,745	45,136	47,174
음료	78,001	56,416	41,436	32,894	32,869	31,621	28,527
주류	405,978	362,961	246,637	249,915	241,775	217,173	231,909
커피류	137,834	150,039	104,986	88,929	97,394	98,762	110,726
코코아류	163,888	153,055	151,593	120,221	103,140	76,791	114,732
초콜릿	60,110	54,597	53,823	67,608	78,598	81,062	78,294
담배류	1,281,553	1,351,236	1,221,195	759,433	708,351	663,889	606,939
기타조제식품	209,109	181,059	146,478	149,348	174,888	185,254	177,001
기타농산물	607,404	546,996	467,171	446,407	454,246	422,719	455,147
총 계	4,222,388	4,131,890	3,476,228	2,974,796	2,810,409	2,554,750	2,687,191

자료: http://faostat.fao.org/faostat/f

부표 9. 캄보디아의 농산물 수입

단위: 천 달러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곡물	27,088	17,432	29,965	32,575	26,443	24,214	29,340
- 밀(밀가루)	4,946	2,600	6,300	5,860	6,850	3,510	4,093
- 쌀	7,661	2,800	7,400	7,900	8,944	7,507	11,015
- 보리	6,149	6,400	8,000	11,300	2,525	2,249	1,634
- 기타곡물	8,332	5,632	8,265	7,515	8,124	10,948	12,598
채소류	700	201	140	213	515	637	723
- 기타신선채소	503	4	11	47	217	180	21
- 기타조제채소	154	160	110	150	250	400	389
- 기타채소	43	37	19	16	48	57	313
과실류	6,831	9,507	6,707	7,527	7,518	8,225	8,577
- 사과	2,034	2,400	1,500	1,700	1,600	1,270	967
- 포도	1,755	1,670	870	1,200	1,200	1,110	1,322
- 건포도	616	513	189	123	117	80	155
- 기타과실	2,426	4,924	4,148	4,504	4,601	5,765	6,133
축산물	14,100	8,470	8,582	10,709	9,151	12,984	22,169
- 우유	2,486	34	54	178	250	183	124
- 분유	5,000	4,000	5,300	6,400	6,000	7,400	7,872
- 기타축산물	6,614	4,436	3,228	4,131	2,901	5,401	14,173
당류	14,450	19,933	17,183	24,403	15,854	32,334	33,648
팜유	9,800	17,000	7,000	10,200	14,700	7,800	5,686
유지류	16,407	17,108	7,435	10,938	15,709	10,447	9,513
음료	3,008	4,000	12,800	7,600	13,000	18,500	12,985
주류	1,592	19,700	14,650	13,600	15,600	16,800	19,577
연초류	246,089	227,114	181,994	204,130	336,215	172,100	125,770
기타농산물	19,085	9,693	13,321	18,205	14,703	19,935	19,389
총 계	349,350	333,158	292,777	329,900	454,708	316,176	281,691

자료: http://faostat.fao.org/faostat/f

부표 10. 캄보디아의 농산물 수출

단위: 천 달러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곡물	2,615	2,638	621	1,449	280	525	1,810
- 쌀	968	1,020	220	450	180	480	1,691
- 보리	28	28	28	20	55	25	99
- 옥수수	605	190	0	29	26	10	1
- 콩	270	1,400	370	950	19	0	3
- 기타곡물	744	0	3	0	0	10	16
채소류	0	347	10	29	49	0	10
유지류	176	26	19	527	180	252	95
과실류	132	19	19	22	9	24	12
- 오렌지	106	0	0	0	0	0	0
- 신선과실	18	18	18	7	4	4	4
- 조제과실	1	1	1	15	5	20	8
- 기타과실	7	0	0	0	0	0	0
축산물	106	37	69	2,740	443	640	3,754
- 소(Cattle)	59	32	59	2,400	190	420	1,561
- 소(Buffaloes)	0	5	10	330	200	120	281
- 기타축산물	47	0	0	10	53	100	1,912
유지류	176	26	19	527	180	252	95
커피류	0	6	0	51	51	51	32
연초류	1,091	1,213	815	400	1,140	650	924
고무류	30,750	38,000	21,500	37,000	7,514	18,418	28,258
기타농산물	3,100	2,674	3,709	1,746	914	1,653	1,546
총 계	37,970	44,960	26,762	43,964	10,580	22,213	36,441

자료: http://faostat.fao.org/faostat/f

부표 11. 라오스의 농산물 수입

단위: 천 달러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곡물류	22,515	22,032	22,490	11,357	14,342	17,277	18,728
- 밀	2,300	2,000	1,250	1,000	500	800	802
- 마카로니	646	577	449	540	595	700	1,178
- 쌀	9,300	7,700	12,175	1,350	3,800	3,950	3,500
- 보리	2,684	3,017	1,804	1,226	1,930	1,885	2,798
- 감자	9	4	4	0	2	2	2
- 기타곡물	7,576	8,734	6,808	7,241	7,515	9,940	10,448
채소류	71	114	33	45	20	77	111
- 토마토	1	10	0	1	1	1	0
- 양파	2	3	0	15	0	0	0
- 건조채소류	14	28	0	0	0	0	16
- 기타채소	54	73	33	29	19	76	95
과실류	2,510	2,145	1,071	1,760	2,052	1,785	2,358
- 감귤류	240	210	140	50	70	85	105
- 사과	576	334	268	354	250	110	39
- 포도	18	12	8	32	35	25	2
- 과실와인	1,142	1,225	551	1,057	1,336	1,100	1,888
- 망고	70	49	10	20	26	10	26
- 기타과실	464	315	94	247	335	455	298
축산물	10,254	9,562	10346	6,960	4,810	8,573	9,737
- 우유	5,100	4,100	5,860	4,000	1,500	3,100	3,100
- 분유	3,822	4,154	3,414	1,892	1,153	2,830	3,538
- 가금류	258	368	336	381	184	210	305
- 기타축산물	1,074	940	736	687	1,973	2,433	2,794
음료	3,526	3,485	5,975	11,180	10,897	15,860	10,554
주류	9,042	8,539	4,198	8,123	12,284	520	12,000
연초류	25,065	20,731	14,354	22,407	15,714	3,350	9,790
당류	14,090	11,567	7677	9,266	8,094	15,301	9,898
유지류	25	42	97	204	48	15	11
기타농산물	9,064	9,625	6,445	7,193	8,112	6,857	12,462
총 계	96,162	87,842	72,686	78,495	76,373	69,615	85,649

자료: http://faostat.fao.org/faostat/f

부표 12. 라오스의 농산물 수출

단위: 천 달러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곡물류	655	54	176	236	340	167	96
- 보리	5	10	30	41	200	50	44
- 옥수수	510	14	39	100	50	117	46
- 콩	140	30	105	95	90	0	6
- 기타곡물	0	0	2	0	0	0	0
유지작물	1,264	800	1,030	1,140	240	570	65
- 땅콩	1,140	750	1,000	900	60	400	24
- 참깨	124	50	30	240	180	170	41
과실류	1,978	1,376	110	426	1,774	201	313
- 사과	16	0	7	7	14	10	163
- 조제과실	62	26	33	69	210	190	149
- 기타과실	1,900	1,350	70	350	1,550	1	1
축산물	10,307	10,212	6,374	9,257	12,281	6,815	4,530
- 소(Cattle)	5,000	5,000	3,000	3,000	6,500	1,030	462
- 소(Buffaloes)	5,000	5,000	3,000	6,000	5,500	5,300	4,014
- 기타축산물	307	212	374	257	281	485	54
커피류	13,105	9,600	19,321	22,750	18,700	19,700	10,294
기타농산물	549	365	43	37	61	69	53
총 계	27,858	22,407	27,054	33,846	33,396	27,522	15,351

자료: http://faostat.fao.org/faostat/f

부표 13. 미얀마의 농산물 수입

단위: 천 달러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곡물	48,215	33,811	24,021	30,363	38,225	32,816	28,919
- 밀(밀가루)	15,400	8,822	8,741	16,000	16,000	10,000	12,000
- 보리	19,000	11,000	3,500	2,300	3,500	2,700	3,512
- 기타곡물	13,815	13,989	11,780	12,063	18,725	20,116	13,407
채소류	2,275	1,372	1,605	4,415	3,465	1,582	5,025
- 마늘	1,400	410	400	2,200	1,500	300	2,073
- 건조채소	280	140	15	600	390	1,000	2,020
- 기타채소	595	822	1,190	1,615	1,575	282	932
과실류	4,590	3,865	3,335	8,294	10,270	11,260	11,909
- 사과	650	330	1,400	5,400	7,200	8,700	7,703
- 과실조제품	2,400	2,200	1,250	840	1,040	700	730
- 기타과실	1,540	1,335	685	2,054	2,030	1,860	3,476
축산물	56,920	49,191	36,249	36,026	40,175	35,750	35,417
- 쇠고기	300	340	155	45	55	15	800
- 우유	22,500	16,000	7,000	5,000	3,500	1,000	3,005
- 분유	20,200	17,000	13,000	14,500	18,600	16,000	13,294
- 닭고기	450	350	45	10	15	5	155
- 기타축산물	13,470	15,501	16,049	16,471	18,005	18,730	18,163
당류	7,980	10,076	4,095	7,095	16,018	3,278	3,423
식물성유지	66,892	68,017	164,310	127,922	86,107	66,525	62,860
- 팜유	64,882	65,340	161,300	125,000	85,000	65,000	60,500
- 기타유지	2,010	2,677	3,010	2,922	1,107	1,525	2,360
음료	37,300	41,000	17,400	16,500	22,000	11,500	11,341
주류	15,700	7,800	5,200	6,200	8,900	9,800	8,000
커피류	8,840	11,310	7,430	8,290	8,530	7,410	6,527
연초류	145,100	88,100	64,320	46,400	36,250	41,080	42,541
기타농산물	24,395	27,577	33,046	63,569	68,496	74,192	70,276
총 계	418,207	342,119	361,011	355,074	338,436	295,193	286,238

자료: http://faostat.fao.org/faostat/f

부표 14. 미얀마의 농산물 수출

단위: 천 달러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곡물류	252,289	238,164	223,981	206,430	301,428	401,453	407,866
- 쌀	20,849	6,032	26,354	10,319	31,970	111,607	107,390
- 옥수수	18,010	7,248	18,265	8,666	14,122	8,717	11,887
- 콩	212,441	224,528	179,362	187,445	255,332	280,889	287,470
- 기타곡물	989	356	0	0	4	240	1,119
채소류	0	0	16,000	5,000	9,800	10,100	12,154
- 양파	0	0	16,000	5,000	9,800	10,100	11,000
- 기타채소류	0	0	0	0	0	0	1154
과실류	700	150	50	120	300	350	110
- 기타과실	700	150	50	120	300	350	110
축산물	2,594	2,312	12,379	15,577	13,542	18,583	12,028
- 소	1,800	1,500	8,000	12,000	9,000	12,600	8,413
- 벌꿀	180	180	180	180	180	180	216
- 기타축산물	614	632	4,199	3,397	4,362	5,803	3,399
유지작물	32,248	29,296	27,472	14,332	19,697	7,315	3,047
- 참깨	32,088	28,096	26,272	13,062	18,357	5,935	1,522
- 기타유지작물	160	1,200	1,200	1,270	1,340	1,380	1,525
연초류	360	728	0	0	150	5,900	9,806
고무류	28,661	21,376	15,847	11,957	10,256	11,233	10,400
기타농산물	25,464	30,935	21,650	18,620	20,327	19,010	15,314
총 계	342,316	322,961	317,379	272,036	375,500	473,944	471,879

자료: http://faostat.fao.org/faostat/f

부표 15. 브루나이의 농산물 수입

단위: 천 달러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곡물류	55,186	66,506	73,451	57,908	60,263	47,480	64,335
- 밀	2,929	2,677	2,154	2,300	1,400	3,000	1,432
- 쌀	11,150	20,806	23,504	16,000	17,000	9,800	12,601
- 옥수수	3,500	1,000	1,582	3,900	1,200	2,500	456
- 호밀	0	0	0	0	0	0	10,324
- 기타곡물	37,607	42,023	46,211	35,708	40,663	32,180	39,522
채소류	15,492	12,343	12,447	8,210	5,748	7,079	9,285
- 양배추	730	836	840	350	160	450	644
- 양파	3,740	1,690	2,196	1,350	880	1,210	1,027
- 마늘	250	404	376	110	180	265	350
- 당근	350	531	459	630	210	220	459
- 조제채소	1,600	773	710	1,000	740	700	346
- 냉동채소	2,294	690	686	350	240	230	436
- 기타채소	6,528	7,419	7,180	4,420	3,338	4,004	6,023
과실류	23,702	25,097	24,183	15,927	14,428	17,454	27,420
- 오렌지	4,083	2,686	2,527	1,600	1,300	1,200	1,256
- 감귤류	1,236	631	718	650	560	400	765
- 사과	2,735	2,337	2,332	1,550	2,300	2,400	1,646
- 배	1,500	1,011	1,065	1,100	900	670	780
- 포도	1,500	1,376	1,394	1,100	1,000	1,000	1,267
- 조제과실	2,500	2,041	1,908	1,750	1,000	1,100	1,847
- 기타과실	10,148	15,015	14,239	8,177	7,368	10,684	19,859
축산물	74,451	48,024	41,084	36,920	36,593	36,626	41,460
- 소	4,300	3,868	4,007	10,500	10,100	9,000	12,285
- 우유	6,330	3,978	2,729	4,300	3,600	3,500	5,376
- 돼지고기	4,200	411	729	820	520	620	1,034
- 닭고기	19,320	5,352	3,941	3,850	1,500	900	81
- 계란	3,396	3,505	5,030	2,300	1,500	1,500	2,338
- 기타축산물	36,905	30,910	24,648	15,150	19,373	21,106	20,346
당류	5,167	7,321	8,893	5,738	9,422	10,356	10,217
유지류	9,388	11,687	11,412	11,491	9,136	9,742	9,455
음료	15,000	17,191	16,216	11,800	10,100	14,000	6,006
주류	5,000	218	52	1,450	1,000	1,000	88
커피류	3,121	3,073	2,421	1,617	1,781	1,921	2,137
담배류	15,146	15,398	15,026	19,720	13,001	12,001	13,017
기타농산물	11,819	35,929	21,580	20,116	24,573	35,011	20,612
총 계	233,472	242,787	226,765	190,897	186,045	192,670	204,032

자료: http://faostat.fao.org/faostat/f

부표 16. 브루나이의 농산물 수출

단위: 천 달러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곡물	13	40	161	50	25	38	8
채소류	424	5	17	287	27	27	3
- 꽃양배추	57	0	0	0	0	0	0
- 조제채소	106	0	0	0	0	0	3
- 냉동채소	39	0	2	260	0	0	0
- 기타채소	222	5	15	27	27	27	0
과실류	337	78	22	62	20	31	48
- 오렌지	28	13	0	0	0	0	0
- 과일쥬스	12	14	0	0	0	8	48
- 조제과실	89	0	0	40	0	0	0
- 기타과실	208	51	22	22	20	23	0
축산물	20,074	937	392	254	259	1,141	908
- 쇠고기	770	106	25	175	150	1,000	41
- 우유	0	71	32	0	0	0	11
- 닭고기	19,304	358	79	79	79	9	0
- 기타축산물	0	402	256	0	30	132	856
당류	77	1	28	3	6	7	8
유지류	9	0	48	2	20	2	25
음료	320	300	160	120	40	20	146
초콜릿	0	3	23	0	0	0	227
차류	0	0	11	70	80	60	0
기타농산물	504	171	180	198	149	300	162
총 계	21,758	1,535	1,042	1,046	626	1,626	1,535

자료: http://faostat.fao.org/faostat/f

부표 17. 한국의 대 싱가포르 농산물 무역

단위: 천 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수출	농산물	7,563	12,556	16,823	18,410	18,208	19,115
	축산물	370	59	91	132	381	451
	임산물	1,187	1,213	1,715	2,508	838	560
	총 계	9,120	13,828	18,629	21,050	19,427	20,126
수입	농산물	13,677	12,111	10,099	13,477	16,434	17,548
	축산물	487	961	961	326	2,474	3,914
	임산물	6,433	7,220	810	1,076	838	697
	총 계	20,597	20,292	11,870	14,879	19,746	22,159
무역 수지	농산물	-6,114	445	6,724	4,933	1,774	1,567
	축산물	-117	-902	-870	-194	-2,093	-3,463
	임산물	-5,246	-6,007	905	1,432	-	-137
	총 계	-11,477	-6,464	6,759	6,171	-319	-2,033

자료: http://www.kati.net

부표 18. 한국의 대 싱가포르 농산물 수출

단위: 천 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곡류	548	648	778	714	751	577
- 밀	543	636	766	692	747	558
- 기타 곡류	5	12	12	22	4	19
서류	226	-	-	-	-	-
두류	-	-	-	-	2	1
전분	290	221	296	280	301	258
과실류	2,415	2,269	1,895	2,292	2,548	1,664
- 사과	874	456	209	206	-	6
- 배	375	157	253	503	486	154
- 감	810	1,007	774	828	978	405
- 단일과실조제품	326	615	650	653	1,001	1,073
- 기타 과실류	30	34	9	102	83	26
채소류	120	227	238	177	319	430
- 김치	85	8	48	76	127	136
- 토마토	-	-	-	20	-	3
- 딸기	-	-	-	-	8	55
- 고추	-	136	75	48	40	37
- 채소종자	35	66	65	31	76	164
- 기타채소류	-	17	50	2	68	35
화훼류	50	42	46	27	23	25
버섯류	-	-	-	21	177	58
식물성유지	5	2	207	231	633	580
면류	747	1,027	1,116	1,324	1,644	1,831
과자류	719	872	1,121	1,121	1,161	1,268
음료	23	60	96	303	265	105
당류	972	5,103	8,359	7,958	5,769	6,833
주류	214	215	384	550	950	874
연초류	102	95	91	446	337	211
커피류	614	1,229	1,557	2,084	2,648	3,312
기타 농산물	518	546	639	882	680	1,088
농산물 전체	7,563	12,556	16,823	18,410	18,208	19,115
가금육류	29	24	32	9	5	1
축산부산물	2	16	21	98	362	449
낙농품	322	-	29	17	14	-
기타 축산물	17	19	9	8	-	1
축산물전체	370	59	91	132	381	451
섬유판	52	163	133	149	183	193
파티클보드	6	-	41	14	1	-
기타목재류	159	211	468	286	254	94
버섯류	388	318	237	179	127	167
석제품	490	-	433	1,032	101	12
견과류	54	334	357	805	157	54
기타 임산물	38	187	46	43	15	40
임산물전체	1,187	1,213	1,715	2,508	838	560
총 계	9,120	13,828	18,629	21,050	19,427	20,126

자료: http://www.kati.net

부표 19. 한국의 대 싱가포르 농산물 수입

단위: 천 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곡류	-	9	-	289	434	-
- 밀	-	-	-	50	434	-
- 호밀	-	9	-	-	-	-
- 옥수수	-	-	-	239	-	-
서류	-	-	-	18	-	-
- 감자	-	-	-	18	-	-
두류	3	9	-	6	26	-
과실류	-	1	705	69	119	147
- 단일과실조제품	-	-	-	-	-	-
- 과실혼합물	-	-	-	15	-	-
- 포도	-	-	31	2	-	-
- 파인애플	-	-	-	52	114	95
- 기타과실	-	1	674	-	5	52
채소류	125	440	328	174	112	134
- 오이	-	1	1	10	6	5
- 후추	116	436	321	151	85	101
- 기타 채소류	9	3	6	13	21	28
화훼류	6	8	23	6	5	-
식물성유지	3,637	3,141	3,830	3,806	3,157	3,316
유지가공품	1,775	2,741	2,145	2,358	2,643	3,430
사료	1,268	1,733	1,433	1,706	1,746	1,926
소오스류	302	399	556	536	889	615
커피류	78	142	471	157	113	178
코코아류	1,448	1,857	3,531	3,162	3,663	6,252
주류	17	33	587	1,232	1,899	1,804
과자류	616	750	438	449	378	417
면류	52	180	189	241	320	306
조제농산물	269	1,121	756	1,002	2,055	2,973
기타 농산물	503	913	1,442	2,337	2,600	1,251
농산물 전체	10,099	13,477	16,434	17,548	20,159	22,749
가금육류	-	-	520	149	532	24
낙농품	665	37	88	10	8	14
축산부산물	296	263	1,777	3,623	6,334	5,661
기타 축산물	-	26	89	132	169	253
축산물전체	961	326	2,474	3,914	7,043	5,952
원목	36	-	-	-	-	24
제재목	146	157	190	167	217	268
합판	502	609	14	229	380	3
단판	-	53	18	-	3	90
섬유판	-	-	32	27	138	-
파티클보드	1	-	-	-	267	378
기타 목재	99	202	400	258	303	57
석제품	13	12	22	6	26	14
기타 임산물	13	43	162	10	61	148
임산물전체	810	1,076	838	697	1,395	982
총 계	11,870	14,879	19,746	22,159	28,597	29,683

자료: http://www.kati.net

부표 20. 한국의 대 브루나이 농산물 무역

단위: 천 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수출	농산물	38	48	82	91	122	90
	축산물	-	-	-	-	-	-
	임산물	22	18	-	1	-	2
	총 계	60	66	82	92	122	92
수입	농산물	-	-	-	-	-	-
	축산물	-	-	-	-	-	-
	임산물	-	-	-	-	-	-
	총 계	-	-	-	-	-	-
무역 수지	농산물	38	48	82	91	122	90
	축산물	-	-	-	-	-	-
	임산물	22	18	-	1	-	2
	총 계	60	66	82	92	122	92

자료: http://www.kati.net

부표 21. 한국의 대 브루나이 농산물 수출

단위: 천 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과실류	2	-	-	-	9	-
- 배	2	-	-	-	-	-
- 기타과실	-	-	-	-	9	-
면류	-	7	11	8	5	4
과자류	36	40	66	83	103	73
음료	-	-	-	-	-	10
기타농산물	-	1	5	-	5	3
농산물전체	38	48	82	91	122	90
축산물전체	-	-	-	-	-	-
임산물전체	22	18	-	1	-	2
총 계	60	66	82	92	122	92

자료: http://www.kati.net

부표 22. 한국의 대 라오스 농산물 무역

단위: 천 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수출	농산물	-	-	-	-	-	-
	축산물	-	-	-	-	-	-
	임산물	-	-	-	-	-	-
	총 계	-	-	-	-	-	-
수입	농산물	376	1,045	505	184	72	48
	축산물	-	-	-	-	-	-
	임산물	56	605	20			44
	총 계	432	1,650	525	184	72	92
무역 수지	농산물	-376	-1,045	-505	-184	-72	-48
	축산물	-	-	-	-	-	-
	임산물	-56	-605	-20	-	-	-44
	총 계	-432	-1,650	-525	-184	-72	-92

자료: http://www.kati.net

부표 23. 한국의 대 라오스 농산물 수입

단위: 천 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커피류	-	-	-	-	1	2
한약재	376	1,045	505	184	70	43
기타 농산물	-	-	-	-	1	3
농산물전체	376	1,045	505	184	72	48
축산물전체	-	-	-	-	-	-
원목	53	599	20	-	-	-
제재목	-	6	-	-	-	41
기타 임산물	3	-	-	-	-	3
임산물전체	56	605	20	-	-	44
총 계	432	1,650	525	184	72	92

자료: http://www.kati.net

부표 24. 한국의 대 미얀마 농산물 무역

단위: 천 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수출	농산물	775	1,133	873	230	165	76
	축산물	-	30	1	2	2	51
	임산물	1	1	3	-	145	104
	총 계	776	1,164	877	232	312	231
수입	농산물	3,879	5,105	5,104	3,998	4,958	5,044
	축산물	-	-	-	3	-	4
	임산물	1,574	5,313	11,185	10,240	15,013	11,265
	총 계	5,453	10,418	16,289	14,241	19,971	16,313
무역 수지	농산물	-3,104	-3,972	-4,231	-3,768	-4,793	-4,968
	축산물	-	30	1	-1	2	47
	임산물	-1,573	-5,312	-11,182	-10,240	-14,868	-11,161
	총 계	-4,677	-9,254	-15,412	-14,009	-19,659	-16,082

자료: http://www.kati.net

부표 25. 한국의 대 미얀마 농산물 수출

단위: 천 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전분	4	4	-	4	-	-
채유종실	-	-	-	-	-	5
채소류	1	11	8	1	7	
- 양배추	-	-	8	-	7	-
- 채소종자	1	7	-	1	-	-
- 기타채소	-	4	-	-	-	-
유지가공품	-	1	2	65	38	-
과자류	127	132	33	77	-	5
당류	14	10	31	15	2	3
주류	-	-	-	18	16	-
연초류	-	-	15	-	-	-
커피류	599	957	742	45	99	34
기타 농산물	34	23	44	92	57	34
농산물전체	775	1,133	873	230	165	76
낙농품	-	30	-	2	2	-
축산부산물	-	-	1	-	-	49
가금류	-	-	-	-	-	1
축산물전체	-	30	1	2	2	51
섬유판	-	-	-	-	27	53
기타목재	1	1	-	-	105	-
수지류	-	-	-	-	13	51
석제품	-	-	3	-	-	-
기타임산물	-	-	-	-	-	-
임산물전체	1	1	3	-	145	104
총 계	776	1,164	877	232	312	231

자료: http://www.kati.net

부표 26. 한국의 대 미얀마 농산물 수입

단위: 천 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곡류	-	-	-	-	-	1,000
- 옥수수	-	-	-	-	-	1,000
서류	173	-	9	-	6	8
- 감자	-	-	9	-	6	6
- 타피오카	173	-	-	-	-	2
두류	2,553	3,149	2,578	2,076	2,659	2,216
- 대두	-	20	-	-	-	-
- 녹두	-	16	70	46	11	5
- 강낭콩	374	349	433	709	1,046	817
- 비그나파세라콩	2,036	2,349	1,705	1,314	1,572	1,372
- 기타두류	143	415	370	7	30	22
채소류	133	222	432	387	423	421
- 양배추	9	8	77	68	49	16
- 생강	8	10	4	16	9	4
- 토란	115	204	342	303	364	401
- 기타채소류	1	0	9	0	1	0
박류	-	76	322	-	-	275
한약재	1,020	1,654	1,755	1,497	1,792	1,013
기타 농산물	0	4	8	38	78	111
농산물전체	3,879	5,105	5,104	3,998	4,958	5,044
한약재	-	-	-	-	-	-
기타부산물	-	-	-	3	-	4
축산물전체	-	-	-	3	-	4
원목	118	189	112	74	137	352
재제목	-	-	19	74	67	574
합판	1,224	5,061	10,908	9,779	14,468	10,026
단판	-	-	11	131	131	113
기타 임산물	232	63	135	182	210	200
임산물전체	1,574	5,313	11,185	10,240	15,013	11,265
총 계	5,453	10,418	16,289	14,241	19,971	16,313

자료: http://www.kati.net

부표 27. ASEAN 국별 인구변화 및 실업률 개황

단위: 백만명, %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인도네시아	총인구	179.4	194.8	206.2	209.0	212.0	215.0
	인구성장률	2.0	1.7	1.1	1.4	1.4	1.4
	실업률	2.5	7.2	6.1	8.1	9.1	9.5
말레시아	총인구	18.10	20.68	23.49	24.01	24.53	25.05
	인구성장률	2.5	2.7	2.6	2.2	2.1	2.1
	실업률	5.1	3.1	3.0	3.5	3.5	3.6
필리핀	총인구	61.0	68.3	76.3	77.9	79.5	81.1
	인구성장률	2.3	2.3	2.1	2.1	2.0	2.0
	실업률	8.1	8.4	10.1	9.8	10.2	10.1
싱가폴	총인구	3.05	3.53	4.02	4.13	4.17	4.19
	인구성장률	4.1	3.2	1.7	2.8	0.8	0.3
	실업률	2.0	2.0	3.1	3.3	4.4	4.7
태국	총인구	55.84	59.40	62.41	62.91	63.43	63.96
	인구성장률	1.1	1.2	1.0	0.8	0.8	0.8
	실업률	2.2	1.1	2.4	2.6	1.8	1.5
캄보디아	총인구	8.6	10.5	12.6	12.8	13.0	13.3
	인구성장률	3.6	5.2	1.8	1.8	1.9	1.9
	실업률	-	2.5	2.5	1.8	-	-
라오스	총인구	4.14	4.60	5.23	5.38	5.53	5.68
	인구성장률	2.1	0.2	2.8	2.8	2.8	2.8
	실업률	-	-	-	-	-	-
미얀마	총인구	40.78	44.74	50.13	51.14	52.17	53.22
	인구성장률	1.9	1.9	2.0	2.0	2.0	2.0
	실업률	4.2	4.1	-	-	-	-
베트남	총인구	66.02	72.00	77.64	78.69	79.73	80.90
	인구성장률	1.9	1.7	1.4	1.4	1.3	1.5
	실업률	-	-	4.4	4.3	1.7	1.7
부르나이	총인구(천명)	-	-	-	-	351	356
	인구성장률	-	-	-	-	2.0	1.4
	실업률	-	-	-	-	4.7	-

자료: ADB(asian development bank), key indicators 2004.
world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2004.

부표 28. 경제성장률 및 GDP 현황

단위: %, 10억달러, 달러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9.0	8.2	4.9	3.5	3.7	4.1
	GDP(경상)	114.4	202.1	150.2	143.0	173.0	208.3
	1인당 GDP	638	1,038	728	684	816	969
말레시아	경제성장률	9.0	9.8	8.5	0.3	4.1	5.2
	GDP(경상)	44.0	88.8	90.2	88.0	94.9	103.2
	1인당 GDP	2,432	4,295	3,837	3,664	3,870	4,118
필리핀	경제성장률	3.0	4.7	4.4	3.0	4.4	4.5
	GDP(경상)	44.3	74.1	75.9	72.0	78.0	80.4
	1인당 GDP	714	,1055	989	917	969	977
싱가폴	경제성장률	9.0	8.0	9.7	-1.9	2.2	1.1
	GDP(경상)	36.9	83.9	92.6	86.0	88.3	91.3
	1인당 GDP	12,099	23,777	23,051	20,816	21,162	21,826
태국	경제성장률	11.2	9.2	4.8	2.1	5.4	6.7
	GDP(경상)	85.3	168.0	122.7	115.5	126.9	143.2
	1인당 GDP	1,528	2,829	1,967	1,837	2,001	2,238
캄보디아	경제성장률	1.2	6.9	7.0	5.7	5.5	5.1
	GDP(경상)	-	3.3	3.4	3.5	3.8	4.0
	1인당 GDP	163	323	280	282	297	315
라오스	경제성장률	6.7	7.0	5.8	5.8	5.9	5.8
	GDP(경상)	0.86	1.7	1.7	1.7	1.8	2.1
	1인당 GDP	209	383	331	326	331	375
미얀마	경제성장률	2.8	6.9	13.7	10.5	5.0	5.1
	GDP(경상)	-	5.0	10.5	8.3	9.1	9.6
	1인당 GDP	-	109	210	162	175	179
베트남	경제성장률	5.1	9.5	6.8	6.9	7.1	7.3
	GDP(경상)	6.5	20.7	31.2	32.7	35.1	39.0
	1인당 GDP	98	288	402	415	440	483
브루나이	경제성장률	-	1.0	2.8	3.1	2.8	3.2
	GDP(경상)	-	5.2	4.3	4.2	4.3	4.7
	1인당 GDP	-	17,096	12,751	12,121	12,070	12,971

주: 브루나이의 1995년 자료는 실제 1996년 자료임.

자료: ADB, key indicators 2004., world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4.

부표 29. 산업별 GDP 성장률

단위: %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인도네시아	농업	3.1	4.4	1.9	1.7	2.0	2.5
	광공업	11.5	10.4	5.9	3.1	3.5	3.4
	서비스업	9.8	7.6	5.2	4.6	4.5	5.5
말레시아	농업	-0.6	-2.5	2.6	-0.9	3.0	5.5
	광공업	11.0	14.9	13.6	-3.8	3.9	7.0
	서비스업	11.3	9.6	6.0	6.1	4.2	3.9
필리핀	농업	0.5	0.9	3.4	3.7	3.3	3.5
	광공업	2.6	6.7	4.9	0.9	3.7	3.0
	서비스업	4.9	5.0	4.4	4.3	5.4	5.9
싱가폴	농업	-7.6	-3.1	-4.9	-5.9	-5.8	-0.4
	광공업	9.4	9.8	11.1	-9.1	3.5	0.2
	서비스업	10.3	7.4	7.9	2.5	1.4	1.1
태국	농업	-4.7	4.0	7.2	3.5	3.0	6.8
	광공업	16.1	10.9	5.3	1.7	6.9	9.3
	서비스업	12.7	8.9	3.7	2.3	4.5	4.2
캄보디아	농업	1.2	3.3	-1.5	2.2	-2.7	9.8
	광공업	-2.1	23.2	30.7	12.9	17.7	19.0
	서비스업	2.7	8.4	5.7	4.2	4.5	4.2
라오스	농업	8.7	3.1	4.9	3.8	4.0	2.2
	광공업	16.2	13.1	8.5	10.1	10.3	11.3
	서비스업	-0.4	10.2	4.9	5.7	5.7	7.4
미얀마	농업	1.8	4.8	11.0	-	-	-
	광공업	5.5	12.7	21.3	-	-	-
	서비스업	3.1	7.3	13.4	-	-	-
베트남	농업	1.0	4.8	4.6	3.0	4.2	3.3
	광공업	2.3	13.6	10.1	10.4	9.5	10.3
	서비스업	10.2	9.8	5.3	6.1	6.5	6.6

자료: ADB(asian development bank), key indicators 2004.
world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2004.

부표 30. 산업별 GDP 구성(명목)

단위: %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인도네시아	농업	19.4	17.1	17.2	16.7	17.1	16.6
	광공업	39.1	41.8	46.1	45.9	44.2	43.6
	서비스업	41.5	41.1	36.7	37.4	38.7	39.9
말레시아	농업	15.2	12.9	8.6	8.1	9.0	9.5
	광공업	42.2	41.4	50.8	48.3	47.4	48.6
	서비스업	42.6	45.6	40.5	43.7	43.6	41.9
필리핀	농업	21.9	21.6	15.8	14.9	14.7	14.4
	광공업	34.5	32.1	32.3	32.4	32.5	32.3
	서비스업	43.6	46.3	52.0	52.6	52.8	53.2
싱가폴	농업	0.4	0.2	0.1	0.1	0.1	0.1
	광공업	33.0	33.3	34.1	31.8	33.1	32.7
	서비스업	66.6	66.5	65.8	68.1	66.8	67.2
태국	농업	12.5	9.5	9.0	9.1	9.4	9.8
	광공업	37.2	40.7	42.0	42.1	42.7	44.0
	서비스업	50.3	49.7	49.0	48.8	48.0	46.3
캄보디아	농업	55.6	50.4	39.6	37.6	35.6	37.2
	광공업	11.2	15.0	23.3	25.6	28.0	26.8
	서비스업	33.2	34.6	37.1	36.8	36.4	36.0
라오스	농업	61.2	55.2	52.5	51.2	50.4	48.6
	광공업	14.5	19.1	22.9	23.7	24.7	25.9
	서비스업	24.3	25.7	24.6	25.1	25.0	25.5
미얀마	농업	57.3	60.0	57.2	57.2	-	-
	광공업	10.5	9.9	9.7	10.5	-	-
	서비스업	32.2	30.1	33.1	32.4	-	-
베트남	농업	38.7	27.2	24.5	23.2	23.0	21.8
	광공업	22.7	28.8	36.7	38.1	38.5	40.0
	서비스업	38.6	44.1	38.7	38.6	38.5	38.2

자료: ADB(asian development bank), key indicators 2004.
world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2004.

부표 31. ASEAN 국가별 교역현황

단위: 백만달러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인도네시아	수출	25,675	45,418	62,124	56,321	57,159	61,223
	수입	21,837	40,629	33,515	30,962	31,229	32,390
	교역수지	3,838	4,789	28,609	25,359	25,930	28,633
말레시아	수출	29,446	73,865	98,229	87,969	94,061	104,969
	수입	29,250	77,601	81,963	73,744	79,761	83,617
	교역수지	195	-3,737	16,266	14,225	14,300	21,351
필리핀	수출	8,186	17,447	38,078	32,150	35,208	36,298
	수입	13,042	28,488	37,002	34,943	37,196	37,497
	교역수지	-4,856	-11,041	1,076	-2,793	-1,988	-1,199
싱가폴	수출	52,527	118,187	137,953	121,685	125,043	144,127
	수입	60,583	124,394	134,675	115,918	116,337	127,892
	교역수지	-8,056	-6,207	3,278	5,768	8,706	16,235
태국	수출	23,053	56,444	69,152	64,971	68,062	80,365
	수입	33,005	70,784	62,180	61,947	64,591	75,645
	교역수지	-9,952	-14,340	6,973	3,024	3,471	4,721
캄보디아	수출	86	854	1,327	1,374	1,766	1,917
	수입	164	1,187	1,536	1,600	2,311	2,469
	교역수지	-78	-333	-209	-226	-545	-552
라오스	수출	79	308	330	320	297	366
	수입	185	589	535	510	467	501
	교역수지	-106	-281	-205	-191	-170	-136
미얀마	수출	472	899	1,982	2,563	2,917	2,367
	수입	880	1,836	2,346	2,749	2,079	1,879
	교역수지	-408	-937	-364	-187	298	488
베트남	수출	2,404	5,449	14,483	15,029	16,706	20,176
	수입	2,752	8,155	15,637	16,218	19,745	25,227
	교역수지	-348	-2,706	-1,154	-1,189	-3,039	-5,051
부르나이[1)]	수출	-	2,593	3,904	3,643	3,708	4,410
	수입	-	2,345	1,047	1,125	1,480	1,254
	교역수지	-	248	2,857	2,518	2,228	3,156

주 1) 브루나이 교역자료는 국제수지 부문의 무역수지 자료를 인용.

자료: ADB(asian development bank), key indicators 2004.
world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2004.

부표 32. ASEAN 국가별 경제전망

단위: %

구분		2004년	2005년
인도네시아	GDP 성장률	4.8	5.2
	인플레이션율	6.5	7.0
	경상수지/GDP	3.4	3.1
말레시아	GDP 성장률	6.8	6.0
	인플레이션율	1.5	2.2
	경상수지/GDP	7.8	7.0
필리핀	GDP 성장률	5.5	5.5
	인플레이션율	5.2	5.5
	경상수지/GDP	3.0	2.8
싱가폴	GDP 성장률	8.1	4.2
	인플레이션율	1.8	1.6
	경상수지/GDP	27.0	25.0
태국	GDP 성장률	6.4	6.6
	인플레이션율	2.8	2.6
	경상수지/GDP	4.0	4.0
캄보디아	GDP 성장률	4.5	2.3
	인플레이션율	2.3	3.0
	경상수지/GDP	-10.0	-11.2
라오스	GDP 성장률	6.2	7.0
	인플레이션율	10.0	10.0
	경상수지/GDP	-1.9	-1.6
베트남	GDP 성장률	7.5	7.6
	인플레이션율	9.0	6.0
	경상수지/GDP	-4.1	-4.1

주: 보통 국제수지 적자, 흑자를 말할 때 대개 경상수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자료: ADB, Asian Development Outlook, 2004.

참 고 문 헌

강인수. 2004. “한-ASEAN FTA: 무역이슈와 쟁점.” 한·ASEAN FTA 추진 전략과 정책 과제 세미나 발표논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율. 2002.『ASEAN 산업·교역구조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율. 2004. “ASEAN 경제통합 추진현황과 전망.” 한·ASEAN FTA 추진 전략과 정책 과제 세미나 발표논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율 등. 2003.『ASEAN 경제통합의 확대와 한국의 대응 방향』. 정책 연구 03-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율. 2004. “ASEAN의 FTA 추진 동향과 우리의 대응 방향.” 한·ASEAN FTA 추진 관련 공청회자료집: 15-3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무역협회.

김한호. 2004.『한-ASEAN FTA가 농업부분에 미치는 영향분석』.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김한호. 2004a. “농업 분야의 민감 품목 및 대응 방안.” 한·ASEAN FTA 추진 전략과 정책 과제 세미나 발표논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창수. 2004. “한-ASEAN FTA: 농수산업이 이슈와 쟁점.” 한·ASEAN FTA 추진 전략과 정책 과제 세미나 발표논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변창구. 2001. “21세기 ASEAN: 도전과 전망.”『21세기 정치학회보』 9(2): 1-19.

손병해. 1988.『경제통합론』. 법문사

신동천. 2001.『한·일 FTA 체결의 파급 효과 분석을 위한 CGE 모형 개발』. 정책 연구보고 4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오상면. 1994.『ASEAN 자유무역지대의 설립과 한국의 대외무역정책』. 정책자료 94-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용걸. 1996.『ASEAN 자유무역지대(AFTA) 전개 과정과 그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용걸. 2000.『AFTA-CER간 연계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지역연구회시리즈 00-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재원. 1996. “ASEAN의 경제통합과 자유무역지대의 역할.”『지역주의적 경제통합과 한국경제』: 95-140. 한국비교경제학회.

정인교 등. 2003.『중・ASEAN의 추진과 파급 영향』. 정책 연구 03-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인교. 2004. “한・ASEAN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한・ASEAN FTA 추진 전략과 정책 과제 세미나 발표논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세균 등. 2001.『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등. 2002a.『한・중 자유무역협정체결 시 농업 분야 대응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등. 2002b.『한・칠레 FTA에 대응한 농업부문대책』. 정책 연구보고 5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등. 2004.『한・일 FTA 농업 부문 협상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SEAN Secretariat. 1997. *ASEAN Vision 2020.*

ASEAN Secretariat. 1998.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the Facilitation of Goods in Transit.*

ASEAN Secretariat. 1999. *Protocol on the Specail Arrangement for Sensitive and Highly Sensitive Products,* Singapore.

ASEAN Secretariat. 1992. *Agreement on the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CEPT) Scheme for the ASEAN Free* Trade Area, Singapore.

Imada, P. 1993. ″Production and Trade Effects of the ASEAN Free Trade Area.″ *The Developing Economies* 31(1): 3-23.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02. *Japan’s FTA Strategy.*

Rieger, H.C. 1991. *ASEAN Economic Cooperation: A Handbook*.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Pangestu et. al. 1992. "A New Look at Intra-ASEAN Economic Coperation." *ASEAN Economic Bulletin* 8: 333-352.

<http://apps.fao.org/faostat>.

<http://faosta.fao.org/faostat>.

<http://www.adb.org/default.asp>.

<http://www.aseansec.org/home.htm>.

<http://www.asem3.go.kr/english/index.htm>.

<http://www.worldbank.org>.

<www.asean.or.id/10588.htm>.

<www.aseansec.org/13196.htm>.

<www.aseansec.org/15278.htm>.

<www.in.news.yaho.com/040905/137/2fw62.htm>.

<www.in.news.yaho.com/040905/137/2fw62.html>.

연구보고 R488
한·ASEAN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비한 농업부문 기초연구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4. 12.
발 행 2004. 12.
발행인 이정환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59-6110 http://www.krei.re.kr
인쇄처 동양문화인쇄포럼
전화 02-2242-7120 팩시밀리 02-2213-2247 E-mail: dongyp@chol.com

ISBN 89-89225-79-5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